금주의 법구-〈아함경〉
사물을 스스로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을 통해 보아온
그릇된 버릇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10월 10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21호 2016년 11월 9일 수요일



법륜 스님(사진 맨 왼쪽) 등 '국가안보와 민생안정을 바라는 종교 · 사회 · 정치 원로들' 은 11월 2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 김명혁 한국복음주의협의회장,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김덕룡 국민동생 상임공동대표, 박관용 제16대 국회의장,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목사, 이종찬 우당기념관장,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 최성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증경회장, 박남수 한국종교연합 상임대표.

"거국내각·하야"… 최순실 게이트에 '한목소리'

불교단체 '국정농단' 최순실 사태 시국선언 잇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로 지목된 최순실 씨 관련 비리 및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는 가운데, 국민들의 분노는 하루가 다르게 거세지고 있다. 정치계선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철수 前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박 대통령 하야를 공식 촉구하고 나섰으며, 전국 곳곳선 시국선언과 촛불집회가 연이어 진행됐다. 비단 정치권 및 시민사회계 뿐 아니다. 종교계서도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거국내각 구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안보와 민생안정을 바라는 종교 · 사회 · 정치 원로들' 은 11월 2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서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초당적인 거국내각 구성으로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할 것을 요청했다. 여야 정치권이 합의하고 국민이 동의한 인물을 총리로 임명, 새 총리가 여야 대표와 협의해 새로운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원로들은 "거국내각은 총리 책임 하에 국가운영을 안정시키고, 경제와 안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한다"며 "또 '최순실 게이트' 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 및 개헌과정을 엄정 관리해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국정운영을 거국내각에 맡겨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에 대해선 "국가비상사태를 당리당략으로 이용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서 국정 정상화에 적극 협력해야한다. 하야나 탄핵으로 국정 공백을 초래하는 것은 국가의 불행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해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새 신임총리 후보자로 김병준 교수를 기습 발표한 데 대해선 "우리가 바라는 거국내각은 여야와 국민이 합의한 총리로 구성돼야 한다. 단순히 총리 1명 바꾼다고 이 사태가 해결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종교 · 사회 · 정치 원로들엔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 김명혁 한국복음주의협의회장, 박남수 한국종교연합 상임대표, 이영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윤여준 前 환경부 장관, 정운찬 前 국무총리, 박관용 16대 국회의장, 정의화 19대 국회의장 등 22명이 이름을 올렸다.

태고종 전국종무원장협의회는 11월 3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사회정화와 실천적 도덕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승려들은 나라 살림과 국가 안위가 관련된 국가적 중대사가 한 민간 신분의 비선실세에 의

법륜 스님 등 거국내각 촉구
15개 불교단체도 거센 비난
종립 대학생들까지 규탄 합세

해 유린된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대해 국민적 공분을 함께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해당 기관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민심과 상식에 부응하는 국민적 행동에 함께할 것을 선언한다"고 표명했다.

불교인권위원회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대한불교청년회 등 15개 불교단체도 11월 1일 조계사 일주문 앞서 '헌정유린 국민기만 박근혜는 하야하라' 는 제하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제 불교단체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란 충격적 사태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유린이란 초유의 상황을 초래했다"며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우린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대통령의 진정한 참회와 하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검찰에 대해선 "객관적이고 엄중한 수사로 이 사태의 진실을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짜 맞춘 듯 수사를 진행하고, 진실을 감추려는 움직임에 경고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관련자들은 반드시 법정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꼬집었다.

민주주의불자회(회장 서동석, 前민중불교연합)는 10월 28일 '국기문란 헌정파괴, 박근혜는 사퇴하라' 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매일같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최순실 사태를 보며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며 "박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와 민족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물러나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고 질책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시공)는 10월 28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특검 도입하라"며 △청와대 비서진의 일괄사태 △거국 중립 내각의 구성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치권에 대해선 "여당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명백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설특검이 아닌, 중립적 수사를 펼칠 수 있는 별도특검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립 동국대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 총학생회도 각각 10월 28일과 31일 시국선언을 하고, 박 대통령의 퇴진과 '최순실 게이트' 관련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관련 기사 3면〉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조계종 16대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 선출

11월 1일 207회 정기회서 만장일치로… '화합·단결' 강조

부의장에 초격 · 이암 스님
후반기 상임분과위 구성도

조계종 제16대 후반기 종회의장에 원행 스님이 선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07회 중앙종회 정기회를 열고 후반기 종회의장에 원행 스님〈사진〉을 만장일치 선출했다.

이날 정기회에는 종회의원 79명 중 77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으며 개회 직후 후반기 원 구성이 진행됐다.

원행 스님은 선출 직후 "종단 내적으로 종도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장군 죽비가 부러져 나가도 끝없이 정진해 나가자"며 "미래 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이 건설적인 내용이 되도록 소납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스님은 "많은 종도들이 16대 종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진정한 출가자는 번뇌 속에 살면서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이 돼야 한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새겨본다"며 "의장으로 있는 동안 숯불이 되리라 생각한다. 숯불은 하나만 있을 때는 금방 꺼지지만, 모이면 빛이 오래간다. 34대 집행부도 성공할 수 있도록 종회의원 스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종회는 의장 선출에 이어 수석부의장으로 초격 스님, 차석부의장으로 이암 스님을 만장일치 선출했으며 사무처장으로는 호산 스님이 의장 원행 스님 추천으로 임명됐다.

이어 후반기 상임분과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에 들어갔다.

한편, 개회 직후 전반기 종회의장 성문 스님은 "우리 종단은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래 어느 때보다도 발전적이고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 사안을 제도화, 입법화하는 중요한 역할이 부여돼있다"며 "안일한 과거를 타파하고 질적 추구를 하고있다. 종단 화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퇴임사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언제 헐릴지 모를 가건물서 '자비행', 이들을 도와주세요

11월 초 때 유난히 빨리 찾아온 추위가 우리들 몸과 마음을 바짝 얼어붙게 만듭니다. 올해는 얼마나 더 추울까요? 올여름 유난히 폭염이 기승을 부렸듯, 올겨울에도 동장군이 예년보다 더 위세를 떨친다고 합니다. 이런 자연의 재해서 가장 힘들어 할 이들이 있습니다. 쪽방촌 사람들입니다.

저마다 각자 사연이 있겠지만 어떻든 난방도 열악한 1평 남짓한 비좁은 방에서 올 겨울 맹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벌써부터 걱정이 한가득일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 곁엔 또다른 가족처럼 그들을 보듬고 온정을 함께 나누는 쪽방촌도우미봉사회들이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전국에는 많은 쪽방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본지는 이번주 영등포 지역 쪽방촌에 17년 동안 급식 나눔을 소리없이 실천해 온 작은 거인들을 만났습니다. 부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인 자비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참 불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비나눔은 조금씩 큰 반향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빗장으로 세월과 이 사회를 꼭꼭 걸어 잠근 쪽방촌 이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했습니다.

어느 쪽방촌 주민은 자신과 같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공감해 주는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고픈 강한 희망을 가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쪽방촌 주민들의 상황도 안타깝지만 그들 곁에서 희망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쪽방촌도우미봉사회의 사연도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현재 봉사회가 음식 준비를 하는 사무실은 언제 헐릴지 모르는 가건물입니다. 이들의 꿈은 마음 편히 봉사 준비를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봉사회의 상황도 쪽방촌 현실과 다름없이 열악합니다. 후원이 절실 합니다. 이들이 마음껏 자비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관련 기사 14 · 1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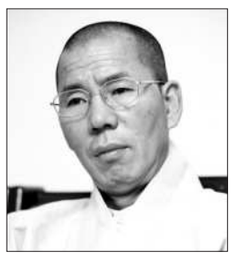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후원계좌=국민은행 384737-04-004793, 예금주 (사)쪽방촌도우미봉사회



직지사 주지후보에 법등 스님 당선

112표 중 81표 득표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 신임주지 후보에 법등 스님〈사진〉이 당선됐다. 법등 스님은 10월 28일 직지사서 열린 주지 선출 산중총회서 112표 중 81표를 득표해 주지후보에 당선됐다.

법등 스님은 1961년 직지사서 녹원 스님을 계사로 수계, 서울 조계사와 구미 도리사 주지, 제9~13대 중앙종회의원,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등을 역임했다. 법등 스님은 주지후보 선출 직후 "승려복지와 직지사 재정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대형 불사보다 내실을 다져 모범적인 교구본사가 되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출가자 급감에 조계종 '총림' 위상 흔들

총림실사 보고서 공개…정원 · 구성요소 미달 태반

지난 2012년 8대 총림으로 확장된 조계종 총림 체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조계종의 총림 실사 결과 8대 총림 교육기관의 대부분이 정원미달일 뿐만 아니라 태반이 염불원 · 율원 등 구성요소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림실사특별위원회는 11월 1일 열린 제207차 정기회에서 총림 실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8대 총림 중 1개 기관 이상에서 인원 미달을 지적받은 총림은 금정총림 범어사, 팔공총림 동화사, 덕숭총림 수덕사, 쌍계총림 쌍계사, 조계총림 송광사, 해인총림 해인사 등 6곳이다. 종령에는 승가대학 등에 학년 당 10명, 총 40명의 최소정원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이 요건을 총림 대부분이 충족시키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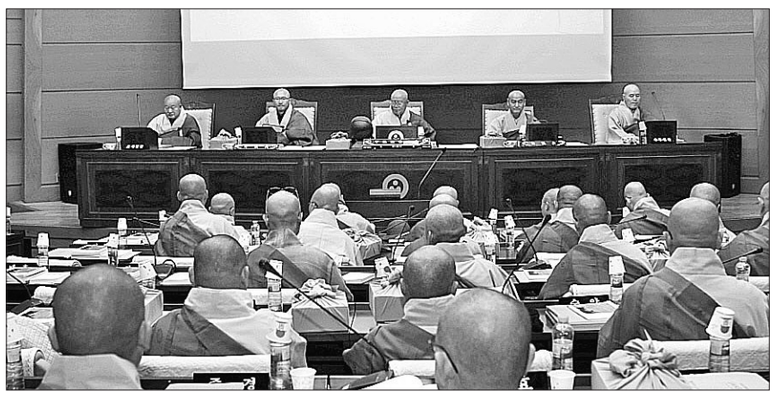
총림실사특위는 실사보고서에서 "출가자 감소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 총림에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며 "교육 내실화를 위해 출가자 확보 노력과 함께 행자교육환경 개선, 교육기관 통폐합 등 다각적인 연구가 검토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 따르면 총림법에 규정된 총림 요건인 선 · 율 · 강 · 염불원의 4개 기관을 모두 갖춘 총림도 전무했다. 대부분이 최근 총림 요건으로 확정된 염불원이 미비했다. 덕숭총림 수덕사와 고불총림 백양사는 율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불총림 백양사의 경우 2016년 6월 율원을 말사인 용흥사로 이전해 시정조치를 받은 상태다. 총림실사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염불원에 대한 개념 정립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위선 종립대 '승려 미달' 지적

2013년 제도화 염불원, 설치 전무

시스템 정비 필요성 종회에 제기



제 207차 중앙종회 정기회 개회 모습. 종회 보고사항에 총림실사 내역이 공개됐다.

역피라미드 형 승단 구조 고착화

이 같은 문제는 출가자 급감이 주 원인으로 파악된다. 교육원에 따르면 2015년 204명 이었던 출가자 수는 2016년 현재 157명으로 200명 선이 붕괴된 상태다.

총림 실사에 나섰던 종회의원 조격 스님은 10월 31일 출가특위 회의에서 "중앙승가대는 120명 학년 정원 중 입학자가 40명에 불과해 학사운영이 어려울 지경이며, 동국대에도 학인 스님이 없어 강좌가 폐강되고 있다"며 "실사에서도 총림 측에서 출가자 급감으로 인한 어려움을 강하게 호소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출가자 급감 속에 승단은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회의원 태원 스님의 종책질의에 대한 총무부의 법계별 품서인원 현황 공개에 따르면 승랍 25년 이상의 종덕 · 현덕 법계 대상자는 2014년 대상자가 없었지만 2015년 302명, 2016년 262명으로 증가했다. 출가자에 비해 100여명 가량 많은 상황이다.

승단의 고령화 속에 만 51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은퇴자 출가제도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출가제도개선특위가 제207차 정기회에서 공개한 은퇴자출가에관한특별법(이하 은퇴자특별법)에 따르면 은퇴출가자는 만 51세부터 70세 이하의 연령을 대상으로 한다.

이미 승단에 고연령대의 승려들이 많기에 은퇴출가자의 활동범위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은퇴출가자는 계단법과 법계법, 승가고시법, 승려법, 교육법, 승려복지법 등을 적용받지 못하며 교육은 청강만이 가능하다. 선원에서의 수행도 경력 등에 인정되지 못한다.

종회의원 정산 스님은 "승가대학을 종립대학의 지방교육기관으로 편입, 상호 인원을 확보하고 승가대학의 커리큘럼 전문화 등을 통해 젊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제안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사업국장에 선문 스님 임명

조계종 사업부에 대한 마지막 인선이 이뤄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1월 1일자로 선문 스님을 조계종 총무원 사업국장에 임명했다.

조계종 사업부는 지난 3월 총무원법 제정 이후 7월 11일 사업부장 각운 스님을 비롯한 팀장 · 팀원 인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실무를 책임질 사업국장직은 공석이었다. 이번 사업국장 임명으로 진행 예정인 사찰 설계사무소 설립, 사찰 연계형 전세버스 사업, 태양광 발전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선문 스님은 묘정 스님을 은사로 1993년 수계(사미니계)했으며, 동학사 승가대학 및 동국대를 졸업하고 뉴욕 헌터 칼리지에서 사회학 학사, 뉴욕 롱아일랜드대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노덕현 기자



사업국장 선문 스님이 11월 1일 자승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자승 스님, 문재인 前 대표에 "대승 정치를"

11월 1일 최순실 게이트 수습 조계종 예방 자리서 조언

'정무방소 명대승심' 화두

안철수 대표와 같은 조언

"정치 초심 잃지말라" 풀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이날 문재인 前 대표에게 '정무방소 명대승심' 화두를 전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유력한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문재인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1일 조계종 총무원을 예방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문 前 대표에게 '정무방소 명대승심(政無方所 名大乘心)' 화두를 전하고 국민을 위한 '대승정치'를 당부했다.

먼저 최근의 정국에 대한 해결방안을 묻는 문 前 대표에게 자승 스님은 "선문답에 '정무방소 명대승심'이라는 말이 있다. 이미 정치권 내에 문제의 해답이 있기에 충분히 해결 되리라 본다"고 답했다.

자승 스님은 지난 1월 안철수 국민의당 前 대표의 조계종 예방과 3월 국회 정각회 신년법회에서도 같은 '정무방소 명대승심' 화두를 전한 바 있다. 특히 국민의당 창당을 준비 중이던 안철수 前 대표의 예방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이 화두에 대해 "정치에는 방소(방향과 장소)가 없고 미적분처럼 딱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치에서 명심할 것은 '대승심'뿐이라고 설명하며 국민을 위하는 초심에서 당당하게 임하라"고 조언 한 바 있다. 이를 들은 문 前 대표는 현재 정국의 발생이 정치하는 모든 이들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前 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해왔기에 이번 위기도 극복할 것"이라며 "오히려 이번 계기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 현재 국민들이 고통 속에 지내고 있고 직접적으로 대통령 하야까지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치로 지혜롭게 사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문 前 대표는 이어 "정치하는 이로서 박근혜 정부 출범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현재 정치인들의 셈법이 다 다른데 대승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할 때"라며 "종교계에서도 사회에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으는데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이에 대해 "현재 각 정당 대표들의 발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문 前 대표는 비교적 자유로운 신분이다. 문 대표가 지혜를 모으는 데 가교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의승 추념사업, 전방위 접근 필요하다"

김상영 교수, 영규대사 · 의승군 조명 세미나서



"임진왜란 시기 활동한 의승은 역사의 의인이자 위인으로서 위상을 지닌다. 이들을 추모하고 선양하는 사업은 불교계뿐 아니라 범국민적 차원서 전개돼야 한다."

김상영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사진〉는 11월 4일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서 '영규대사와 800의승-그 역사와 가치를 조명한다'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서 의승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추념사업에 불교계가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다.

'임진왜란 참전 의승의 공적과 추념사업'을 주제로 발표한 김 교수는 의승 추념사업을 위한 과제로 △호국의승의 날 제정과 관련한 불교계 노력 △〈한국불교 의승자료집〉 간행 △교과서 수록 내용 수정 및 확충 △각종 추념시설 설립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조선시대 의승군 활동이 지니는 역사적 공훈을 감안할 때 '호국의승의날'은 '다른 기념일과 유사 · 중복 여부 및 형평성'에서 의병의날, 현충일, 순국선열의날 등과 그 성격이 확연하게 구분되고 있다"면서 "국난극복을 위해 전쟁터서 장렬하게 목숨 바친 의승군의 넋을 추모하고, 희생정신을 선양하는 일은 충무공 탄신일에 견주어 부족함이 없는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승 추념사업에 대한 불교계의 미온적인 움직임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14년 8월 27일 조계사 대웅전서 조계종 총무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호국의승의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발족식'이 봉행됐다. 하지만 올 1월 총무원장 스님과 행자부 장관 면담 이후 더 이상 반가운 소식은 전해지지 않는다"며 "현재 진행되는 불교사회연구소 호국불교 관련 사업 역시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종도들의 경각심이 발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승의 역사가 살아있는 역사의 모습으로 후손에게 계승되도록 추념시설 확산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대한불교법화종 종도들에게 알리는 호소문

본 종단은 묘법연화경의 회삼귀일의 대중교리를 봉체하여 일심삼관과 교관중수 개시오입불지견하는 제세안민의 홍법호국함을 종지로 하여 창종한 지 70년이 된 자랑스러운 종단입니다. 종도들 모두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종단이 최근 연속된 불미스러운 일로 명예가 끝없이 실추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단을 대표하는 수장인 총무원장이 종단 내 사유사암인 교헌사 창건주 (주)유일스카이와 관련하여 대가성을 가진 거래에 연루되어 종단 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가성 거래라고 의심받고 있는 부분은, 교헌사 전 주지 지명(조영국)스님과의 거래, 안정사 주지 취임 이후 유일스카이의 사내 사업을 약속하고 지원 받은 로펌 변호사 수임비용 등이 그것입니다. 그 외에도 승려 생활 중의 생업활동 과정이 종단을 대표하는 사람으로는 부적격하다는 평가도 잇따르고 있고, 본 종단에 입종하기 전 법랍이 확실하지 않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행부와 각 교구 원장 스님들을 포함한 종도들의 신뢰 회복도 되지 않아 지금은 총무원장 직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본 종단의 집행부와 각 교구의 종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종도들은 대한불교법화종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현 종단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현 총무원장의 사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며 추후 총무원의 행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궐기문을 보는 법화종도들은 종단의 현 위기를 애종심으로 관심가지고 응원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위 원 장	**암 현** (현 총무원 기획실장)	고 문	**도 수** (현 충북교구종무원장)	위 원	**송 현** (전 마산교구종무원장)	위 원	**지 암** (부산교구 도성암 주지)
부위원장	**도 광** (현 경북교구종무원장)	위 원	**법 원** (현 창녕교구종무원장)	위 원	**현 묵** (현 총무원 총무국장)	위 원	**무 원**
부위원장	**광 래** (현 경주교구종무원장)	위 원	**진 우** (현 강원교구종무원장)	위 원	**관 효** (제주교구 혜관정사 주지)		

2016년 10월 26일

비 상 대 책 위 원 회

“바른 가르침 전하고 있나” 반면교사 계기를

최순실 사태로 본 종교의 역할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구원파를 이끈 유병언이 연관된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 다시 신흥 종교가 스캔들의 뒷 배경으로 등장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은 신흥 종교 전반에 대해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종교의 본질을 모른 채 전체를 매도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도 현재의 종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면교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바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원 이사는 11월 1일자 뉴스레터 ‘종교문화 다시 읽기’에서 “종교는 칼과 같아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최태민 부녀가 종교를 이용해 성추행을 저지르고 거대한 재산을 축적했다면, 그리고 딸 최순실이 종교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했다면 그 종교의 내용과 성격에 관계없이 그 종교는 사이비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과 최태민 부녀의 종교에 대한 평가는 그들의 종교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종교를 통해 살아온 초법적인 범법 행위에서 먼저 찾아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표 동국대 불교학부 명예교수는 “신흥 종교들은 전부 ‘사이비’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행위”라면서도 “종교가 제대로 된 가르침을 전하지 않고 교단 지도자의 사욕을 채우는 것이 ‘사이비’고 비판받아야 할 행위”라고 역설했다.

“부처님께서 부도덕한 윤리를 가르치거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종교를 경계하라고 했다”고 전제한 김 명예교수는 “현재 한국불교가 이 같은 경계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자칫 사회의 보편적 윤리를 벗어나고 있지 않는지를 또는 역기능을 행하고 있지 않는가를 내부 자정을 통해 끊임없이 일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명예교수는 종교가 보이는 사회적 역기능으로 △권력 · 세속적 위치를 종교지도자가 야합하는 것 △보수화돼 사회 기득권을 위한 종교로 머무는 것을 꼽았다. 김 명예교수는 “이 같은 역기능은 부처님이 설하신 무아 · 연기 · 자비와는 거리가 멀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팔정도, 십선계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윤리운동을 한국불교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는 ‘반면교사(反面敎師)’를 강조했다. 조 교수는 “부처님 초기 경전에는 사술(邪術)에 대한 비판들이 많다. 그럼 점에서 불교가 제대로 된 가치를 대중들에게 전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불교를 비롯한 기성 종교는 반성의 여지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종교는 상식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며, 시민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교도 거국내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장은 종교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비판과 감시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박 원장은 “최순실 사태는 종교가 공적 영역의 재화를 탐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이를 막지 못한 박 대통령에게 근원적 책임이 있고, 이를 뽑은 국민과 제대로 보좌하지 않는 주변 인물들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어 “종교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은 종교가 건강치 못하다는 것이다. 종교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과 감시가 필요하다”며 “불교계 역시 부처님 가르침에 맞게 살고 있는지,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를 반면교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제14회 대원상 대상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

11월 2일 심사, 금강 스님 · 바른법연구원 · 병불련 등 선정

제14회 대원상 대상에 천호월서희망재단 이사장이자 법주사 조실인 월서 스님〈사진〉이 선정됐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은 11월 2일 심사위원회를 열고, 제14회 대원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포교대상 출가부문 대상엔 월서 스님, 특별상엔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이 선정됐다. 재가부문은 특별상에 바른법연구원과 전국병원불자연합회, 장려상에 녹운회가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콘텐츠대상 우수상은 오숙진 회화작가의 ‘Manda_La_명상의 시간’, 장려상은 불교포커스 팟캐스트 ‘이미령의 책잡히다’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포교대상 출가부문 대상에 선정된 월서 스님은 2012년 국제구호단체 천호월서희망재단을 설립, 라오스 · 캄보디아 · 네팔 등 오지마을 학교 개보수 및 교육지원, 환경개산 사업을 전개해왔다.

출가부문 특별상 금강 스님은 한문학당, 템플스테이, 참선수행, 괘불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일반인들에게 불교를 전파한 공로가 인정됐다.



재가부문 바른법연구원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금강경〉 해설과 무료 급식소 ‘하심정’을 운영해왔다. 병원불자연합회는 의료사각지대에 처한 소외계층에 대한 자비나눔을, 동산불교대학 1기생들이 세운 봉사모임 녹운회는 종립학교 장학금 지원과 각종 봉사활동을 펼였다. 대원상 시상식은 11월 11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다보빌딩 3층 법당서 열린다.

윤호섭 기자

위덕대 아태연구소… 원전사업 연구소 선정

3년간 총 2억원 소요, 월례특강 및 연차 포럼 진행

진각종 종립 위덕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소장 김명석)가 지난 10월 한수원 및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 후원으로 실시되는 ‘원전정책연구 출연사업’서 포럼사업 주관 연구소로 선정돼 주목 받고 있다.

사업 규모는 연간 2억으로, 총 3년간 진행될 이번 사업은 위덕대 아태연구소, 동국대 지역정책연구소, 교육연구소가 1차년도 사업으로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개월간 연구를 공동 진행한다. 또한 향후 3년간 원자력 등 에너지산업과 관련된 내외 · 부 전문가를 초청해 월례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월례특강은 격월로 매년 4회, 분기포럼 매년 3회, 그리고 7개월간의 연구결과를 발표 논의하는 연차포럼이 1회 개최된다. 연간 7천만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차포럼, 분기포럼, 월례특강’은 동국대 지역정책연구소 주최, 위덕대 아태연구소 주관으로 열린다.

김주일 기자

“북한 과학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북한은 과학기술을 어떻게 발전시켰을까?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키 위해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과학자로부터 북한의 과학기술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법타 스님)는 11월 10일 오후 7시 서울 견지동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서 ‘북한 과학기술 진단과 남북협력의 가능성’을 주제로 31차 월례강좌를 개최한다. 강사로 나선 강호제 박사는 이날 북의 과학 기술을 활용할 새로운 남북경협과 협력의 관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호제 박사는 최근 저서 〈과학기술로 북한읽기1〉(2016)을 펴낸 북한 과학기술정책 연구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극동문제연구소 객원 연구위원 ·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 연구위원 등 역임한 바 있다. (02)720-0531. 참가비 5천원.

박아름 기자

삼천사 사찰도서관, 공공기여 모범 사례

조계종 ‘제15호 사찰도서관’ 10월 31일 선정 · 현판식

지역주민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불서 등 종교 · 인문 교양서적을 전해 온 사찰도서관이 조계종 인증기관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삼천사 도서관이 그 주인공이다.

서울 삼천사(회주 성운)는 10월 31일 삼천사 탐방객 쉼터에서 조계종 사찰도서관 15호점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을 비롯해 인덕원 산하 구립도서관장, 삼천사 신도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 삼천사는 30여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불교계 최대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의 근본사찰로 그동안 지역주민과 탐방객을 위한 열린문고 형식의 사찰도서관을 운영해왔다. 삼천사 사찰도서관은 구립도서관과의 다양한 MOU를 통해 16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또 최첨단 RFID 시스템 및 인터넷 대출 시스템, 자율 도서반납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신청도서를 배달하는 ‘책단비’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현판식에서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사진 오른쪽 네번째)을 비롯한 삼천사 신도 대중들이 불서 포교를 다짐하는 엄지척을 하고 있다.

이날 현판식에서는 조계종 ‘부처님 글사랑, 사찰도서관’ 캠페인 일환으로 불교출판문화협회에서 전달한 장서 50권이 전달됐다.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찰도서관을 운영해왔다”며 “삼천사 사찰도서관은 불서뿐만이 아니라 가톨릭 · 개신교 등 이웃종교의 도서와 시, 수필 등 서적도 다수 보유해 지역민들의 인문교양 함양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사찰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사찰 위상을 높이는 등 긍정효과가 있는 만큼 불교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엽서로 만나는 전통산사의 美

등재추진위, ‘한국의 전통산사’ 엽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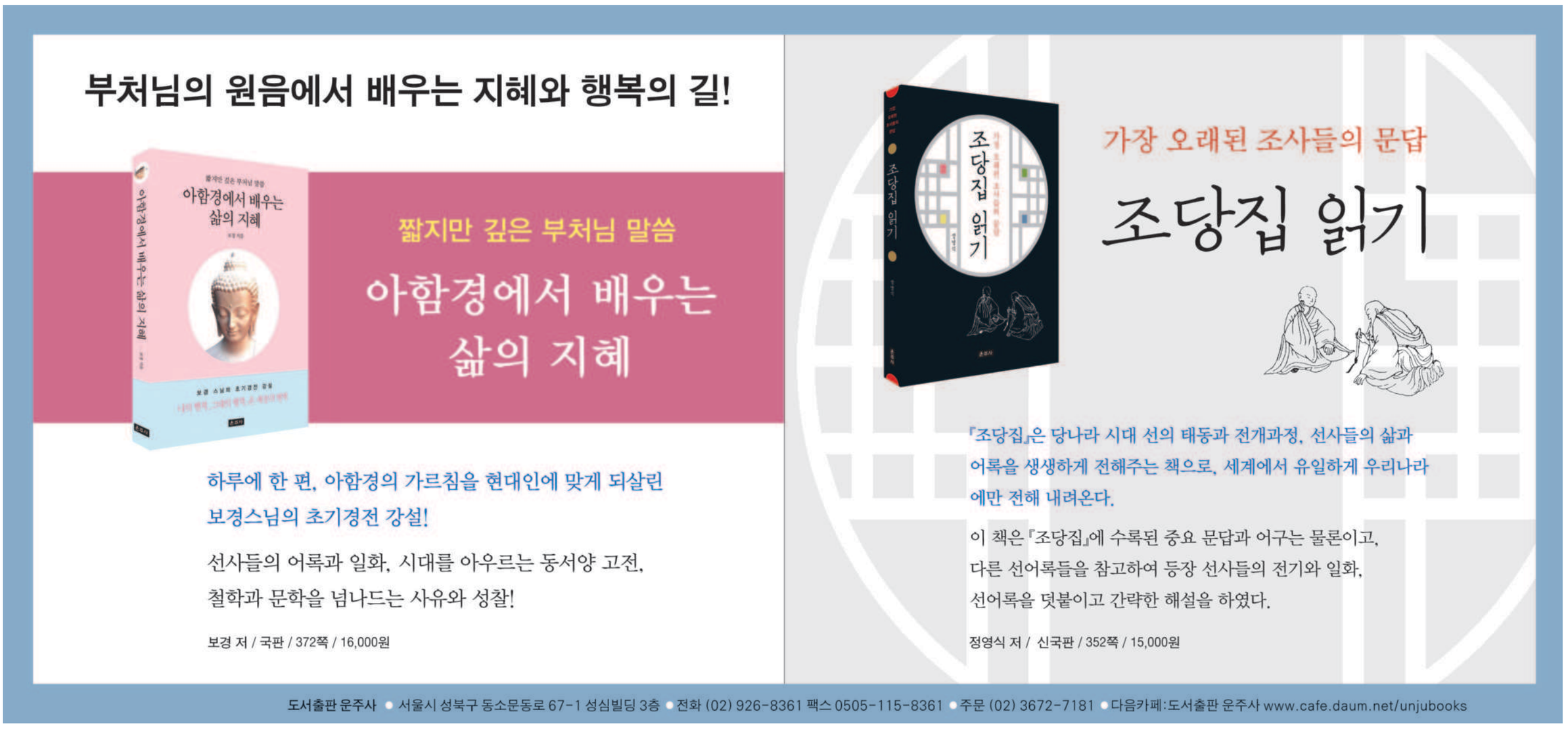
한국의전통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위원장 자승)는 ‘한국의 전통산사’ 7개 사찰을 소개하는 엽서 및 사진집을 발간했다.

엽서와 사진집은 ‘한국의 전통산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및 세계유산적 가치가 잘 드러나는 사진들을 담았으며, 등재신청서를 보완하는 부록자료 및 ‘한국의 전통산사’를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엽서는 사진 1컷씩 총 7컷을 선정하여 세트로 제작했으며, 사진집은 약 100컷의 사진을 △산사의 사계 △산사의 성보 △산사의 수행과 삶 등 ‘한국의 전통산사’의 자연, 유형유산, 무형유산을 소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국의 전통산사의 아름다움을 담은 엽서.

신성민 기자



일 주 문



운허 스님 기신재

일관 남양주 봉선사 주지 스님은 11월 9일 오전 10시 청풍루서 '운허 스님 제36주기 기신재'를 봉행한다.



열린선원 성지순례

법현 서울 열린선원장 스님은 11월 6일 강화도 보문사 · 전등사 · 청련사서 '무상법현 스님과 떠나는 성지순례'를 실시했다.



어린이지도자 연수회

성행 (사)동련 이사장 스님은 12월 3~4일 하동군청소년수련원서 '제61차 전국 어린이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한다.



사찰음식 시식행사

묘명 산청 대원사 주지 스님은 10월 31일 묵곡생태공원서 '산청군 어린이집 가족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시식행사'를 개최했다.

"도반 있어 어둠 속에서도 달립니다"

Interview

임승호 시각장애 육상선수 · 박광택 가이드



"육상대회 금메달은 함께 해준 도반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저를 위해 모든 걸 맞춰준 고마운 분들을 만나 행복합니다."(임승호)

"임승호 선수 일정에 맞춰 연습하기 때문에 개인 훈련시간은 적지만 그의 열정과 재능을 위한 일이기에 기꺼이 함께 합니다."(박광택)

지난달 21일부터 5일간 충남 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서 열린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서 육상부문 2관왕(800m · 5000m)과 단축마라톤 은메달을 차지한 시각장애 육상선수 임승호(55 · 사진 오른쪽) 씨와 가이드 박광택(51 · 사진 왼쪽) 씨. 대한불자마라톤 동호회(회장 혜문, 이하 동호회)서 2014년 처음 만나 짝을 이룬 이들은 지금까지 총 11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임승호 씨는 "2012년 동호회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다. 이전 가이드는 생업이 바빠 연습에 한계가 있었지만 박광택 도반은 개인 연습시간을 희생해가며 도와줬다. 덕분에 실력이 부쩍 늘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가이드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8년차 마라토너인 박광택 가이드는 임승호 선수와의 첫 대면 당시 발전가능성을 한눈에 알아보고 가이드를 자처했다. 동호회서 함께 불교를 공부하며 불심과 우정도 쌓았다. 박 씨는 "임 씨에게 일반인과 같은 강도의 프로그램을 적용해 훈련시키며 역량을 끌어올렸다"며 "힘든 과정이었지만 볼멘소리 없이 묵묵히 따라 와줘 고맙다"고 말했다.

2014년 만나 메달만 11개
함께 불교 공부로 佛心 다져
시각장애인 체육 활성화 서원

임 씨는 성적보다 사람들과 어울려 달릴 수 있음에 감사함을 표했다. 이어 육상을 처음 제안했던 공병길 체육교사와 오랜 기간 도움을 준 이순신 코치, 동호회를 이끌며 부처님 자비를 몸소 실천한 동화사 혜문 스님에 대해 "늘 곁에서 지지해주신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임 씨는 그러면서도 도와주는 이가 없어 체육활동을 꿈꾸지 못하는 다른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지 못해 체육활동을 접어둔 채 살아간다. 비록 앞은 볼 수 없지만 그들과 함께 소통하며 응원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이런 임 씨의 마음을 헤아린 혜문 스님과 박광택 가이드는 최근 대구지역 시각장애인협회 가이드 모임을 결성, 매주 5~6명의 시각장애인들의 운동을 돕고 있다.

박 씨는 "시각장애인분들에게 가이드를 제안했을 때 자신이 없다고 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활기차게 연습한다"며 "몸은 고되지만 그들의 성격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게 느껴져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도 함께 달리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희망에 불씨를 퍼뜨리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임 씨는 "절망적이었던 삶이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며 새롭게 바뀌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도반들과 인연을 맺었듯이 실의에 빠진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밝은 곳으로 이끌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조계종 포교원, 포교대상 시상식

11월 3일, 지공 · 응관 스님 등 14명 수상



사진제공=조계종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11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제28회 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을 봉행했다. 이날 공로상 지공 스님(황룡사 주지)과 원력상 응관 스님(심원사 주지) 등 총 1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윤호섭 기자**

승가일불회, 태화시장 위로법회

태풍 피해 입은 상인들에게 성금 전달



승가일불회(회장 도암)는 10월 19일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울산 태화강 인근 태화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위한 위로법회를 봉행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자부심 넘치는 성취 이루길"

제24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 열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는 제24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이 11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TBC 대구방송이 2부작 '무문관'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KBS의 '하늘에서 본 암자'가 방송부문 최우수상을, 법보신문의 연중기획 '불자답게 삽시다'가 신문부문 최우수상을, BBS의 '붓다핸섭 시즌1 쇼미 더 붓다-랩하는 스님들'이 뉴미디어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불교언론인상은 언론사불자연합회장인 정일태 KBS보도본부 해설위원이 수상했고, 버디필름의 영화 'Bring Home-아버지의 땅'과 월간 불광의 '월간 불광 500호'가 특별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총무부장 지현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현대인들에게 희망을 울림을 전하는 좋은 작품들을 선물해 주시길 바라며 방송부터 신문, 뉴미디어, 영화, 광고 등 여러 분야에서 스스로 자부심 넘치는 성취를 이루어 가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사진제공=조계종



범불교조계종, 창종·수계법회

10월 29일, 총본산 밀양 해인사서

(사)범불교조계종(총무원장 대명)은 10월 29일 종단 총본산인 밀양 단장면 해인사 대법당에서 '창종 및 수계 대법회'를 봉행했다.

1부 권공의식과 2부 창종 · 수계법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총무원장 대명 스님, 종회의장 성보 스님, 교육원장 묘광 스님, 규정원장 보광 스님 등 종도 및 각 종단 대표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법회는 혜명 스님의 발원문 낭독, 범산 스님의 고불문에 이어 해인 스님의 봉행사, 내빈소개, 축사 및 격려사가 진행됐다.

총무원장 대명 스님은 법어를 통해 "또 하나의 종단이 아닌 정진하는 한국불교의 중추종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전 종도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한 뒤 종단 예술대학 활성화와 지속적인 종도교육을 통한 수행풍토 조성을 다짐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군위 인각사, 삼국유사 학술문학제

10월 29일 특별강연 · 문학작품집 발간도
'일연 삼국유사 학술상'에 정호완 교수 등

군위 인각사(주지 선행)는 10월 29일 인각사 국사전서 '제16회 삼국유사 학술문학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명만 군위군수 등 2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일연 학술상 시상식과 특별강연, 문학작품집 발간 축하 음악회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인각사 주지 선행 스님은 "민족문화의 정수인 〈삼국유사〉를 찬술, 민족고유의 문화정신을 수호한 일연 선사의 향기를 인각사 곳곳서 느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일연 삼국유사 학술상은 정호완 대구대 명예교수와 김성헌 서양화가, 김호진 시인이 삼국유사 관련 작품 활동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이날 2016 일연스님과 삼국유사를 주제로 한 70여 편의 시작품을 담은 문학작품집 〈뜰 앞의 잣나무〉가 배포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11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조계사 야경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태국 관광객들이 대웅전 앞에서 밝은 미소를 띠며 차 시음을 하고 있다. 전각을 밝힌 조명과 체험장 분위기가 조화롭다.

“밤하늘 아래 절, 이렇게 예뻐도 되나요?”

[현장] 조계사 야경 템플스테이 · 달빛 수요음악회

가을날 저녁 7시. 서울 도심 속 탁한 공기에 별빛은 얼굴을 감추고, 야근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을 비추는 형광등 불빛만이 종로를 밝힌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 형형색색 조명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다. 야경 · 명상 · 다도 그리고 음악이 있는 곳, 제주도 아닌 ‘조계사 푸른 밤’이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가 10월 5일부터 수요일마다 은은한 조명과 전통문화체험, 음악공연으로 저녁을 곱게 물들이고 있다. ‘문화가 있는 야경 템플스테이’와 ‘달빛 조계사 수요음악회’다. 조계사가 저녁 시간대에 맞춰 이 같은 문화행사를 기획한 건 처음. 그런데 처음치고 제법 성황이다. 매 행사에 30~40명의 내외국인이 찾아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이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건 도심 속 사찰 야경을 비롯해 △마음챙김명상 △다식 만들기&차 시음 △지화 만들기 △소소한 음악공연. 참가자는 외국인이 약 70%를 차지한다. 해가 진 뒤 숙소에서 시간을 보내기보다 한국문화에 대해 하나라도 더 알아가고 싶은 호기심을 자극한 것이다.

11월 2일, 다섯 번째로 열린 조계사 야경 템플스테이를 찾았다. 동장군의 때 이른 방문으로 체감온도가 뚝 떨어져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일주문을 지나 맡게 된 군고구마 냄새에 발걸음이 빨라졌다.

대웅전 앞마당은 생각보다 북적였다. 하얀 다포가 덮인 기다란 테이블 위에는 향초와 연등, 찻잔 등이 놓여 있었다. 참가자를 배려한 난로들은 곳곳에서 고구마를 향긋하게 달궜다. 날씨는 추웠지만 참가자들의 미소는 온화했다. 추억을 쌓는데 이 정도 날씨가 문제랴.

6주 전 이화여대 한국어학당으로 유학 온 안드리아스(26 · 스웨덴) 씨는 가족과 함께였다. 그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라는 간단한 한국어로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에게 인사했다. 스님도 “반갑다”며 이 가족에게 합장인사를 알려줬다. 안드리아스의 모친은 “한국에서 공부하는 아들을 보러 왔는데 사찰에서 새로운 체험을 하게 돼 즐겁다”며 “아름다운 경치와 사찰의 친절함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여러 체험 중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다식 만들기와 차 시음이었다. 다식판에 다식을 손수 찍어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다양한 차를 한자리서 즐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한 팀이 체험을 마치고 일어나면 곧장 자리가 찼다.

딸과 함께 관광 온 레지나(53 · 아일랜드) 씨는 “숙소가 조계사 근처라 와봤는데 행사가 있는 줄은 몰랐다. 절은 처음 와봤지만 다른 절에도 가보고, 불교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졌다”면서 “차 종류가 이 정도로 다양하다는 것에 놀랐다. 직접 만든 다식은 친구들에게 자랑하려 사진을 찍어뒀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찰 야간행사는 드문 일이라고 얘기하자 “Lucky!”라고 외치며 웃어보였다.



연등과 조명으로 장엄된 회화나무.

조계사가 이 행사를 마련한 취지는 밤이 되면 어둡기만 한 종로에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주지 지현 스님은 “인사동과 광화문 인근은 저녁 8시 반이면 대부분 불이 꺼진다. 젊은이들이나 회사원, 관광객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곳이 없을까 고민하다 가장 안전지대인 조계사를 꾸며보기로 마음먹었다”면서 “절을 찾는 이들이 많고 적음을 떠나 한국불교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지현 스님은 밤을 새가며 경내 조명각도를 직접 맞추는 등 열정을 쏟았다고 했다. 청량사 주지 시절 비슷한 행사를 준비했던 경험이 도움이 됐다. 스님은 날씨에 따라 11월 말까지 저녁행사를 진행해본 뒤 내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체계를 잡을 계획이다. 현재 받고 있는 체험비 1만원도 없애 ‘만원의 장벽’을 허물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조계사를 대표하는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한 스님의 원력이 담겼다.

저녁 8시가 되자 범종루 앞 데크에 공연자들이 올랐다. 이날은 8인조 K-레이디즈 재즈 오케스트라와 아쟁 · 해금 연주팀의 동서양을 넘나드는 공연이 펼쳐졌다. 다식과 지화를 만들고, 따뜻한 차로 몸을 녹이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흥겨운 선율에 발 구르며 박자 타는 사람, 연인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이 모두 웃음꽃이 피었다.

가족 모두 불자라고 밝힌 응웬(32 · 베트남) 씨는 “한국은 두 번째 방문했지만 절에는 처음 와봤다. 한국 친구가 조계사에 대해 알려줘 관심이 생겼다”며 “도심 속에 있으면서도 평온한 느낌이 좋다. 베트남 사찰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시 오고 싶다”고 말했다.

근처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온 김선국(33) 씨는 “퇴근하면 항상 집에 가기 바빴는데 잠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 ‘하루의 쉼표’ 같은 느낌이 든다”면서 “직장동료들에게도 한번쯤 가보라고 권유해보겠다”고 전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저녁 있는 삶’을 꿈꾼다. 다른 나라에 비해 노동시간이 월등히 높은 한국이기에 이 같은 열망은 더욱 크다. 하지만 정작 시간이 주어졌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헤매는 이들도 많다. 각박한 사회로 인해 삶을 즐기기보다 견뎌내기 바빴던 탓이다. 이젠 여유를 찾자. 거창한 일이 아니다. 사찰로 발걸음을 조금만 옮겨보자. 그 발자국 하나하나가 삶의 쉼표를 찍을 테니.

글=윤호섭 · 사진=노덕현 기자, 조계사 일부 제공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과 안드리아스 부모(왼쪽 첫째, 둘째)가 담소를 나누고 있다.



달콤한 다식와 따뜻한 차 한 잔에 웃음꽃이 핀 외국인 관광객들.

사찰과 저녁의 ‘이색 콜라보’

11월 말까지 수요일마다 열려
외국인들에겐 특별한 추억을
한국인들에겐 ‘삶의 쉼표’를
내년 봄부터 체계적 운영 계획



빌딩과 전각을 배경으로 한 재즈밴드 M-바이러스의 역동적인 공연.



고층빌딩 사이에 자리한 조계사 전경. 관음상을 비추는 조명이 몽환적이다.





LOTUS(연꽃香) 조연향

new

조연향의 은은한 연꽃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 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조연향은 맑고 깨끗한 아침 연못의 고요한 연꽃향과 고급 목분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조합으로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조연향은 우리 나라에서 만든 우리향입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격 [장] 10,000원 (제조 : 국내산)
[단] 15,000원 (제조 : 국내산)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S 연꽃향초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 × 18㎜ 연소시간 : 60 ~ 70시간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www.shcandle.com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여행 · 봉사 · 신행 15년 이어온 도반들

회원 2만명 불여사, 창립 15주년
정기순례 · 봉사로 佛心 다져


불여사 회원들이 두 팔로 하트를 그리며 불교의 애정을 표현한다. 회원 대다수가 사찰 일을 돕고 있어 운영진 위주로 모아 촬영했다.


자현사 둥지청소년의집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불여사 회원들.

사진=불여사 홈페이지

1990년대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전 각종 PC통신매체에 불교모임이 생겨났다. 하지만 PC통신이라는 신문물에 대한 관심이 컸던 터라 체계적 활동은 저조했다. 그 안에서 불교 대중화를 꿈꾼 청년들은 2001년 10월 인터넷포털 다음(DAUM)에 '불교와여행을사랑하는사람들'이라는 카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온 ·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신행을 펼쳤다. 15년이 흐른 지금, 대부분은 부모가 되고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불교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이다.

전국불자들이 모여 소통하는 신행모임 '불교와여행을사랑하는사람들(이하 불여사)'이 창립 15주년을 맞았다. 10월 29일 영동 반야사에 모인 60여 명의 회원들은 제77차 정기순례와 함께 1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불여사는 공식단체도 아닌 일반동호회로서 이처럼 긴 세월을 유지해온 것 자체가 이색적이지만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2만여 명의 회원수다. 고작 20명이 모여 문을 열었던 초창기와 비교하면 상전벽해 수준이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정기순례'와 '교리공부' '자원봉사' '민주적 운영' 등 가치가 깔려 있었다.

불여사 총운영자인 고영주 법우(50 · 혜월)는 "다른 인터넷동호회가 온라인 활동에 중점을 둔다면 우리는 정기적으로 직접 모여 얼굴을 맞대고 유대감을 쌓는 게 특징"이라며 "현재는 분기별 순례와 더불어 부처님오신날 연등행렬에 참가하고 있다. 덕분에 타모임보다 회원 이탈이 적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불여사 1박2일 정기순례에는 늘 100여 명의 법우들이 동참한다. 참배를 비롯해 예불, 108배, 울력, 단합대회 등을 하는데 그 과정이 템플스테이와 퍽 닮았다. 템플스테이가 생기기 전부터 교구본사급 사찰을 돌며 이어온 역사이기에 불여사를 모르는 스님도 드물 정도. 이제는 청년법우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데리고 나오고, 나이든 법우는 손자와 함께하며 종교의 세대전승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런가하면 수도권 회원들은 서울 원각복지회 무료급식과 자현사 둥지청소년의집 봉사를, 부산경남 회원들은 고성 보리수동산 청소 및 원아교육 등을 10년 넘게 해오고 있다. 또한 불자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한 교리도 카페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올리는 자료를 참고해 공부한다. 이 모든 과정은 지역별 의견을 취합, 대중공사를 통해 정한다.

2001년, 불자 20명 모여 조직
전국사찰 돌며 77차 순례 회향
자녀들과 종교 세대전승 일익
"불교 저변확대에 도움 되길"

불여사 15년의 산증인인 하헌칠 법우(60 · 행운)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각 지역임원을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1~2년 단위로 총운영자를 선출해 모임을 이끌어나간다"고 설명했다.

불여사는 "조계종 신행단체로 등록해 보라"는 前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의 농반진반 권유, 모임에서 눈이 맞아 결혼한 50여 쌍의 부부 등 긴 역사만큼이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다.

이수원 법우(51 · 우담)는 "불교는 결국 부처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 종단에 소속돼선 안 된다고 회원들이 판단했다. 모임하며 사찰 일을 돕고, 예절도 가르치는 모습을 좋게 봐주시는 스님들이 많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불여사의 목표는 무엇일까. 고영주 법우는 '청년불자 유입을 통한 불교저변 확대'를 강조했다.

고 법우는 "경기가 좋을 땐 다양한 연령층이 회원으로 가입하는데 요즘은 청년실업 악화로 20~30대 청년법우들이 많이 부족한 편"이라며 "각박한 사회에서 청년들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직들이 불화로 인해 와해되고, 빛을 잃어 유명무실해지는 게 다반사인 세상. 불여사는 조직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한 시도 놓지 않았다. 불여사가 수많은 불교신행단체들의 모범으로 오래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성북장애인福 수영부, 금메달로 자신감 '껑충'

10월 31일 송파구 곰누리체육센터 발달장애인 수영대회서

성북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수영 선수들의 금빛 활약이 빛났다.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선재)은 관내 수영교실 소속 선수들이 제3회 서울곰두리체육센터 관장배 발달장애인 수영대회서 △금메달 5개(일반부 배영 50m, 초등저학년 · 고학년 킥보드 25m, 초등저학년 배영 · 자유형 25m) △은메달 1개(초등저학년 자유형 25m) △동메달 3개(일반부 자유형 50m, 초등고학년 킥보드 25m, 초등저학년 자유형 25m)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현장서 지켜보던 가족들은 "자녀가 수영대회에 참가, 메달을 획득하니 감격스럽다. 앞으로 재능을 계속 키워주고 싶다"고 말했다.

성북장애인복지관 측은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이 자존감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호흡, 영법 등 수영기술을 집중 교육하며 수영교실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성북장애인복지관 수영교실 선수들이 31일 제3회 서울곰두리체육센터 관장배 발달장애인 수영대회서 금메달 5개 등 총 9개 메달을 획득했다.

현재 복지관은 수영교실서 수중 적응 훈련, 사회성 향상 훈련, 지구력 강화 훈련 등 실시해 발달장애아동들의 정서 안정 및 체육활동을 도모하고 있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레크리에이션으로 즐거운 포교를"

불레협, 11월 26일 국제선센터서 지도자 강습회

청소년들에게 불교를 더욱 쉽고 재미있게 전하기 위해 올해는 레크리에이션을 배워보는 게 어떨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혜만)는 11월 26일 오전 10시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 교육문화관서 '제58회 겨울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한다. 계층법회,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이번 강습회는 송년 · 신년법회를 알차게 진행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기법을 교육한다.

세부 프로그램은 △레크리에이션 Skill UP(송년 및 신년법회에 활용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신나는 만들기 세상(전통등 · 천연제품 만들기, 종이접기, 요술풍선) △찬불가 율동의 활용과 실제 등이다.

템플스테이, 계층법회 지도법사 및 실무담당자, 포교사 등 포교활동에 관심 있는 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희망자는 11월 21일까지 불레협 홈페이지(cafe.daum.net/burec)서 안내문을 받아 인터넷(burec@daum.net) 또는 팩스(02-738-7863) 접수 후 참가비 3만원을 내야 한다. 접수기간 이후 또는 강습회 당일 접수비는 5만원. (02)738-7860

윤호섭 기자

"당당한 한부모 가정, 끝까지 응원합니다"

(사)깨달음과 나눔, 10월 29일 2차 '한부모 가족 장학금' 전달

한부모 가정서 꿈을 키워나가는 청소년 및 미혼모들을 응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단법인 깨달음과 나눔(이사장 이매옥)은 10월 29일 구로구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강당서 2016 하반기 정오 장학회 한부모 가족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 추천을 받은 중 · 고등학생 30명과 검정고시 합격 미혼모 3명은 장학금 20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매옥 이사장은 "금액이 크진 않지만 학생들이 '오늘 주인공이 됐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한부모 가정이 곤궁하단 생각서 벗어나, 사회 주인공이란 생각으로 살아주길 바란다. 열심히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에겐 깨달음과나눔 식구로서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대학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예지(용곡중 3년) 양은 "호텔리어가 되기 위해 외국어 공부를 하는 등 평소 노력하고 있다. 장학금도 외국어 공부를 위해 쓸 예정"이라며 "상을 받으며 무엇보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향상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검정고시 합격생 김유진(34) 씨는 "한부모지원센터서 거주하며 교육비와 생활비 걱정을 덜어 공부가 수월했다. 주로 아기가 자는 새벽 시간을 이용해 3개월동안 공부해 검정고시에 합격했다"며 "학업을 이어가 안정된 직장을 얻는 게 최종목표"라고 전했다.



깨달음과 나눔은 10월 29일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강당서 '2016 하반기 정오 장학회 한부모 가족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한편 깨달음과나눔 측은 "한부모 가정은 우리 사회서 10%가 넘는 인구로, 자녀 양육 의지가 강한 이들에게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정오 장학회는 학생 성적이 아닌 자립 의지와 열정을 기준으로 앞으로도 지원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깨달음과 나눔은 정오 장학생 지원 외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도담하우스' 운영, 어르신 무료 급식 등 진행하며 나눔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승희 기자

(사)대불, 2017 대불장학생 선발 공고

서류제출 11월 13일까지

사단법인 대불(이사장 백효흠, 대불련총동문회장) 장학사업단은 '젊은불자육성사업' 일환으로 2017년 대불장학생 선발을 공고했다. 선발분야는 일반장학금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대불련) 중앙집행위원, 대불련 중앙회장, 대불련 회원 각 100만원이다. 단체지원금은 대불련 지부 또는 지회에 각 100만원이 전달된다. 아울러 시곡(柿谷)장학금은 대학생 불자 2명에게 각 600만원이 전달된다.

신청자격은 현 대불련 회원으로서 신행활동이 우수한 학생으로 재학증명서, 2016년 1학기 성적증명서(중앙집행위원 제외), 대불장학금 신청서, 대불련 중앙회장 추천서(중앙집행위원)를 제출해야 한다. 단체는 지부 또는 지회 2016년 사업계획서, 대불장학금 신청서, 대불련총동문회 지부장 추천서가 필요하다.

각종 신청서와 추천서 등 서류는 대불(www.daebul.or.kr) 또는 대불련(www.kbuf.org) 홈페이지서 받을 수 있다. 서류제출은 11월 13일까지 대불련총동문회 소속 지부장에게 해야 하며, 접수 마감은 11월 30일. 선발심사는 12월 10일, 선정자 발표는 14일 예정이다. (02)720-1963 윤호섭 기자

Skill UP!

제58회 겨울 지도자 강습회

계층법회,
템플스테이의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강습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는 "Skill UP!"이라는 주제로 제58회 겨울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기초를 탄탄히 하고 기둥을 굳건하게하여 지도자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려 포교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 체험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형 강습회로 준비하였습니다.

겨울 지도자 강습회에 동참하시면 다양한 교재교구 전시와 지도자 상담을 통하여 법회 및 템플스테이 준비의 어려움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모바일 신청 바로가기 ▶

❶ 일 시 : 2016년 11월 26일(토) 오전 10시 ~ 오후 6시
❷ 장 소 : 국제선센터 교육문화관 마하실 (양천구 목동)
❸ 대 상 : 템플스테이, 계층 법회 지도법사, 지도자와 실무담당자, 포교사 등 포교활동에 관심 있는 모든 분
❹ 프로그램
- 레크리에이션 Skill UP – 송년법회 및 신년법회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 최태규 <아람 레크리에이션기획 대표>
- 신나는 만들기 세상 – 전통등 만들기, 천연제품 만들기, 종이접기, 요술풍선 / 이수진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교육연수팀>
- 찬불가 율동의 활용과 실제 – 법회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찬불가와 율동 / 이다연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문화포교팀>

❺ 참가비 : 3만원 (사전 접수 시 / 사전접수 이후 및 당일접수 5만원)

구분	사전접수 3만원 11월 21일(월)까지	당일접수 5만원 (사전 접수 이후~강습회 당일)
※ 참가비 입금 확인 후 접수 완료. 참가비 입금 미확인 시 당일접수 참가비 적용. ※ 환불은 사전 접수 기간 내에 취소하신 분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교재와 기념품으로 대체하여 발송. ※ 단체별 10인 이상 접수 시 10% 할인 / 제주도, 군종병 3만원 ※ 본회 정기 후원회원은 무료.		
입금계좌번호 : 국민 610301-04-132532 / 농협 053-01-267940 (예금주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❻ 접 수 : 선착순 60명
인터넷(이메일), 팩스 접수 후 참가비 입금
E-mail (burec@daum.net), Fax (02-738-7863)

■ 다음까페에서 안내문을 다운 받아 작성 후 이메일 및 팩스 접수 http://cafe.daum.net/burec
■ 전화 접수 가능
■ 스마트하게 QR코드 접속 후 신청서 작성하여 접수

❼ 준 비 물 : 개인 물컵, 필기도구
❽ 문 의 처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사무국 (02-738-7860 / 02-739-4967)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5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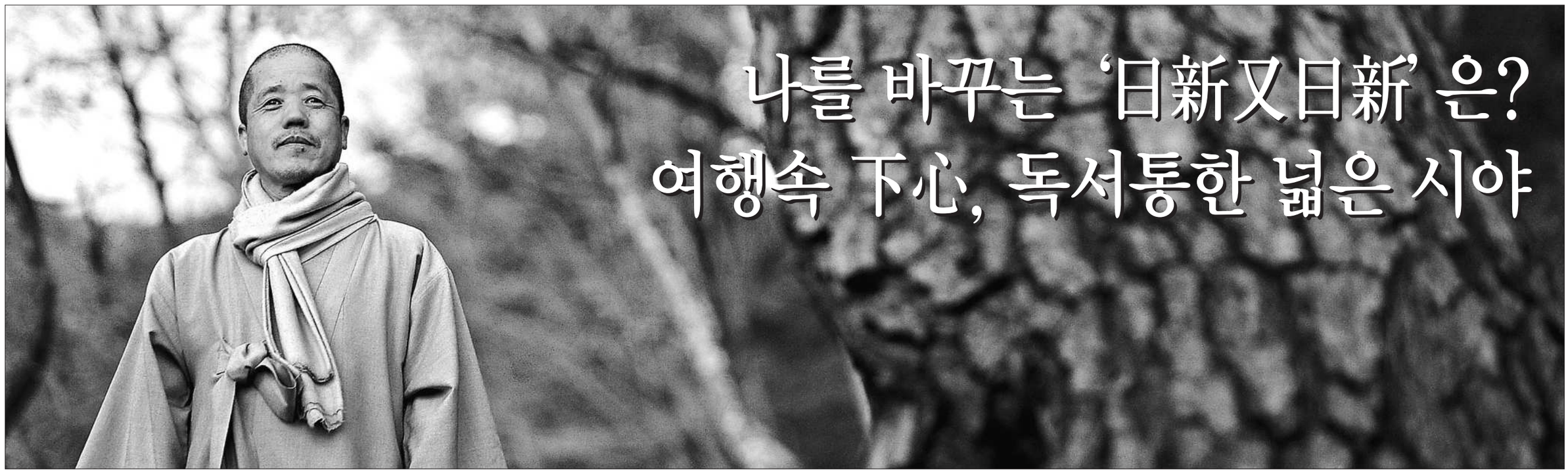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12월 4일까지
◆ 개 강 일 : 2016년 12월 5일 월요일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나를 바꾸는 '日新又日新'은? 여행속 下心, 독서통한 넓은 시야

참불선원 인문학강좌… 인생과 종교, 이 시대의 철학에세이

前 해인사 승가대학원장 원철 스님

모난 돌멩이는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둥글게 변한다. 사람도 나이가 듦에 따라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듯 결코 쉽지 않다. 나를 변화시켜 사회를 맑히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前 해인사 승가대학원장 원철 스님은 10월 31일 서울 참불선원 인문학강좌서 여행과 다독을 통한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을 강조했다. 단순히 떠남과 책을 많이 읽는 게 아니다. 여행서 겪는 하심의 과정과 다독에서 얻는 넓은 시야를 의미한다. **정리=이승희 기자**

'보편타당' 한 불교적 인문학

인문학은 사람답게 살자는 외침입니다. 인간의 기능만 강조되고, 인간성은 사라진 산업사회에서 부속물로 100년 넘게 살아온 사람들이 존재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됩니다. 산업화 사회에선 휴가도 칼퇴(정시 퇴근)도 부담스러운 삶을 살다보니 사람답게 살기 위해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사람들은 기술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선 '창의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 산업사회의 양적 성장에서 한계를 느끼고 기능을 향상시키려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이제까지 없던 기능을 만들어야 하니 창조력이 필요한 겁니다. 창조란 모든 전제 없이 제로(0) 베이스서 출발하거나 기존의 것을 융합해서 얻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명상을 하며 머릿속을 말끔히 백지 상태로 만들고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선, 명상 등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바탕을 마련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명상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불교는 믿을만한 가르침인지 따져볼까요? 불교가 펼치는 논리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룬 문화권 안에서도 맞는 말인지 생각해보면 됩니다. 학자들은 여태까지 3000개 이상의 신생 종교들이 생겼다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과거 · 현재 · 미래의 삼세와 인도 · 중국 · 한국 · 일본 · 동남아시아 · 서구권까지 시방세계의 광대한 지역에서 보편성과 정당성을 획득한 종교입니다.

2500년간 불교적 인문학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도 대중성에 있습니다. 많은 이웃종교인들이 절을 찾거나, 불교적 가르침을 배우고 돌아갑니다. 사회적으로도 불교식 용어가 많이 퍼졌습니다. 사대천왕이란 단어만 해도, '요리계 사대천왕', '게임계 사대천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회 전영역서 인문학적 소양을 기초로 판단을 내리는 분야에서 불교적 가치는 활약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 예로 의료산업에서 심심찮게 나타나는 기술과 의료윤리 사이의 판단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과거 치료적 의료에서 요즘엔 예뻐지는 기술과 장기 기증, 존엄사 등 문제가 커지면서 병원윤리위원회가 인문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하곤 합니다.

바야흐로 불교 가르침을 인문학적으로 환원하고 보급하는 것이 화두인 세상입니다. 모든 생물에 불성이 있단 가르침은 불교적 인문학의 큰 전제입니다. 불교 경전, 선사어록, 명상참선법 등 인문학적 가르침을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불교 우호적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행, 下心으로 겸손해지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불교 경전을 몇 권 읽었다고 해서 스스로 바뀌던가요? 몇 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생긴 습관과 업이 있는데 쉽게 바뀌지 않죠. 지난 100년 동안 '높이 · 빨리 · 싸게' 방식이 몸에 익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쌓은 업에서 인문학이 금방 효과를 볼 거란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그냥 두면 나와 우리 사회의 손해가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남에게 전가하면 무엇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정치인 · 언론인 · 기업인 · 종교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내가 나를 바꿔야 합니다. 각성된 개인의 집합이 사회와 국가를 이룹니다.

저는 국가란 경영하기 쉬운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잘하는 사람에겐 상을, 잘못하는 사람은 죗값을 치르게 하면 되니까요. 회사 경영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은 사람에겐 포상을, 그렇지 않으면 내보낼 수 있겠죠. 반면 가정 경영은 정말 어렵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을 만족시켜야 하고, 잘못했다고 징벌을 내리거나 가족에서 제외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니 말입니다. 결국 한 가정의 가장이 가장 인문학적인 경영을 해야 합니다. 또 가정을 경영하는 방식처럼 회사도, 나라도 운영한다면 기업인들이나 정치인들은 존경을 받겠죠. 인문학적 삶으로 내 인생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 **"부처님은 한 나무 그늘서 3일 이상 머물지 말라 하셨다. 오래 머물면 애착과 집착이 생기고 타성에 젖어 발전에 저해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바꾸기 위한 방법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불교 경전과 인문학 책들을 섭렵하다보니 접점이 보이고 방향이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거창한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사소한 깨달음도 중요하단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들이어야 남에게도 쉽게 들려줄 수 있을 테니까요.

나를 바꾸기 위해선 첫 번째로 여행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요즘 여행사를 통해 가는 여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전적 여행법은 내가 있는 곳에서 단순히 떠나는 것을 일컫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유기〉 속 현장법사를 떠올리면 됩니다. 현장법사는 당나라의 가장 큰 지식인으로서 국가적 중요 인물입니다. 좋은 사찰 환경에서 지내던 현장법사는 한어 번역이 정확한지 확인하고픈 마음에 인도로 목숨을 건 여행을 떠났습니다. 나를 진화시키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여행인 겁니다.

여행을 떠나면 하심(下心)을 통해 무아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돈을 쓰는 관광객은 갑(甲)입니다. 그러나 여행객이라면 을(乙)의 위치로 항상 먹을거리, 잠 잘 장소 등을 고민해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직접 해결하면서 하심하고, 나를 버리는 무아를 경험하는 겁니다.

또한 세상인심이 각양각색이란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한 것들이 다른 이들에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법당에 들어설 때 양말을 신어야 예의지만, 동남아시아 사찰에 가보니 꼭 양말을 벗어야 하더군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 환경이 바뀌면 옳다는 것들도 달라진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옮겨 다니는 것은 자생력을 높입니다. 부처님은 한 나무 그늘에 3일 이상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머물면 나무 그늘에 다른 누군가가 왔을 때 침해 받았단 생각에 기분이 나빠집니다. 나무 그늘에 애착과 집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 자리에선 누구라도 타성에 젖어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물론 바쁜 현대 사회에서 항상 옮겨 다니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신 집 안 가구 배치를 새롭게 하거나, 1000일 기도를 100일씩 10번 하는 등 행동패턴을 바꿔보면 도움이 됩니다. 조금씩 바꿔 가다보면 큰 변화에 이를 겁니다.

넓은 시야로 나를 업그레이드

두 번째 변화의 방법은 다독(多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이나 신문 페이지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보다보면 내 관심사와 접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흥미를 붙여 조금씩 영역을 넓혀 가다보면 사물을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사찰을 지키는 사천왕도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수미산 북방을 수호하며 부처님 법문을 항상 듣는 다문천왕(多聞天王)을 보고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많이 듣는 게 중요하다"는 해석을 내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변에 관심을 기울여 많이 듣는 게 힘이 된다는 교훈을 느껴야 합니다.

부리부리한 눈으로 서방을 지키는 광목천왕(廣目天王)을 보고 "다양한 양상을 동시에 보면서 꼭 나만 맞는 게 아닐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견들을 골고루 살피고 서로 양보하는 태도를 갖추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에 완벽히 합의를 이끌어 낼 순 없어도 합의점을 위해 상대를 이해하는 태도는 독서를 통해 기른 넓은 시각에서 가능합니다. IS 같은 근본주의자들이 위험한 이유는 자기 것만 옳은 줄 아는 우물 안 개구리식 태도 때문입니다. 많이 보면 비교하는 능력이 생기고, 비교하면서 정견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책을 무조건 많이 읽으면 좋다고 비슷한 책만 보면 오히려 아집이 늘어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변화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화지체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배우지 않으려드니 젊은이들과 소통이 안 돼 점점 멀어집니다. 많이 보고 많이 들어야 하는 세상에서 내 자신에 한계를 씌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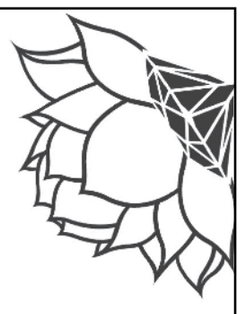
그러나 세상의 환경이 바뀌면 이에 맞춘 새 논리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창조는 불가능할 겁니다. 중국 은나라 탕왕은 세숫대야에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라고 적고 매일 새로워지고자 자기세뇌를 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탕왕의 열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늘 듣던 이야기도 새롭게 들어야 합니다. 나의 변화는 곧 내 가정의 변화이고, 이어서 사회 · 나라 · 세상을 변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세상이 변하는 데 동참을 부탁합니다.

원철 스님은… 법전 스님을 은사로 1987년 수계했다. 해인사 승가대학 교수, 월간 해인 편집장,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총무원 기획국장 • 재정국장, 교육원 불학연구소장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을 맡고 있다.

청견스님의 천만배 완결

깨달은 절수행이란?



다르마킹칼리지(절수행교육)

◎ 완벽한 : 표정, 자세, 동작, 호흡법, 동작알아차림, 감사염송법 텅빈 고요 삼매체험
◎ 순간 찰라 번뇌 망상, 잡생각 싹 끊는 비전
◎ 순간 찰라 마음이 크고 넓고 높게 큰마음 되는 비전
◎ 저절로 자동단전복식호흡의 비전
◎ 우주 태양+지구 땅의 기운 초고속 충전 비전
◎ 순수의식 참마음 참나 불성 초견성 비전

※ 상기 교육 마스터한 수행자에겐
◎ 스트레스와 부정적 맘으로 자율신경 무너져 심장 쿵쿵 뛰고 숨은 거칠고 공격홀몬 쏟아져 온몸 지배하는 병불행지옥 순간을 극복하는 지혜의 비전(10초~20초)
◎ 신명나는 인류최고의 가장 쉽고 온전한 빠른 요지부동 와선명상삼매를 체험케 함

절교육일정 : 매주 화,수,목,금,토 오후 2시 ~ 3시30분 (1일 3명 예약)
(깨달은 절수행이란? 책 읽고 홈페이지 참고하고 동참 요망)
절교육대상 : 상위 1% 수험생, 고시생, 명문대생, 한의사, 연구원, 벤처 CEO, IT연구원 예술인, 특별 우선 교육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선바위길 6 (신지2리 1101-1)
문 의 : 010-3487-0035 www.법왕정사.net

깨달은공동체 법왕정사 한불수행문화연구소

봉 축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창종 5주년 기념법회



종정
석법운 대종사

귀의 삼보하옵고,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종지종풍으로 구태불교를 개혁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해 나가는 사)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창립 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합니다.

일 시 : 불기 2560년 11월 11일 (음.10월 12일) 오전 11시
장 소 : 경북 칠곡 (총무원) 동명사 (054-974-2605)
총본산(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북성9길 28 (북성리 1095)

사)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정 명진 석법운 합장

학술 소식

천태종의 한국적 정체성은

천태불교문화硏, 12일 학술대회

천태종의 한국적 정체성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천태불교문화연구원(원장 이봉춘)은 11월 12일 오전 10시 서울 관문사 2층 대강당에서 '천태종의 한국적 특성과 그 정체성'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봉춘 천태불교문화연구원장이 '천태종의 정체성 확립과 그 방향'을, 금강대 교수 광도 스님이 '천태종의 수행체계와 생활불교'를, 고우익 前 금강승가대 교수가 '천태종 출가자의 일상행의와 제도'를, 김용표 동국대 명예교수가 '보편적 지구윤리로서의 십선계'를, 이혜숙 금강대 객원교수가 '천태종의 종도복지에 관한 고찰'을, 석길암 동국대 교수가 '천태종의 불교전통 계승과 발전방향'을 각각 발표한다.

이와 함께 토론자로는 권기종 동국대 명예교수, 천태종 교육부장 장호 스님, 정병조 前 금강대 총장, 이용권 천태종복지재단 이사, 권기현 위덕대 교수가 참여한다. (02)3460-5228

신성민 기자

종림 스님에게 듣는 '중론' 강의

중관학당, 11일 '중론' 강독 종강 기념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에게 '중론'의 중요성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산하 책박물관 고반재 배움터 '중관학당'은 11월 11일 저녁 7시 서울 종로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종림 스님을 초청해 '〈중론〉의 중요성과 이제론'을 주제로 강의를 개최한다.

이번 강의는 중관학당이 10월 7일부터 매주 개최하고 있는 〈중론〉 원전 강독의 종강을 기념해 열린다. 강의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선착순 40명만 모집한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측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학승 종림 스님이 해석하는 〈중론〉의 이제론 등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밝혔다. (010)8801-4037

신성민 기자

禪불교에 대해 알고 싶다면

한국선학회 11월 무료 시민 강좌 실시

선(禪) 사상에 대한 전반을 알 수 있는 시민 강좌가 열린다.

한국선학회(회장 신규탁)은 11월 매주 토요일 오후 2~4시 연세대 문과대학 위당관 415호 강의실에서 선불교 무료 시민 강좌를 실시한다.

선불교 대중화를 위해 열리는 이번 시민 강좌는 선 관련 전문 서적을 번역한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눈길을 끈다.

강의는 11월 5일 동국대 불교학부 정운 스님의 '명상, 너무 멀리서 찾지 말자'를 시작으로 △12일 '조당집 읽기'(정영식 고려대장경연구소 교수) △19일 경허선사의 선과 시(이상하 국립고전국역원 교수) △26일 '대혜선사의 선과 사대부와의 편지'(전재강 안동대 교수) 등으로 이뤄진다.

또한 12월 3일 '〈종경록〉의 세계 · 무심, 돈오 · 무념' 주제로 열리는 한국선학회 국제학술회의에도 참석이 가능하다.

강의 참여는 선착순 45명이며, 희망자는 신규탁 한국선학회장(연세대 철학과 교수)에게 직접 연락하면 된다.

한국선학회는 "많은 사찰과 불교단체의 후원으로 학회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부처님께 올린 귀한 보시를 다시 세상에 회향하고자, 시민들을 위한 무료 강좌를 개설했다"면서 "연구자들과 시민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독서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010)7696-2906

신성민 기자

"적극적 사회 참여가 21세기 보살의 길"

정호영 교수, 5일 故 이기영 박사 보살관 조명

한불연, 20주기 세미나 개최
이기영 보살관 핵심은 '不二'
원효 '귀일심원 · 요익중생' 강조
"우리도 시대의 보살이 돼야"

생전에 원효 스님 연구에 남다른 족적을 남긴 불연 이기영(1922~1996, 사진) 박사의 보살관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이태승)은 11월 5일 이기영 박사 타계 20주기를 맞아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보살-대승불교 수행자의 이상'을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정호영 충북대 철학과 교수는 '보살, 그는 누구인가' 발표 논문을 통해 이기영 박사의 보살관을 학술적으로 조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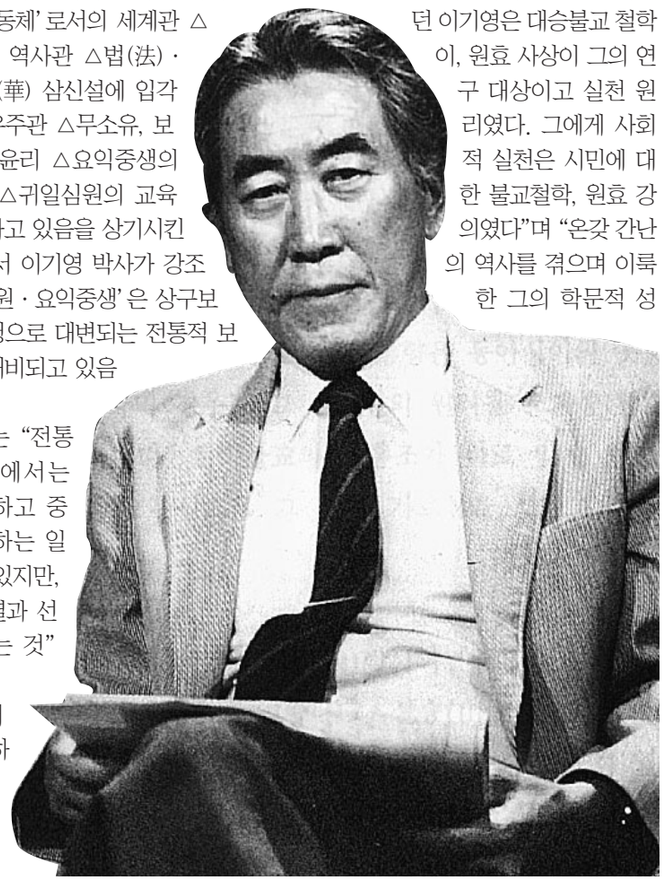
정 교수는 이기영 박사가 마지막 기조강연을 했던 1996년 11월 9일 '불교와 국가' 국제학술대회를 시작으로 그의 사상을 되짚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국가는 예토로 불교가 추구하는 이상향을 정토로 구분하고, 세속적인 예토를 정토로 환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기영 박사는 이 같은 통념을 부수고 있다고 말한다. 정토와 예토는 본래 일심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예토가 곧 정국(淨國)인데 중생들이 어리석어 이를 모르고 있으므로 둘은 둘이면서 둘이 아니고, 하나이면서도 둘이라는 점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이기영 박사는 강조했다"며 "결국 선생은 '진속불이'의 불교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살이 될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한 보살상에 대해서 이기영 박사는 "현세와 영원의 불이(不二) 상즉성을 깨달은 철학적 자각 위해 현세의 예토적 양상을 전변시켜 영원한 정토가 현장에 실현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은 새로운 인간의 모델"이라고 밝히고 있다.

'불이'의 보살관의 단면은 이기영 박사의 원효 연구에 드러난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이기영 박사의 1988년 논문에서 원효사상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 △'화쟁의 공동체'로서의 세계관 △연기로서의 역사관 △법(法) · 보(報) · 화(華) 삼신설에 입각한 신관 · 우주관 △무소유, 보시의 경제 윤리 △요익중생의 정치 철학 △귀일심원의 교육 등을 제시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그러면서 이기영 박사가 강조한 '귀일심원 · 요익중생'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으로 대변되는 전통적 보살도와는 대비되고 있음을 밝혔다.



정 교수는 "전통적 보살도에서는 보리를 구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 분리돼 있지만, 원효는 우열과 선후가 없다는 것"이라며 "원효에게 있어 보리를 구하는 일이 곧 일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것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자이고 교육자였던 이기영은 대승불교 철학이, 원효 사상이 그의 연구 대상이고 실천 원리였다. 그에게 사회적 실천은 시민에 대한 불교철학, 원효 강의였다"며 "온갖 간난의 역사를 겪으며 이룩한 그의 학문적 성취와 사회적 실천은 21세기 보살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교수는 이기영 박사가 보여준 보살도의 핵심은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기영 박사는 '현대인의 보살도'에 대해 "불교는 결코 가난한 사람이 생활을 위협 받으면서도 참기만 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며, 부자가 혼자서 재부를 무분별하게 남용해도 좋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다"며 "불교는 모든 사태에 대해 개의할 필요가 없는 것,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면서 개인의 실천 방법으로 '육근 바라밀다'를 제안했다. 눈, 귀, 코, 입, 몸, 마음으로 육바라밀을 실천하자는 것이다.

정 교수는 "개인의 실천이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완성, 불교토의 실현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선생이 남긴 말은 우리의 과제가 된다. 우리는 선생이 그러했듯 우리 시대의 보살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심포지엄에서는 안성두 서울대 교수가 '유가행파의 보살 : 무착의 전기에 보이는 공성의 통찰과 대비심'을, 크리스티나 셰러 숍 로잔느대학 교수가 '샨티데바의 승천 : 인습을 초월한 철학자 보살'을, 권탄준 금강대 명예교수가 '삼계교 신행 스님의 보살행과 사회적 실천'을, 남동신 서울대 교수가 '원효, 성속불이의 거사불교' 등을 발표했다. 또한 심포지엄 직후에는 이기영 박사 20주기를 기념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신성민 기자

부여 왕흥사지서 국내 最古 치미 출토

국립부여문화재硏 복원 거쳐 3일 공개

동승방에 올린 예술적 치미
당시 승려 높은 지위 가늠



부여 왕흥사지 동승방터에서 나온 남측 치미의 복원된 모습.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리장엄구(보물 제1767호)가 나와 주목을 받았던 부여 왕흥사지에서 이번에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치미가 출토됐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배병선)는 2013~2014년 부여군 왕흥사지에 대한 발굴조사 때 출토됐던 백제 치미를 복원해 11월 3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다.

치미는 동아시아 전통건축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지붕의 장식기와로, 건물의 용마루 양 끝에 올려 건물의 위엄을 높이고, 귀신을 쫓는 역할을 하는 부재이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 따르면 장식된 막새문양과 발굴된 다른 유물을 비교해 볼 때 이번에 공개되는 치미는 왕흥사지 창건 당시(577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부소산 폐사지 치미, 미륵사지 치미 등 현재까지 알려진 고대 치미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이다. 특히, 백제 사비기의 기와 제작기술과 건축기술, 건축양식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출토된 치미는 전체를 한 몸으로 제작한 후, 상 · 하로 나누어 가마에서 구워낸 것으로 추정된다. 동쪽 승방터로 판단되는 건물지의 남북 양끝에서 각 1점씩 출토되었는데, 고대 건물지에서 용마루 좌우의 치미 1벌(2점)이 함께 출토된 사례는 처음이다. 건물 지붕에서 떨어지면서 파손된 채 오랜 기간 땅에 묻혀있어 파편들도 많이 사라진 상태였다.

이에 남쪽 치미는 상부만, 북쪽 치미는 하부만 복원했으며, 3차원 입체영상(3D) 기술을 활용해 상하부 전체를 복원한 이미지도 만들었다. 이렇게 복원된 3D 영상 속 치미의 높이는 123㎝, 최대 너비 74㎝다.

왕흥사지 치미는 마름모꼴의 꽃장식인 연화문(蓮花紋), 구름문, 초화문(草花紋) 등의 문양으로 화려하게 장식됐고, 전체적으로는 꼬리 부분을 하늘로 향해 날카롭게 표현하여 마치 새가 꼬리를 세워 비상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찰의 금당 혹은 강당 등 중요 건물에만 치미가 사용된 것과는 달리, 스님들이 사용하는 승방 건물에까지 치미가 쓰였다는 점은 당시 스님들의 높은 지위를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출토된 치미는 오는 11월 29일부터 열리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세계유산 백제'에도 출품돼 전시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당신도 명리학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주를 풀어주기 위해 명리학을 공부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본 책자는 초보도 만세력에서 일주만 찾으면 성격 및 당해년 운세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포교를 하다보면 제가자들이 많은 것을 물어오는데 부록편에서는 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우혜안 –



발행인 : 초암사 주지 혜 안 스님
주문처 : 초암사 043-215-1569
010-9405-818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내수읍 초정길 156-9)
입금계좌 : 농협 317-02-322143 (우복진)

慧眼決書

거조사 나한대재 "정혜결사 정신 잇길"

팔공산 영천 거조사(주지 태관)는 10월 29일 오백나한상을 모신 영산전(국보 제14호) 앞마당서 나한대재를 봉행했다.

주지 태관 스님은 "거조사는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수행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이루는 근본도량으로, 보조지눌 스님의 1000년 정혜결사 정신을 이어 자비와 평화의 불국정토를 이루는 나한대재를 봉행한다"며 "6가지 공양을 올려 정법 실현을 위한 서원을 세우고, 고통서 벗어나 희망의 삶을 이루는 공덕을 쌓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거조사 나한대재는 고려시대 국난 극복 등을 기원하며 봉행됐으나 조선시대 이후 맥이 끊어졌다. 거조사는 지난 2005년부터 이를 복원해 매년 봉행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나한대재에 참석한 불자들.

"내적 성장과 전법, 두 마리 토끼 잡을 터"

미타선원 신임 주지 종호 스님

부산 미타선원이 11월 3일 극락보전에서 신임 주지 종호 스님〈사진 왼쪽〉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종호 스님은 "앞으로 신도 조직을 더욱 체계화해 지역 봉사에 앞장, 종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하림 스님은 "주지를 맡은 지 11년이 흘렀다. 대나무가 자랄 때도 마디가 있어야 하듯 재충전이 필요한 시기"라며 "교육원을 통해 그동안 생각해둔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이임사를 전했다.

종호 스님은 1987년 현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인천 능인사 주지, 영산정사 주지, 인천불교총연합회 이사 및 인천사암연합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우리민족서로돕기 공동대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대표 등 맡고 있다.

한편 이날 행복공감평생교육원 개원식도 진행됐다. **하성미 기자**



'대방광' 진리 '불화엄' 으로 장엄

범어사, 11월 1일 '53선지식 천일화엄대법회' 입재

'대방광불화엄경' 을 외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비로자나 대광명의 법신을 만난 듯 범어사를 찾은 불자들은 연꽃 모양으로 손을 모아 합장했다. 불자 한 명 한명이 깨달음의 꽃이 되어 부처님을 장엄하는 세상, 〈화엄경〉을 만나는 시간이 범어사서 개최됐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는 11월 1일 경내 보제루서 '53선지식 천일화엄대법회' 를 개최하고,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입재법회로 불국사 승가대학장 덕민 스님의 특강을 진행했다.

덕민 스님은 먼저 은사인 동산 스님과 일화를 소개하며 화엄경의 진수를 선시에 담아 풀어냈다.

덕민 스님은 "동산 스님께서 화엄경의 진수를 선시로 풀어내 대웅전 주련에 '마하대법왕(摩訶大法王) 수처현청왕(隨處現靑黃)' 을 적어두셨다. 동산 스님의 선풍은 지금도 그대로 전해 내려온다"며 참여한 불자들에게 동산 스님이 설한 그 내용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동산 스님은 금정산의 청풍명월이다. 청풍명월은 주인이 없다. 그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바랑에 지고 다니면 내가 곧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침을 전했다.

스님은 또 신라 신문왕 당시 〈삼국사기〉 내용 중 '만파식적(萬波息笛)' 의 설화에 나오는 '피리' 와 〈화엄경〉의 관계를 설명했다. 신문왕이 국난을 접할 때마다 불어 문제를 해결한 피리는, 곧 화엄경을 근본으로 삼고 나라를 다스린 신문왕의 지혜를 상징한단 것이다.

특히 스님은 "화엄경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고 항상 몸에 지니듯 기억하고 실천할 때 가정에선 부모 노릇, 나라의 왕은 왕 노릇, 대통령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최근 최순실 사태 관련 정치 상황에 일침을 가했다.

이날 법회에는 부산 외 경남 일대 타 지역서도 불자들이 찾아와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단 기대감을 표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제1회 천일화엄산림대법회를 개최했다. 11월 1~3일 동안 덕민 스님, 무비 스님, 지안 스님 등 대강백의 특강으로 진행된 대법회는 매월 초하루 선지식 초청 화엄경 법석을 이어간다.

덕민 스님 화엄경 강의로 문 열어
천일 동안 매달 초하루 선지식 초청
"화엄십찰로 창건 의미 새길 것"

정의자(76 · 부산 구서) 씨는 "나이가 많아 이 생에 마지막 화엄법회 자리라 생각된다. 더 열심히 다녀보고 싶다. 마음자리를 찾아 평생을 범어사를 다녔는데 이 법석을 통해 나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화엄의 도리를 알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53선지식 천일화엄대법회' 는 범어사서 처음으로 문을 연 화엄경 특별법석이다. 11월 1~3일 동안 덕민 스님, 무비 스님, 지안 스님 등 대강백 스님들의 법석으로 열려, 화엄경 전체 개요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범어사는 매월 초하루 마다 선지식을 초청해 화엄법석을 마련한다.

다가오는 화엄 법석은 11월 29일(음력 11월 1일)에 무비 스님의 법문으로 이어지며 회향일에 앞서 13일 동안 연이어 법석이 열릴 예정이다. 회향 법문은 방장 지유 스님이 맡는다. **하성미 기자**

"불교 발생지 옛 가야의 중흥 이끌 것"

법등회, 10월 29일 제1회 3000배 참회대법회

쌀쌀한 가을 날씨에도 참가자들 법복은 땀으로 젖었다. 다리가 아파 제대로 앉기조차 버겁지만 절을 멈추지 않는다. 불보살님들의 명호를 부르며 한배 한배 올릴 때 마다 참가자들은 '참회' 를 마음에 새겼다. 자신들의 참회로 옛 가야 지역 김해에 불교 중흥의 씨앗이 심어지길 발원했다.

'가야불교 중흥을 위한 모임 법등회' (회장 인해, 이하 법등회)는 10월 29일 300여명의 법등회 소속 사찰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경운사서 '제1회 3000배 참회 대법회' 를 개최했다. 참회 대법회는 오후1시부터 9시까지 진행됐으며 1000배 후 20분 휴식하는 방법으로 이어졌다. 개회식은 예불과 함께 회장 인해 스님의 인사말로 시작됐으며, 발원문 낭독 및 회향사로 마무리 됐다.

참가자들은 3000배 참회 기도를 통해 개인의 참회 뿐 아니라 가야의 위상을 되살리는데 앞장설 것을 서원했다.

박유미(53 · 김해 외동) 씨는 "개인적으론 과거 천불, 현재 천불, 미래 천불을 만나는 시간으로, 기도 자체가 참회이며 감사이고 발원이란 심정으로 찾았다"며 "스님들께서 가야 불교가 사장된 현실을 안타까워하셨다. 참회대법회를 통해 불교 중흥에 모두가 앞장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운사서 개최된 '제1회 3000배 참회대법회' 서 기도 중인 법등회 회원들

한편 법등회 참회대법회 동참금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회향되며, 가야불교중흥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법등회는 허왕후가 처음으로 불교를 전한 옛 가야 지역인 김해에 불교 중흥을 이끌고 전법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로 시작됐다. 경운사(주지 해도), 불인사(주지 송산), 바라밀선원(주지 인해), 여여정사(주지 도명), 장유사(주지 해공), 정암사(주지 법상) 6개 사찰이 동참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혜원정사, 어르신 위한 나눔 잔치 베풀어

10월 29일 지역 어르신 경로잔치

부산 혜원정사(회주 원허)는 10월 29일 연제구 지역민들을 위한 나눔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1993년 시작한 경로잔치는 매년 1200여명이 찾는 마을잔치로 자리 잡았을 뿐 아니라, 나눔 회향의 자리로 거듭났다. 혜원정사는 이날 장학금과 △장수 어르신의 건강 기원 '장수상' △결혼 후 동고동락의 시간을 축하하는 화목상을 수여했다.

장학금은 고산장학재단 고산장학회서 동국대 3학년 법수 스님을 비롯한 대학생 20명, 조정현(김해 임호고 · 1년) 등 고등학생 총 3명에게 전달했다. 이어 혜원정사에서 준비한 장학금을 32명의 지역 학생에게 전달했다.



혜원정사 회주 원허 스님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장수상은 이점순 씨와 김달용 씨가 받았으며, 화목상은 김일원 · 박성념 부부, 유칠준 · 류병재 부부가 받았다.

한편 행사에는 회주 원허 스님, 연제구불교연합회장 무관 스님, 이성수 혜원정사 신도회장, 권오공 혜원정사 신도회 수석부회장, 김해영 국회의원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유엔 오케스트라 "사찰 음식은 자비의 공양"

홍법사, 10월 28일 전통사찰문화 체험기회 제공

평화음악회를 위해 방한한 유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한국의 사찰문화와 음식에 감탄했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10월 28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사찰음식 오찬을 진행했다. 화려한 색채를 담은 50여 가지의 음식이 전시됐으며, 30여 가지 음식을 맛보는 시간이었다.

주지 심산 스님은 "사찰음식은 스님들의 수행을 돕는 음식으로, 모든 생명에 감사하고 온 세상에 평화를 기원하는 음식이다. 건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닌 수많은 생명에 은혜를 보답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홍법사는 10월 28일 유엔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사찰음식 오찬 기회를 제공했다.

마틴 커펀스 유엔 오케스트라 회장은 "아름다운 홍법사서 아름다운 음식 문화를 접할 수 있어 행복하다. 또한 부산 여러 곳에서 만난 행복한 기억을 영원히 간직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하성미 기자

"도청 이전, 신도시포교 새 기회"

의성 고운사, 10월 22일 지역대중공사 열어

의성 고운사(주지 호성)는 10월 22일 안동청소년문화센터서 '신도청시대 희망을 주는 불교' 를 주제로 100인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이날 대중공사에서는 경북도청 신청사 인근에 위치할 포교당 건립방안과 지역 사회 불교 위상 제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보시 · 지계 · 인욕 · 정진 · 선정 · 지혜의 6개조로 나뉘어 '다종교시대 지역사회에서 불교의 역할' 과 '신도청 포교당 건립방안과 역할' 에 대해 모둠토론을 전개했다.

보시모둠조 류장희 불교청년회장은 "포교당 건립 시 선방과 연령별 불교기초교육대학을 만들어 운영했으면 한다" 고 말했다. 지계모둠조는 1인 108보시금 모연을 진행해 불사금을 모으자는 의견을, 인욕모둠조는 공휴일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문화시설로 포교당을 가꿨으면 한단 의견을 개진했다. 정진모둠조는 음력 초하루 법회 등 법회일을 고정하지 말고, 신도와 사찰이 논의해 법회일을 변경하자는 의견 등 제안했다.



10월 22일 열린 의성 고운사 100인 대중공사 단체사진.

노덕현 기자 · 박영애 영주지국지사장

문화재기능인 등록 제 5772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NAVER 검색 | 보리수불교예술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 을 검색하시면
보리수 공방으로 연결되고, 보리수 공방의 작업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인등, 연, 단청, 개금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

미소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문의 050-2879-8709

9층 석가대탑
조성기간 : 13년 6개월
높 이 : 17미터

청양 광덕사, 10회째 孝 잔치 열어

10년간 매주 국수공양도



청양 광덕사(주지 청봉)는 10월 25일 청양 구기자약초시장에서 지역 어르신 1000여 명을 초청해 '참봉사 동심원 효 큰잔치'를 개최했다.〈사진〉 올해로 10회째 개최하고 있는 이번 경로잔치는 어르신들을 위한 흥겨운 공연과 더불어 무료 대중공양이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청봉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청양에 모친이 계셔서 내 부모를 모시듯 시장을 찾는 어머니, 아버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며 "부족하지만 정성껏 마련한 공양을 맛있게 드시고 즐기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로잔치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청봉 스님의 효심에 감동했다. 오랜 세월 동안 재미난 잔치를 열어줘 고맙다"며 "그래서 일부러 스님이 국수공양을 할 때 장 보러 나온다"고 말했다.

청봉 스님은 지난 10년 동안 매주 목요일 청양시장서 국수를 무료로 대접하고 있다. 특히 대웅전이 화재로 소실돼 천막으로 임시 법당을 운영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국수공양은 한 번도 빠짐없이 진행해 지역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증심사, 템플스테이 문화관 개관

시민선방 · 명상체험 운영계획



광주지역 최초로 사찰 및 불교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관이 열렸다.

증심사(주지 연광)는 10월 28일 경내 주차장 인근에 템플스테이 문화관 2개동 개관식을 갖고 지역민들을 위한 불교체험에 나섰다.〈사진〉 내년 1월까지 1개동을 추가로 완공할 예정이다.

문화관은 불교문화사업단, 광주시, 자체부담금 등 총 18억 원의 사업비로 3개동(연경당, 혜경당, 자경당)을 마련하며, 12개의 방사와 다도 · 명상을 진행할 수 있는 2곳의 다목적실이 들어선다.

개관식에는 송광사 주지 진화 스님, 연광 스님,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송기석 국회의원, 이범식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장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연광 스님은 "누구에게나 안식처가 되고 다양한 사찰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전용관은 향후 템플스테이와 더불어 시민들을 위한 시민선방과 명상체험, 사찰음식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증심사는 2008년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로 지정돼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템플스테이 우수 운영사찰로 선정된 바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천안 도광사, 경로잔치 개최

지역 어르신 400여 명 초청



천안 도광사(주지 지엄)는 10월 28일 사할린에서 영구 귀국한 동포 어르신들과 천안 무료급식소 어르신 400여 명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열었다.〈사진〉

올해로 7회째 맞은 경로잔치는 신안동 문화예술단이 준비한 창부타령, 밸리댄스, 색소폰 연주에 이어 지역 가수들의 축하공연, 어르신 장기자랑 및 노래자랑 등으로 꾸며졌다.

지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경로잔치를 열 수 있도록 도와준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할머니 할아버지,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도광사 사부대중과 자원봉사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광사는 경로잔치 외에도 매년 봄나들이 행사,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독거노인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관람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 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강백 석전 박한영 스님, 선수행도 매진"

한일불교문화학회, 선운사서 추계 학술대회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는 10월 28일 선운사 세미나실서 '석전 박한영의 위상, 그리고 일제 강점기의 일본종교'를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일제강점기 한국불교 대강백이자 선사로 알려진 석전 박한영 스님과 당시 일본종교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회장 원영상)는 10월 28일 선운사 세미나실서 '석전 박한영의 위상, 그리고 일제 강점기의 일본종교'를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서는 1부 김방룡 충남대 교수의 '박한영의 사상과 신앙', 오경후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의 '박한영의 불교사관과 그 가치',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의 '박한영과 한용운의 승려결혼관 비교' 연구발표 등이 진행됐다. 2부서는 이치노헤 쇼코 일본 조동종 운상사 주지 스님이 '데이터베이스 금강에 대하여', 즈시 미노루 야스쿠니반대 공동행동 일본위원회 사무국장이 '침략신사와 식민지종교지배'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이재수 ·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안후상 고창고 교사 등이 참여했다.

김방룡 교수는 '박한영의 사상과 신앙'을 통해 석전 스님이 대강백으로 알려져 있지만 선수행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석림수필〉 13번째 '야호화(野狐話)'를 해석함에 교의(敎意)와 조의(祖意)가 있다는 내용을 조명했다. 의리에 의하여 접근하는 교의보다 격외의 조의가 더 깨달음에 접근하기 쉽다는 점을 말하고 있어 이는 간화선을 참구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견해라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석전 스님이 선사로서 임제종풍을 계승하지 않고, 하택의 선사상을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석전 스님이 종밀의 〈신회행략(神會行略)〉을 들어 하택이 북종의 탄압에

'석전 위상과 일본종교' 주제
김방룡 · 오경후 · 김광식 교수 등
석전 스님 불교사상 집중조명

맞서 남종의 기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한 역사적 사실을 짚었다. 석전 스님이 "하택의 종론은 중국을 휩쓸었고, 말엽에 미쳐서는 우리 한반도에 한 소리로 창화(唱和)하여 오늘날까지 쇠퇴하지 않으니 이는 이른바 원천이 깊으면 물줄기가 깊다는 것이다"고 말한 점을 강조했다.

김광식 동국대 교수는 '박한영과 한용운의 승려결혼관 비교' 연구발표에서 "석전 스님과 만해 스님은 근대불교의 모순을 직시하고 불교대중화와 불교개혁을 위한 행보를 치열하게 걸어갔으며 이는 해방 후에도 후학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석전 스님은 만해의 결혼관에 대해 승려결혼 자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석전 스님이 1920년 6월 20일자 시대일보에 기고한 글 '승려식육취처론에 대하야'를 제시했다.

석전 스님은 이 글에서 '승려식육취처론'을 수용치 않았음을 밝히고 승려의 식육취처는 '만만불가'한 패악설이고, 계율을 지키는 것은 '신조'이면서 '교체'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석전 스님은 철저한 계율수호를 강조하면서도 승려결혼이라는 계율파괴를 주장한 만해와 친연한 행보를 이어간 점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석전의 위대성, 강학의 대가, 큰스님 및 고승의 관점에서 접근했지만 이제는 석전의 정체성, 교육 측면에서의 성과 등 다양한 관점서 석전 연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심학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일본의 식민사학과 역사학자들에 의해 왜곡된 우리 불교사를 바로잡고, 후학양성과 복지국가 건설, 불교문화 융성에 혼신을 다하라는 가르침이 바로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가을추억 한 아름, 내소사 산사음악회

10월 29일, 경내 특설무대서 지역주민 행복 · 마을 화합 기원



가을색이 짙어가는 고색창연한 산사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아름다운 전나무 숲길과 꽃살무늬 문살로 유명한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는 10월 29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지역주민들의 행복과 마을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2016 내소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우리 절 우리 마을 삶의 고향'을 주제로 내소사 대중스님들과 지역주민,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진 산사음악회는 내소사를 찾은 이들의 평안과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하는 알찬 무대로 꾸며졌다.

수령 1500년 당산나무와 전각을 배경으로 설치된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음악회는 남성 3인조 팝페라 그룹 '빅맨 싱어즈'가 무대에 올라 베사메무쵸, 무조건 등 흥겨운 노래로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했다. 이어 4인조 클래식 앙상블 '92.5MHz'는 애잔한 클래식 선율로 전인권의 '걱정말아요 그대', 산울림의 '청춘' 등을 연주했다. 또 4인조 통기타 그룹 '음악나무'는 '아름다운 것들' 등 70 · 80년대 주옥같은 포크송을 불러 중년 관객들에게 옛 추억을 전했다. 음유시인 정태춘 · 박은옥 부부는 '탁발승의 새벽 노래' '촛불' '떠나가는 배' 히트곡을 선보이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산사음악회에 앞서 내소사 경내 곳곳에서는 부안 지역 먹거리와 특산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나눔장터와 단청그리기, 전통차 시음, 연꽃등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한편 진도 쌍계사(주지 법오)도 같은 날 대웅전 보수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하고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에는 통기타 가수로 대표되는 해바라기, 트로트 가수 진시몬 등이 출연해 대웅전 보수불사 회향을 축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 황방사, 산신각 점안식 및 산사음악회

전주 황방사(주지 지호)는 10월 29일 전주 보문사 향산 스님을 비롯한 향산문도회 스님 20여 명과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신각 점안식 및 제1회 작은 산사음악회를 봉행했다.

산신각 점안식은 향산 스님의 증명으로 전통방식에 따라 엄숙하고 정중하게 봉행됐으며 절 마당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점안식에 이어 진행된 작은 음악회는 범적사 대표 나은지 목포대 교수의 사회로 마이산 탑사 나눔봉사단의 퓨전난타공연과 탑사 진성 스님 · 혜인정사 진송 스님의 색소폰 연주, 무설스님의 북춤, 신도 노래자랑 등이 이어졌다.

지호 스님은 "어려운 형편에도 3년째 전주 덕진공원서 무료급식을 진행하는 등 나눔의 행복을 전하고 있다"며 "산신각 점안법회와 작은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재능기부로 출연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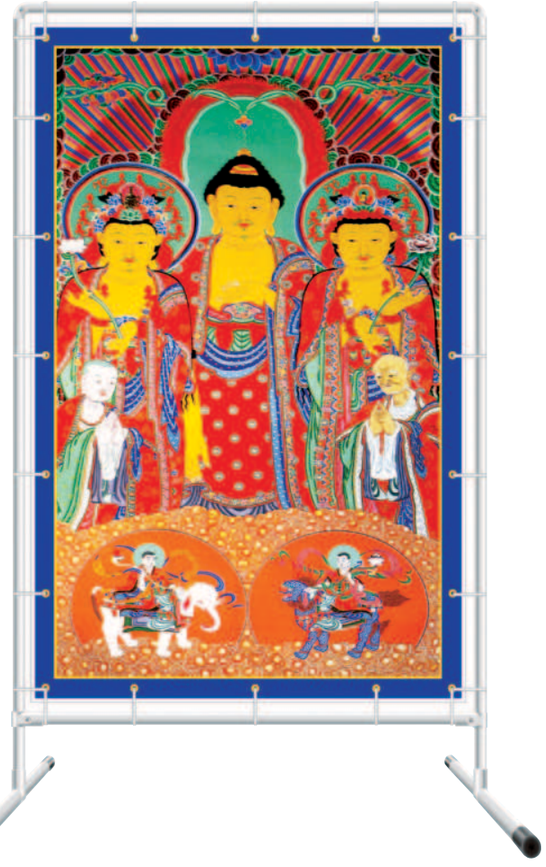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0-5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품설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cm × 세로 300cm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매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공덕 성취 위에 지혜광명 빛날때 '성불'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㉑ 요괴 쫓던 손오공의 보살 바라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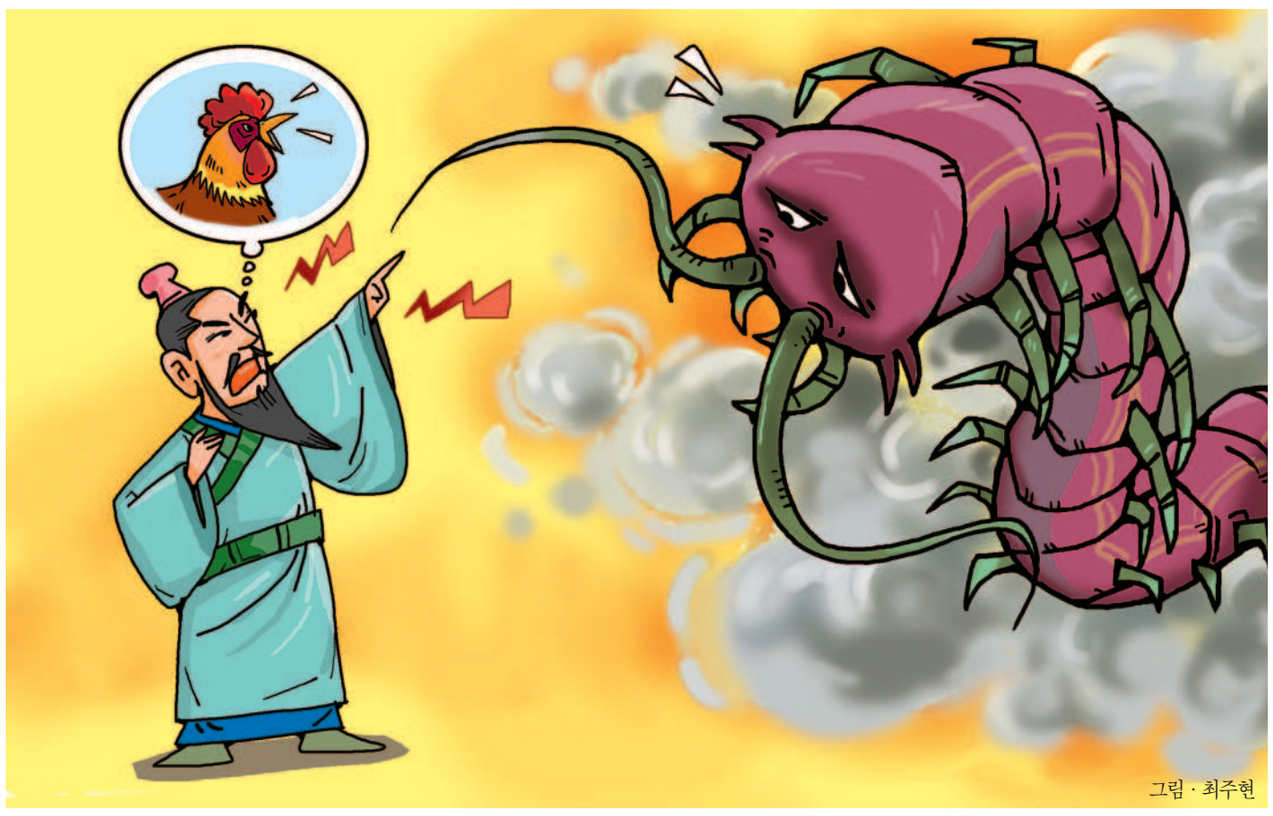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물과 불의 장애, 진리에 대한 잘못된 집착을 넘어서면 이제 좀 평탄한 길이 나올 수 있다 했지요? 그렇지만 평탄한 길에는 그 길에 걸맞는 장애들이 있어요. 그 가장 큰 장애는 해태해진 마음, 풀어진 마음이지요. 사람의 습성이라는 것이 좀 쉽다 싶으면 바로 늘어져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현장법사가 그리 쉽게 풀어질 사람은 아니라 하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쉽게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다른 사단을 일으켜 고생을 하게 마련이지요. 그리고 경지가 높아질수록 이만하면 다 온 것 아닌가 하는 자만심의 장애가 있습니다. 슬슬 아래가 내려다보이고, 그 경치도 좋고…. 그러면 "이만큼 왔으니 좀 쉬어볼까?"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좀 쉬는 거야 뭐 나쁠 게 있겠어요? 문제는 좀 쉰다는 것이 아주 푹 눌러 앉아 버리려는 마음으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속이며 그 자리에 안주하려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수행의 큰 장애가 되지요. 궁극적인 깨달음에 도달하기 전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큰 서원이 슬며시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큰 흐름을 보았으니 이런 시각을 바탕으로 좀 그 숨은 의미를 캐어 볼까요? 우선 제 새국에서 고통 받는 스님들을 구해주고, 나라의 보배를 찾아 줌으로써 큰 공덕을 쌓았지요? 일행의 초상까지 그려서 그들을 기렸다 하니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푼 것이겠어요? 이제 현장법사 일행의 힘이 그만큼 커져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일에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요. 물론 지금까지 오는 도중에도 요괴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공덕을 쌓았지만, 이제 그 공덕 쌓기가 좀 더 수월해졌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수행을 통해 힘을 얻으면 그것을 올바르게 써서 공덕을 쌓는 일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단순히 지적인 성취만으로 부처를 이루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비의 실천, 그것이야말로 부처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덕이 원만하게 성취되고, 그 바탕 위에 지혜의 광명이 빛날 때 바로 성불이라는 궁극적 목표가 성취되는 것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을 이익 되게 하는 자비행이야말로 불교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를 왜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의 불교는 지나치게 지혜에 기울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중생의 아픔을 없애주고, 그들을 행복의 길로 이끄는 자비행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중심이 되어있고, 깨달음을 이루는 길이나, 깨달음을 성취한 뒤에나, 언제나 자비행이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장법사 일행이 공덕을 쌓아가는 일들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나타난 '소뇌음사'의 요괴 사건, 황미대왕이라는 요괴가 나왔죠? 미륵부처님 회상에서 종치던 동자가 분장하고 나온 사건이었죠? 그 사건의 무대가 된 소뇌음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계신 영취산의 대뇌음사를 모방한 소뇌음사! 현장법사가 앞에 '소'자를 못보고 대뇌음사라고 착각하지요? 그리고 얼마나 기뻐해요?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을 보는 열쇠입니다. 현장법사의 급한 마음, 빨리 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소뇌음사를 나타나게 한 범인이라는 것을, 삼쾌선생이 지혜의 눈으로 간파하였답니다. 공자의 말씀이 있죠. "빠르게 하고자 하면 도달하지 못한다"(欲速則不達)고. 그저 그 길을 좋아하여 그 길 가운데 쓰러질 각오로 꾸준히 가야만 하는 길, 그것이 바로 구도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찌 그렇습니까. 좀 빨리 도달하여 쉬고 싶고, 언제나 이 길은 끝이 나는가 조바심을 내고, 그러한 마음 앞에 사이비(似而非) 떡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홀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주인 노릇하는 요괴도 비보통 요괴잖아요? 미륵부처님 회상에 있던 존재이니, 진리의 한 자락은 파악하고 있는 요괴! 그러니 가짜 소뇌음사도 만들 수 있었겠지요? 또 미륵부처님의 보기(寶器)를 훔쳐서 왔으니 손오공 일행을 괴롭힐 수도 있었구요. 그렇지만 결국 진리의 화신으로부터 나온 존재, 본래의 진리라 할 수 있는 미륵부처께서 거두어 가시지요. "그렇게 조바심 내는 마음을 쉬게 하거라!"하는 경계를 내리고는, 본래 가문인 부처님 가문으로 돌아가는 황미대왕! 그 뒤에 손오공의 안보이는 주먹질이 몇 개 날아갔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하하.

그 다음 주자국에 가서는 역시 큰 공덕을 쌓는 군요. 국왕의 상사병을 해결해주는 공덕! 현장법사가 비록 자신은 여색과 담 쌓고 살지만, 국왕과 왕비의 사랑을 다시 이어주는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물론 활약이야 손오공이 대표로 하지만, 결국 현장법사의 공덕이죠. 그런데 이 국왕이 삼년 동안 왕비를 요괴에게 빼앗기고 상사병을 앓게 된 사연이 또한 재미있군요. 전형적인 인연설화가 등장합니다. 왕이 사냥을 좋아하여 공작대명왕보살(孔雀大明王菩薩)의 새끼 한 마리를 해쳤고, 그렇게 하여 보살의 마음을 아프게 한 과보를 받게 하느라 관세음보살이 타는 금모후가 요괴로 분장하고 나타난 것이라는…. '결국 요괴 쫓던 손오공 보살 쳐다보기'가 재연되는 것이지요. 전형적인 인연설화 이지만 이 속에는 몇 개의 재미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왕비는 비록 요괴한테 잡혀갔지만, 전혀 요괴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또한 몸의 정절도 더럽히지 않습니다. 마침 이런 사연을 지나가던 자양지인이라는 분이 알고는 종려나무를 재료로 해 만든 옷을 왕비에게 입게 하였는데, 그것을 입자마자 왕비의 몸에 가시가 돋아나 왕비의 몸에 직접 손을 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군요. 그래서 왕비도 정절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요괴한테 3년이나 잡혀가 있었음에도 그 변함없는 마음과 몸으로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역시 왕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품고 상사병을 앓고 있던 왕과 재결합하여 행복하게 살았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속세의 이야기로 치면 참으로 아름다움 사랑의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것을 성취시켜 준 현장법사 일행의 공덕이야말로 참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그런 공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구요.

황미대왕 등 요괴 만나
인생의 여러 장애 의미
자비실천 구도행이 해답

그리고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황미대왕이 불과 연기와 모래를 내뿜는 신기한 보배 방울을 가지고 있어요. 손오공이 요괴 소굴에 변신 잠입하여 술법으로 가짜 방울을 만들어 놓고 진짜 방울을 훔쳐냅니다. 그리고 요괴와 싸움이 벌어질 때 요괴와 손오공이 같은 방울을 꺼내들지요. 요괴가 놀라서 "어찌 네가 나와 같은 방울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니 손오공이 "네 것은 숫 방울이고 내 것은 암 방울이다"라고 사기를 칩니다. 결국 방울을 서로 흔드는데 당연히 요괴의 방울은 불과 연기를 내뿜지 못합니다. 그 때 요괴가 말하지요. "이상하구나! 이 방울도 마누라를 무서워하나부다. 수놈이 암놈을 보고는 나오지 않나보다." 하하. 요괴 동네나 사람 동네나 대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마누라인가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구요. 에헹? 나칠계님? 왜 그렇게 헤벌쭉 웃고 계세요? 삼쾌선생이 공처가라는 것을 지금 확실히 알았다구요? 그렇지 않으면 이 대목에서 그렇게 말할 리가 없다구요?

무슨 말씀을! 저야말로 집안에서 가장의 권위를 가장 확실하게 세우는 대표적이고 확고한 당당남편! 제 아내는 제 말이라면 그저 꼼짝을…. (두리번두리번….) 혹시 마누라가 주변에 있을까를 살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두리번두리번)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만 하도록 하지요. 줄거리와 관계없는 이야기 꺼내서 시간 잡아먹게 하지 마세요!

어험! 좀 분위기를 바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두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시선에 무언가 얕잡아보는 듯한 느낌이…. 험, 험. 집안이 평화로운 지름길은 무조건 남편이 마누라에게 지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듯. 이기지 못해서 이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시는 듯. 모르셨으면 지금부터라도 알아 가시도록 하세요! 이야기 앞으로 나갑니다!

상사병 치료라는 큰 공덕을 쌓은 현장법사 일행이 다음에 만나는 난관은 거미요괴와 지네요괴의 난관, 한마디로 벌레 난관이로군요. 여기서 거미요괴들은 일곱 마리나 나오고, 모두 절세의 미녀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탁구천(濯垢泉), 즉 때를 씻어낸다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온천을 차지하고 앉아서 요괴짓을 벌이고 있죠. 마침 탁발을 나왔던 현장법사를 잡아서, 그 고기 먹고 불로장생하려는 꿈에 부풀게 됩니다. 손오공이 구하러 갔는데 마침 요괴들이 온천에 목욕을 하는 장면이라, 점잖은 손오공은 옷을 모두 훔쳐 요괴들이 온천에서 못나오게 하고(와! 부끄럼 타는 요괴들, 체면 차리는 요괴들!) 저팔계가 나서게 됩니다. 사정을 듣고는 환희에 차서 달려가지요. 그 하는 수작을 보세요. "보살님들께서 목욕을 하고 계셨군요. 이 중도 함께 씻으면 어떻겠소?"하곤 메기로 변신하여 풍덩! 앞에 요약 글에서 말했듯이 서유기에서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아마 최고로 외설적인 대목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다가 참지 못한 거미요괴들이 배꼽에서 실을 뿜어내어……. 결국은 거미요괴들 달아나 동문인 지네요괴에게 하소연을 하지요. 겉으로는 도사로 변신해 있는 지네요괴가 저팔계의 음란한 행태에 분개하여(?) 손오공 일행과 싸우게 되고, 도사가 독을 탄 차를 먹이는 바람에 손오공을 빼놓고는 모두 중독이 되어 죽을 지경이 되고 맙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여산노모라는 신선이 해결의 길을 가르쳐주지요. 그래서 비람파보살이라는 분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데, 알고 보니 이 보살님이 바로 앞에 나왔던 수탉의 화신 묘일성관의 어머니네요. 지네나 벌레의 천적은 바로 닭이니~. 이 보살님은 아들이 만들어 준 작은 침을 가지고 계신데, 이 침 하나면 모든 벌레 종류는 다 잡아내네요. 휙하고 던진 침에 도사 변신해 있던 지네요괴 꼼짝 못하고 잡히지요. 그리고 해독제까지 주셔서 모든 일행들 해독하고. 보살님도 하나 건져 가십니다. 바로 지네 요괴를 문지기로 쓰겠다면서 잡아가십니다. 수탉의 화신인 묘일성관의 어머니라면 암탉이 틀림없는 것 같은데, 암탉의 집 문지기가 지네라니…. 하아, 뭔가 좀 이상하네요.

이 이야기에서는 저팔계의 음란한 행태가 두드러지네요. 현장법사는 전혀 흔들림 없는데, 그 제자 저팔계가 음심을 못 이겨 장난을 치는 바람에 일이 좀 복잡해지는 이야기지요. 그렇지만 결국 수탉의 울음에 모든 어둠 가시고 새벽이 오듯이, 일행의 헛된 욕망도 마찬가지로 사라지고 밝은 길을 향해 힘차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벽을 여는 닭의 울음은 암탉의 울임인가요? 아니면 묘일성관이 만들어준 바늘의 힘을 입었으니 여전이 수탉의 울음인가요? 갸오똥~ 헷갈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쳐 볼까요?

잘하는 명상은 나의 운명을 바꾸어 줍니다

병이나, 괴로움, 번민 등은 모두 자연법칙을 위배하는데서 일어납니다.
명상을 통하여 모든 자연법칙들의 근원인 순수의식을 확립하면
마음과 몸은 자동적으로 단단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에너지의 흐름이 원활하여 생리계통이 바뀌게 되며, 그후 문제 없고
완전한 건강과 행복을 누리며, 빠르게 발전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 첫째주 (토요일) : 나를 귀하게 하는 명상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 둘째주 (토요일) : 자기 능력을 일깨우는 창조명상〈취업준비 직장인 및 상업인, 사업인 등〉
◆ 셋째주 (토요일) : 사랑을 얻는 행복명상 〈결혼, 이혼, 재혼을 앞둔 이들을 위하여〉
◆ 넷째주 (토요일) : 귀한 자녀를 얻는 태교명상
〈뇌세포의 70%는 엄마의 뱃속에서 만들어 지며, 스트레스는 태아의 뇌 크기를 줄인다〉

◆ 문 의 : 작은 마음선원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240번길 32
◆ 전 화 : 010-8673-7558 / 010-5658-2657 / 031-335-2568
◆ 매주 토요일 : 오전 11시 ~ 오후 5시

삶에 대하여 …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자신을 키우고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 보세요.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전류가 흐르며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그 절집의 빛

㉓ 영국사, 용문사, 보석사, 적천사 은행나무

가을의 전설, 은행나무 천왕목

영국사 나무 스스로 후계목 뿌리내려
용문사 나무 국내 최고최대 은행나무
보석사 은행나무는 육바라밀 상징
적천사엔 암,수 두 그루 나란히 붙어

사찰이 숲이고, 숲이 청정도량

석가모니께선 룸비니 동산의 무우수 나무 아래에서 태어나,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무상정등각을 얻었고, 녹야원에서 최초의 설법을 폈으며, 쿠시나가라의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셨다. 부처님의 탄생, 성도, 전법, 열반의 과정에 나무가 함께 한다. 부처님 입멸 후 무불상시대 오백 년 동안에 부처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예배대상은 보리수 나무였다. 한 그루 나무가 부처님의 상징이었다. 지금도 선원, 율원, 강원을 모두 갖춘 사찰을 '수풀로 우거진 숲', 곧 총림(叢林)이라 부른다. 경전 곳곳에서 전단향나무와 보배나무가 등장한다. 그 나무들은 부처님의 공덕과 위신력에 의한 현현이다.

사찰건축과 장엄에서 나무와 숲은 핵심적인 모티프다. 불전건물 자체가 나무들로 경영한 숲의 재현에 가깝다. 붉고 푸른빛의 '단청(丹靑)'은 나무줄기와 잎의 차용으로 알려진다. 불교는 청정국토 숲의 종교다. 사찰이 곧 숲이고, 숲이 곧 도량이다.

때때로 한 그루 나무가 그 절집을 상징하곤 한다. 운문사의 처진소나무, 진안 천황사의 전나무, 내소사의 느티나무, 송광사 천자암의 곱향나무, 통도사의 자장매, 선암사의 백매 홍매 등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절집 초입, 혹은 불전건물 앞의 노거수들은 대단히 깊고도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나무 한 그루가 절집의 얼굴이 되고, 청정도량의 상징이 되곤 한다. 그런데 하나의 사찰을 대표하는 데 가장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나무는 아무래도 은행나무다. 은행나무로 유명한 사찰은 전국 곳곳에 분포한다. 흥주사, 운문사, 범어사, 수종사, 우곡사, 전등사, 고견사 등 수령 500년이 훌쩍 넘는 은행나무들이 저마다 신화와 역사의 향기를 간직한 채 사람들의 이목과 발길을 끌어 모은다.

천연기념물 절집 은행나무는 네 그루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은행나무는 2016년 11월 현재 23그루다. 올해 새로 지정한 당진 옛 면천초등학교내 은행나무를 포함해서다. 23그루 중 절집에 있는 천연기념물 은행나무는 네 그루다. 용평 용문사 은행나무, 영동 영국사 은행나무, 금산 보석사 은행나무, 그리고 청도 적천사 은행나무가 그것이다. 네 그루 모두 절집의 초입에 있는 천년의 노거수들이다. 하나의 공간을 압도적으로 주도하는 수처작주(隨處作主)의 목신들이다. 그 은행나무 앞에 서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경이로움과 거룩함을 감출 수 없다. 땅에서 솟아난 거대한 육신이 나무의 물리적 차원을 넘어서 신령한 기운을 내뿜는다.


영동 영국사 은행나무(약1,000년, 31m)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약1,100년, 42m)


금산 보석사 은행나무(약1,000년, 34m)


청도 적천사 은행나무(약 800년, 26m)

가을이면 저 나무가 있어 지구의 모퉁이는 노랗게 물든다. 은행나무는 가을의 전설이다. 우주의 순환이 저 나무에 기록되어 있다. 은행나무 유전자에 깃든 시공은 몇 억년을 거슬러 오른다. 3억 5천만 년 전의 고생대에 출현한 것으로 추정한다. 빙하기가 닥치면 생명체들은 멸종하거나 환경에 맞게 진화를 거듭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반복되는 빙하기에도 은행나무는 멸종하지 않았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으며, 고대의 화석에서 발견되는 잎의 형태와도 거의 변함없다. 진화하지 않고 살아남은 까닭에 1목 1과 1속 1종의 식물분류 계통을 유지하고 있다. 진화론의 찰스 다윈은 은행나무에 '리빙 포실 (living fossil)', 곧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은행나무의 강인한 생명력을 대변한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폭심에서도 살아남아 현재도 자라고 있다니 은행나무가 지닌 강력한 생존력과 내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놀라운 생명력을 헤아려보면 몇 몇 은행나무 노거수에 전해지는 '삽목설화'를 일정 정도 수긍할 수 있다. 영국사와 적천사 은행나무에 지팡이 꽂은 삽목설화가 전해진다. 한 그루 나무에 자연과학과 역사, 종교, 민속의 인문이 밴 까닭에 노거수는 살아있는 생명 문화재이다.

영동 영국사 은행나무는 수령 1,000년으로 추정하는 31m 높이의 암나무다. 왕성한 생명력으로 지금도 매년 세 가마니씩 은행을 수확한다고 전한다. 그러고 보면 절집에 있는 네그루 천연기념물 은행나무 모두 암나무라는 공통점이 있다. 숭유억불의 조선에 이르러 그 점이 사찰을 수탈하는 명목이 되기도 했다. 매년 수확량을 할당해서 공물로 공출한 까닭이다. 강화도 전등사 은행나무의 경우에는 수확량을 초과해서 공출을 요구하니 견디다 못한 스님들이 염불과 기도를 올려 암나무를 수나무로 바뀌게 해서 공출을 면했다는 설화가 전해지기도 한다. 영국사 은행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서쪽의 가지에서 유주(乳柱)가 뻗어 내려 땅에 뿌리를 내린 후 독립한 나무처럼 자라고 있다는 점이다. 스스로 하나의 후계목을 식목한 경이로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또 영국사에는 천왕문이 없다. 은행나무 자체가 사찰의 수호신이자 천왕인 까닭이다. 나라에 큰 변고가 있을 때 나무가 울었다는 구전은 수호목으로서의 덕성을 환기시켜 주는 대목이다.

지팡이 삽목설화와 변고 알리는 신목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는 수령 약 1,100년으로 추정하고, 높이 42m에 이르는 우리나라 최고, 최대의 은행나무로 알려진다. 지팡이를 꽂은 것이 나무가 되었다는 삽목설화와 나라의 변고를 울음으로 알리는 신목설화를 두루 갖추고 있는 나무이다. 최고, 최대의 물리적 특성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직위를 하사받은 유일한 은행나무로서 풍부한 서사를 갖추고 있다. 세종때 장차관급인 정3품 당상관 품계를 하사받은 것으로 전한다. 이런 사실은 세계 수목문화사에 남을 경이로운 기록이 아닐 수 없다. 나무에 유산을 물려주고(예천 석송령, 황목근, 고성 김목신 나무), 사람 이름을 지어주고, 또 재산세를 내는 나무들이 있는 나라이기에 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심지어는 더 높은 직위를 지닌 정이품송 소나무도 있다. 그런데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이 있어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곤 한다. 바로 나무의 높이다. 시대에 따라, 안내문에 따라 67m, 63m 60m, 57m, 42m, 41m 들쑥날쑥이다. 문화재청 기록마저도 갈팡질팡이다.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 시대에 한 나라를 대표하는 나무 한 그루의 높이 재는 것에서조차 충실하지 못한 무능함이 그저 놀랍다. 근래에 문화재청 공식기록으론 42m로 공인해 두었지만, 2005년 연세대의 한 교수가 사다리차를 동원해서 실측한 길이는 39.2m여서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한 해에 맺는 은행나무잎의 무게만 2t, 은행은 15가마를 거두는 거대한 천왕목임에는 분명하다.

절집 은행나무는 천왕목이며 우주목

금산 보석사 은행나무는 보시, 지계, 인욕, 선정 등 육바라밀을 상징하는 종교적 신심이 투여된 이채로운 나무다. 조구대사께서 886년 보석사를 창건하면서 다섯 제자와 함께 육바라밀의 실천을 다짐하며 창건 기념식수로 심은 여섯 나무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한 나무로 합쳐졌다고 전해진다. 그렇게 계산하면 1130년 수령의 나무가 되고, 또 망국을 등지는 길에 마의태자가 심었다는 한국 최고의 용문사 은행나무보다 앞서는 것이라 혼란스럽다. 이 나무 역시 마을과 사찰에선 안녕을 수호하는 천왕의 신목으로 여기며 대신제를 올린다. 열반에 이르는 불교 신행의 지계, 선정 등 육바라밀을 담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무 자체가 선원이고 율원이며 유례없는 총림의 나무라 할 것이다. 삼엄한 심검의 나무이자, 열반에 이르는 신행을 일깨우는 거대한 '직지의 나무'라 하겠다. 나무가 있는 언덕이 침묵의 설법전이다.

청도 적천사 두 은행나무는 천왕문 앞에 두 분의 금강역사처럼 버텨 서있다. 드물게도 한 공간에 500~800년 된 암나무와 수나무가 서로 가지를 맞닿은 진귀한 형상이다. 보조국사께서 짚고 다니신 은행나무 지팡이가 이 나무의 원형으로 전한다. 은행나무 앞에 이 사실을 기록한 1694년의 비석 '축보조국사수식은행수게(築普照國師手植銀杏樹偈)'가 세워져 있다.

절집의 천왕문 자리에, 혹은 천왕문 앞에 은행나무들이 있다. 사찰의 수호신이자 천왕으로 신격화하여 예우한다. 나무 한 그루가 절집이며, 마을 공동체이고, 정부(政府)다. 당산제를 지내고 대신제를 올리며 별빛축제를 연다. 은행나무가 천왕(天王)이고, 당산목(堂山木)이며, 하늘과 땅을 잇는 우주목이다. 세세생생 나고 지는 생멸을 반복하며 제행무상을 불립문자로 일깨운다. 그 자체가 우주이고, 경전이며, 무정의 설법전이다. 진금색 빛이 나투신다. 바야흐로 가을의 전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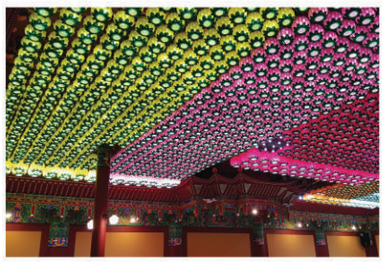

노재학(불교미술 사진작가)



보련기획
전국 방방곡곡 자비의 등불을 밝힙니다!
연등자동승강장치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란? 법당의 구조와 규모등의 특성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를 바탕으로 장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프레임(틀)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프레임을 상하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키므로 연등, 축원표등의 설치, 교체 등의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동승강장치 설치 효과
- 높은 사다리에서의 낙상으로 인한 부상위험과 공포에서 해방
- 법당의 규모와 모양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로 뛰어난 장엄효과
- 프레임(틀)을 보다높게 하고,연등을 정방형으로 정렬하여 넓은 시야확보
- 최소의 인력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등,축원표 설치 교체 가능
- 철저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로 반영구적 사용


원불

위패

인등
2017 카렌다 주문 접수
카렌다

보련기획 BORYEON | 010-5381-9355 031-526-2201~2 www.boryeon.com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189번길 27 A동 (모현면 일산리 549-1)
찬덕연등의 전통과 기술력을 계승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진관사 주지 明信과 우정 다진 名臣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㉝ 삼탄 이승소

조선 전기 서거정과 쌍벽을 이뤘던 이승소(李承召, 1422~1484)는 김수온(1410~1481), 강희맹(1424~1483), 김종직(1431~1492)과 함께 조선을 대표하는 문장가다. 자는 윤보(胤保)이고 삼탄(三灘)이라는 호를 썼다.

17세의 나이에 진사시에 합격한 후 식년 문과에 장원 급제한 후 집현전 부수찬(集賢殿 副修撰)에 임명되었다가 얼마 후에 응교(應敎)로 승진되었고, 여러 관직을 거쳐 이조와 형조의 판서, 좌·우참찬을 역임하였다. 그가 외직인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병이 나자 임금(세조)이 약을 하사할 정도로 신임을 받았다.

특히 예악(禮樂)뿐 아니라 병법에도 능했던 그는 율·역(律·曆)에도 밝았을 뿐 아니라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늘 청렴했다고 한다. 그의 임금을 향한 충심(衷心) 또한 대단했던 듯한데 이는 〈국조보감〉에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성종 2년(1471) 왕께서 세 대비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당시 여러 종신(宗臣)들과 재상을 불러 술과 음악을 하사했다. 주흥(酒興)이 고조되자 왕은 친히 '태평한 오늘은 취해도 좋으리(昇平今日醉無妨)' 라는 한 구절을 내려 여러 신하들에게 화답을 청했다고 한다. 당시 예조판서 이승소는 즉석에서 "임금님과 신하들이 한자리에 모이셨도다(魚水相歡共一堂)/예로부터 편안할 때엔 위태로움을 잊지 말라 경계하였으니(安不忘危古所戒)/다시 굳은 뿌리에 왕업이 매였음을 생각하리(更思王業繫苞桑)"라고 하였다.

그의 화답 시에 "천하가 모두 태평할 때 늘 위험을 생각한다(安不忘危)"라는 말은 원래 〈역경(易經)〉에 있는 말이다. 나라의 위태로움은 어려울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태평성대를 누릴 때에 (위험이) 싹 튼다는 것을 경계한 말이다. 성종은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임금이었다. 임금과 신하가 함께하는 즐거운 연회에서 성종의 호기는 한번쯤 웃음으로 넘길 수 있었던 분위기였으련만 이승소의 화답은 폐부를 찌르는 직언(直言)이었던 셈이다. 아마도 성종은 포용력이 있는 성군이었기에 그의 쓴 소리를 유쾌하게 들었을 것이다. 실로 태평성대는 성군과 현신이 함께 만드는 시대의 하모니(harmony)인 셈이다.

한편 그가 살았던 시대는 성리학이 대세를 이룬 때다. 그러므로 불교는 위축될 대로 위축되었다. 세조 때 간경도감을 설치하고 불경을 간행했지만 불교의 영향력이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니다. 척불론(斥佛論)이 대세를 이뤘던 시대이기에 그 또한 해불(害佛:불교가 풍속에 미친 악영향)을 논하는 글을 지었을 것이다. 불교의 위축은 이미 조선 건국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15세기 말 산사를 찾아 차를 나누던 풍속도 점점 줄어들었고 실제 차를 즐기는 문인의 수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한 때다. 물론 이승소가 표면적으론 해불론을 짓기는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외적인 명분이었을 뿐이며 승려들과의 교유까지 단절했던 것은 아닌 듯한데 이는 그의 〈삼탄집〉에 수록된 수편의 시문에서도 확인된다. 우선 그와 교유했던 일암전 장로에게 준 〈일암전장로(贈一菴專長老)〉를 감상해 보자.



삼각산 진관사 전경. 이승소의 시를 통해 그가 조선전기 진관사 주지 명신과 깊은 우정을 쌓은 것을 알 수 있다.

백 년의 번뇌를 떨쳐 버리고(抖擻百年累)
깊이 일미선에 들었네(深參一味禪)
몸이 한가하니 응당 늙지 않을 것이고
(身閑應不老)
고요한 마음엔 졸음조차 없으리(心靜更無眠)
대바구니 속엔 약(차)을 말리고(藥料筠籠炙)
차 솥엔 흰 눈(雪)으로 (차를) 달이네(茶鐺雪水煎)
제일 가련한 건 속세의 객이(最憐塵世俗)
항상 몸이 얽매여 애쓰는 것이라(役役常在纏)

그와 오랫동안 교유했던 일암전 장로는 "백 년의 번뇌를 떨쳐 버리고(抖擻百年累)/깊이 일미선에 들었던(深參一味禪)" 승려라는 것이다. 일암전 스님의 수행 경지를 드러냈다. 이뿐 아니라 이승소는 일암전 승려와의 어떤 교유를 나누고 있었는지를 〈일암전 장로에게 주다(贈一菴專長老)〉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누항에서 가끔 서로 지나쳤는데(陋巷時相過)
포단에서 좌선하는 그대에게 물었지
(蒲團坐問禪)
현관에 선사는 이미 다 뚫었는데(玄關師已透)
화택의 나는 현재 졸고 있다네(火宅我方眠)
또한 많은 술을 마시어도 괜찮겠거니
(且可百壺飮)
어찌 팔병의 차를 달일 필요가 있는가
(何須八餠煎)

예악·병법·율역 두루 밝고
임금 향한 충심도 뛰어나
표면적 해불론 지었지만
승려교유 단절 않고 이어

오롯이 대도를 통하였으니(陶然通大道)
티끌세상 얽매임을 벗어 던졌네(脫下塵網纏)

일암전 승려는 가끔 만나는 사이로 서로의 친분이 먼 것은 아니었다. 포단은 수행하는 승려들이 앉아서 참선하는 방석이다. 포단에서 수행하는 일암전 승려에게 선을 물었다는 말이다. 이처럼 그 또한 세속을 벗어나고자 했지만 일암전 승려는 현관을 다 뚫어 버린 수행자이고, 자신은 아직도 미몽에서 졸고 있는 속한(俗漢: 보잘것없는 사람)일 뿐이다. "고요한 마음엔 졸음조차 없으리(心靜更無眠)"라던 선승 일암전 승려는 당대의 문장가 신숙주, 서거정, 성삼문과도 깊이 교유했으며, 이들의 유불교유를 이끈 징검다리는 차와 시, 그리고 술이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한편 이승소는 당대의 이름난 학자답게 불교의 교리에도 밝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림 족자에 제하여 승려에게 주다(題花簇贈僧)〉에서 드러난다. 그 내용은 이렇다.

나무에 한가한 꽃눈의 흰빛 훔쳤는데
(一樹閑花偸雪白)
짝을 지어 깃든 아름다운 (새)깃엔 검붉은 빛으로 물들었네(雙棲錦羽染猩紅)
곁에 있는 사람들 모두 그림을 보며
(傍人盡作丹靑看)
원래 색이 바로 공한 줄을 모르누나
(不悟從來色是空)

화족(花簇)은 그림 족자를 말한다. 그와 교유했던 승려에게 준 그림 족자엔 두 쌍의 새가 깃든 그림이 그려져 있던 듯하다. 그림 속의 아름다운 색깔이 원래 공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공은 불교의 도리, 그림이라는 시공간, 그리고 형상을 드러낸 그림 족자는 그저 인연의 결과일 뿐 흩어지면 없어지는 세계라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그의 〈통 승려 허곡(通上人虛谷)〉에는 그가 얼마나 불교에 밝은 유학자인지를 드러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 유에 내력은 유(색)가 먼저이거니
(無有從來有有先)
무에 작용함이 천성을 온전히 하는 것이라네
(當無作用是天全)
진공은 두루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차 있거니
(眞空遍滿三千界)
십이인연 잡된 망념, 다 사라졌네
(妄念消磨十二緣)
마음은 옛 연못 같아 물결조차 일지 않고
(心似古潭波不起)
지혜 또한 명경처럼 항상 원만하네
(智如明鏡體常圓)
일 없이 계곡에서 한가로이 앉았으니
(谷中閑坐無餘事)
물이 허공 머금듯, 오히려 고요하구나
(定水含虛更寂然)

유, 무(有無)는 색과 공(色, 空)을 말하는 것이다. 〈반야심경〉에도 "색은 즉 공이며 공은 즉 색이라(色卽是空 空卽是色)"고 하지 않았던가. 하물며 통 승려는 수행이 높아 십이인연의 망상을 떨쳐낸 수행자란다. 그러기에 그의 경지는 "물이 허공 머금듯, 더욱 고요한 듯(定水含虛更寂然)" 적멸(寂滅)의 세계를 이뤘다.

한편 이승소가 진관사 주지와 나눈 교유의 정은 〈진관사 주지 명신이 부채를 보냈기에(津寬寺住持明信惠扇)〉에 자세한데 오래도록 사귄 이들의 교유는 유불(儒佛)의 독특한 인연을 드러냈다.

일찍이 선원에서 시로 명성을 들었더니
(曾從禪苑聽詩名)
깁부채를 보내 후한 정을 드러냈네
(紈扇今將寄厚情)
서로의 깊은 우정, 떨어져서 있는 걸 걱정 말고
(莫訝論交違兩地)
삼생에 업 맺었다는 걸 부디 아시게나
(須知結業在三生)
한가로이 운림 속에 누운 게 제일 부럽거니
(閑閑最羨雲林臥)
애 쓰면서 세상 그물 걸린 것, 매우 부끄럽네
(役役多慙世網嬰)
어느 때 방장의 부드러운 말 듣고서
(方丈幾時聞軟語)
조계의 물 빌려 나의 티끌 갓끈 씻으려나
(借曹溪水濯塵纓)

삼각산 진관사의 사명(寺名)은 원래 신혈사였다. 후일 진관사라 개명된 것은 진관 승려와 대랑원군(大良院君)과의 인연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바로 왕태후(경종의 비)가 자신의 소생을 옹립하기 위해 대랑원군을 죽이려 할 때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아 챈 진관이 대랑원군을 숨겨 주어 화를 모면했던 것. 후일 개경으로 돌아가 현종이 된 대랑원군은 1011년 진관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신혈사 자리에 대가람을 세웠던 것이다. 후일 진관사가 1463년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다시 중창된 것은 1470년의 일이다. 아마도 명신 승려는 진관사가 화재로 소실되기 이전에 주지를 지냈던 인물이 아닐까 싶다.

한편 이승소는 명신 승려와는 오랜 숙연이었던 듯하다. 그가 "서로의 깊은 우정, 떨어져서 있는 걸 걱정 말고(莫訝論交違兩地)/삼생에 업 맺었다는 걸 부디 아시게나(須知結業在三生)"라고 스스로 밝혔다. 더구나 부채는 단오절에 정 깊은 벗들이 주고받는 선물이다.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내라는 기원을 담은 정표였으니 이 또한 이들의 교유의 정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서로 도움을 주고자 했던 이들의 유불(儒佛) 우정은 이승소의 〈삼탄집(三灘集)〉에 자세하다.

신숙주와 함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편찬했던 이승소의 시문에는 조선전기 사대가의 품격과 함께 인간의 소통은 무변(無邊)이어야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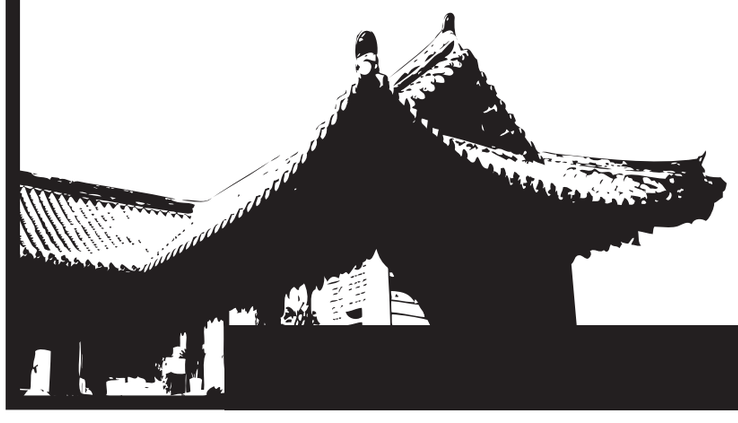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컴컴한 쪽방촌 문 활짝 연 까닭은…

그대는 자비보살

(사)쪽방촌도우미봉사회

변변한 공간도, 정기적인 후원도 없이 18년 간 '나보다 어려운 이웃 돕길 주저 말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 온 이들이 있다. 쪽방촌도우미봉사회다. 건물 옥상 임시천막, 가건물 등서 근근이 급식 조리를 이어왔지만 단 한 번도 '그만해야겠다' 생각한 적은 없다.

"아무 욕심 없으니 제발 쪽방촌 주민들을 계속 도울 수 있게만 해달라"는 게 쪽방촌도우미봉사회 박부득 팀장의 간절한 바람이다. 사회 가장 외진 곳서 묵묵히 자비행을 펼쳐온 그들을 만났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사단법인 쪽방촌도우미봉사회가 10월 20일 제16회 쪽방주민위안잔치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조계사붓다맘, 보현의집, 해군 통해사, 대관음사불교대학 등 소속 불자 40여명이 봉사행을 펼쳤다.

'국수 한 그릇'서 오간 사람사이 情

오피스텔과 백화점이 즐비한 영등포 시가지. 어디론가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로 24시간 다망하다. 최근엔 '뉴타운'이란 이름 아래 재개발사업이 가속화되며 투자지역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쪽방촌 주민들에겐 그저 '먼 나라 이야기'다.

영등포역 6번 출구를 나와 왼쪽 길을 따라 걸으면 쪽방촌 초입에 들어선다. 그저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면 될 것을 마을 입구를 알리는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이란 팻말 아래서 괜스레 침을 꼴깍, 긴장된 마음에 발길을 주저한다. 어차피 사람 사는 곳이거늘 제 아는지 모르는지, 보이지 않는 경계선 역할을 하는 애꿎은 팻말을 탓하며 다시 한 걸음 떼어본다.

10월 20일 영등포 쪽방촌을 찾았다. 이곳서 18년 간 봉사활동을 펼친 사단법인 쪽방촌도우미봉사회(팀장 박부득, 이하 쪽방도우미회)를 만나기 위해서다. 매년 가을 열리는 쪽방주민위안잔치가 개최된 이날도 쪽방도우미회를 비롯해 조계사붓다맘, 보현의집, 해군 통해사, 대관음사불교대학 등서 40여명의 불자들이 모여 봉사활동을 펼쳤다.

쪽방도우미회는 조계사 붓다맘봉사회의 전신이다. 1999년 당시 소년원 업무를 담당하며 삼동소년촌서 봉사행을 펼치던 강서경찰서 소속 김윤석 경위(당시 마포경찰서 강력4반 소속)와 박부득 팀장이 만난 것이 계기가 됐다. 일반인들이 쉽사리 찾지 않는 쪽방촌서 이들이 무엇 때문에 급식봉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을까.

박 팀장은 "도움 필요한 곳에 불자로서 밥 한 끼 나누는 게 그리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고 말한다.

"김 경위님을 알기 전부터 조계사 신도들과 함께 곳곳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저 '도움이 더 절실한 곳은 없을까'를 고민하던 차에 김 경위님을 만난 겁니다."

처음부터 급식배달을 한 것은 아니다. 초창기엔 10가구 남짓 독거노인들에게 쌀 20kg과 약간의 생활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반찬은커녕 밥 지어먹을 냄비조차 없던 쪽방촌 주민들에게 쌀은 무용지물과 다름없었다. 이에 쪽방도우미회는 길거리에 버너와 후라이팬을 펼치고 앉아 밥을 짓고 멸치를 볶아냈다.

"그러다 구(舊) 당산파출소 옥상에 자리 잡고 17년간 급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건물이 철거되며 지금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사람 쓸 돈이 없으니 발품 팔아 자재를 모으고, 우리가 직접 쪽방촌 한편에 주방시설과 법당을 만들었어요."

그마저도 가건물로 급히 만들어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상황. 쪽방도우미회는 외줄타기하듯 급식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기 후원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매주 목요일 급식을 만들 수 있단 사실이 그저 신기하고 감사할 따름이다.

1999년 '쪽방' 봉사활동 공식 시작

사회 곳곳서 자비행 펼치던

박부득 팀장, 김윤석 경위 만나

舊파출소 옥상서 17년 급식 나눔

정기 후원 없지만 전국서 재료 보시

"한 주 급식을 만드는 데 재료비가 약 150만원 들어요. 어쩔 땐 통장잔고가 부족해 '이번 주는 밥을 할 수 있으려나' 걱정하는데, 신기하게도 매주 전국 각지서 많은 분들이 황태, 쌀, 국수, 냉면 등 재료를 보시해주세요. 돈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조금씩 보내주시는 정성에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급식메뉴 중 단연 최고 인기는 바로 국수다. 주민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한 그릇 받아들면 그보다 행복할 수 없다며 미소 짓는다.

자신을 전과자라 밝힌 쪽방촌 주민 오OO(46·남) 씨는 "쪽방도우미회가 오는 목요일만 기다린다. 국수가 여태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다"며 "처음엔 세상에 마음을 닫고 살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공감해주는 이들이 있단 사실에 행복하다. 덕분에 불교도 깊이 공부하게 됐다"고 웃어보였다.

배식준비로 여기저기 분주한 쪽방도우미회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오 씨를 보며, 쪽방도우미회가 나눈 것은 배를 불리는 국수 한 그릇이 아닌 사람 사이의 정이오, 진심이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쪽방촌 주민들의 아들, 딸이 되다

세월이 세월인 만큼 쪽방촌도우미회는 주민들에게 아들딸이자 형님이고, 누나다. 혹여 밥 못 먹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가는 뒷모습을 돌이켜 '밥 먹었냐'고 다시 한 차례 확인받는 박 팀장의 모습은 다 큰 동생 챙기는 누이 같다. 20년 세월동안 주민들과 나눈 희로애락도 많았을 터.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무언지 물었다.

"조OO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2층 다락방에 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다 3년쯤 지났나. 그날도 급식 준비로 영등포 시장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계신 겁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어느 날 누가 좋은 곳에 살게 해준다며 데려갔는데, 알고 보니 할아버지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노린 나쁜 사람이었어요."

박 팀장과 김 경위는 그 길로 할아버지 손을 잡고 쪽방으로 돌아왔다. 비좁고 지저분한 공간이었지만 할아버지의 편안한 웃음을 보자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오래 집을 떠나있던 탓일까,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에게 치매가 찾아왔다.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를 인천 어귀 요양원에 모시고, 틈틈이 찾아뵀습니다. 근데 저희가 도시락 드리던 목요일만 되면 간호사를 통해 보고 싶다고 전화가 오셨어요…."

박 팀장의 말끝이 흐려졌다. 여느 목요일에도 급식 배달 준비에 여념이 없었는데, 요양원 간호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할아버지가 또 우리 보고 싶다 찾나보다'며 전화를 받았는데 돌아가셨단 소식이었다.

수제 햄머 Hammer

장인의 숨결이 담긴 고결한 햄머

입점기념 세일 BIG SALE

특징 100% 수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세상 하나 밖에 없는 나만의 동 제품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장인이 손수 망치로 두들겨 만든 햄머 제품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다른 제품들과 달리 우아하고 기품이 넘칩니다. 햄머는 코팅을 하지 않은 제품으로 자연적인 색깔변화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항균력이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는 성질을 가진 동, 햄머 제품은 대를 이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제조과정에서 오는 스크래치나 접합부의 땜자국 등 마감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햄머의 동 제품은 수작업으로 광택 정도나 수구의 모양, 크기 모두 약간씩 다를 수 있으며 만들 때마다 같은 빛깔을 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하오니 주문시 참고 바랍니다.





수제동 주전자 – S800 유광
주전자본체 : 90(W)×140(h)×800㎖
가 격 : ~~240,000원~~
→ 216,000원

수제동 주전자 – NY900 유광
주전자본체 : 105(W)×120(h)×900㎖
가 격 : ~~180,000원~~
→ 162,000원



드립퍼 – 고노형, 3~4인용
규 격 : 본체 가로 110×세로 95㎜
가 격 : ~~39,000원~~ → 89,100원



스푼 – 수제동 스푼 S
규 격 : 10g
가 격 : ~~15,000원~~
→ 13,500원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녁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 15만원
「중」 110×80×160㎜ 20만원
「대」 140×95×200㎜ 25만원

■ 재질 : 청동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3
■ 입금계좌 : 농 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도우미 17년 자비온정



쪽방촌도우미봉사회원들이 특식으로 마련된 육개장 배식 준비로 분주하다.



이날 재능기부로 사물놀이를 펼친 해오름예술단과 조계사 포교국장 서송 스님(사진 뒷줄 가운데), 김윤석 경위(사진 뒷줄서 맨 왼쪽) 모습.



쪽방촌도우미회는 19년간 舊 당산파출소 옥상서 급식을 준비하다, 지난해 영등포 쪽방촌 내 가건물로 이주했다.

"쓸쓸히 돌아가시는 어르신들 보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더욱 잘 챙겨드리려고 노력하는 게 저희 도리겠지요."

이처럼 쪽방도우미회는 급식 배달 뿐 아니라 독거 어르신들을 모시고 병원을 가거나, 도배 · 김장 · 주민등록증 발급 등 일상생활 전반을 돕는다. 어버이날엔 어르신들 가슴에 카네이션도 달아드린다. 이 때문에 목요일로 봉사활동일이 정해져있지만 거의 매일 쪽방촌을 찾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마나 살뜰히 챙기는지 주민들도 '누님', '형님'하며 가족처럼 의지하는 사이가 됐다. 특히 김 경위는 마을주민들에게 '큰 아들'과 '큰 형' 역할을 맡고 있다.

"어느 집에 누가 살고, 이름까지 다 알만큼 한 식구처럼 지내요. 20년이면 그야말로 가족과 마찬가지죠. 다른 위안잔치를 가면 혹여 사고날까봐 술을 주지 않는 곳도 많은데, 저희는 서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막걸리도 나눠줍니다. 그게 다 사람 사는 정이죠."

잔칫날인 만큼 특식으로 육개장이 준비된 이날도 주민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집중했다. 반면 쪽방도우미회는 그 누구도 한 자리에 가만 서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인상 깊었던 점은 일반 무료급식 현장과 달리 길게 늘어선 배식 줄이 없단 것이었다. 주민들은 번호표를 받아 자리서 기다릴 뿐 봉사자들이 밥과 반찬, 국이 담긴 식판을 직접 자리까지 옮겼다. 한 두 명도 아닌 몇 백 명의 급식판을 나르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 박 팀장에게 이유를 물었다.

"주민들 중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뜨거운 음식을 스스로 옮기기가 어디 쉽나요. 그저 어르신들이 편한 방법을 생각하다보니 처음부터 직접 가져다드리게 됐습니다."

불자들 한 데 모이니 그곳이 '불국토'

"서송 스님과 도반이에요", "불교대학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왔어요", "김 형사님 통해 알게 돼 함께 왔어요."

이날 전국 각지서 모여든 봉사자들에게 쪽방도우미회에 합류하게 된 계기를 묻자 열이면 열 같은 대답을 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쉽게 찾아오기 어려운 곳에 이 많은 불자들이 모인 것은 '도반이 좋은 일을 한다기에'가 유일한 이유였다. 혼자선 선뜻 마음내기 어렵지만, 불자들이 한 데 모이니 못할 일이 없었다.

쪽방도우미회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조계사 붓다맘봉사회는 이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준비했다. 조계사 포교국장이자 붓다맘봉사회 지도법사인 서송 스님은 "말로만 나누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우리 신도들이 매주 목요일 좋은 일을 한다고 하니, 나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시간될 때마다

친구 따라 불국토 가다

연례행사 때마다 많은 봉사자 필요

'좋은 일은 함께' 불자들 모여

대관음사 · 보현의집 등서 동참

"많은 스님들도 함께해주길"

함께한다"고 말했다. 이날 육개장 배식을 맡은 서송 스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신도들과 좋은 일을 함께한단 사실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해군 통해사는 서송 스님과 도반인 영범 스님이 신도들의 손을 잡고 이날 처음 함께했다. '영등포서 불자들이 좋은 일을 한다더라'는 말에 순식간에 20여명의 봉사자가 모집됐다.

서송 스님 옆에서 함께 육개장 배식을 하던 영범 스님은 "힘들지만 부처님 정법대로 살아가는 불자들을 보니 오히려 힘이 난다"며 "좋은 사람 옆엔 또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법이다. 앞으로도 쪽방도우미회 활동에 지속적으로 함께할 것"이라 말했다.

대관음사불교대학은 올 7월부터 함께하게 돼 매주 5명 정도의 고정멤버가 생겼다. 대공화(법명 · 69) 보살은 "퇴직 후 불교공부나 해보잔 생각으로 신행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도반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한다"며 "처음엔 쪽방촌으로 들어서는 길이 무섭기도 했지만, 지금은 열악한 환경서 살아가는 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빈부에 상관없이 모두 귀한 존재들 아니겠느냐"고 웃어보였다.

3년 간 쪽방도우미회 활동을 이어온 안소연(56) 씨는 이날 불교대학 1학년 도반 안병학(55) 씨의 손을 이끌고 함께했다. 책으로 배운 부처님 정법을 봉사로 실천하는 데, 도반이 함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었다. 두 사람은 이날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각각 수건 1000장과 후원금을 지원해 쪽방도우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앞으로도 공부와 봉사행을 이어나갈 거예요. 좋은 날, 좋은 일을 도반과 함께하니 금상첨화가 따로 없네요."

아울러 이날 주민들의 흥을 돋운 해오름예술단은 매년 위안잔치마다 재능기부로 사물놀이 공연을 펼쳤다. 송지식 단장은 "김 경위님과 인연으로 좋은 일을 함께하게 돼 단원들도 매우 행복해한다.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쪽방도우미회와 함께할 것"이라 전했다.

이처럼 함께 자비행을 펼치며 행복해하는 불자들을 보며 김 경위는 뿌듯하고도 감사하다고 한다.

"봉사를 하고 싶어도 어디서 할지 몰라 포기하는 불자들이 주변에 꽤 많습니다. '쪽방촌 봉사활동을 가자'하면 선뜻 나서주니 고마울 따름이지요. 그들을 모아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실천할 수 있단 사실만으로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특히 박 팀장은 재가자들의 자비행에 많은 스님들이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스님들이 좋은 일에 나서면 더 많은 불자들이 따를 것이란 게 이유였다.

"쪽방촌은 다른 곳보다 더욱 힘들고 열악하기 때문에 정말 큰마음을 내지 않으면 계속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이 먼저 원력을 세우고 함께해주시면, 세상에 더 많은 보살님들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니까야서 길을 묻다 지혜란 무엇인가 ②

제대로 알고 볼 때 지혜 열려

우리들의 삶은 '감각기관'의 문(門)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감각 대상'을 마주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인도인들은 감각기관의 존재를 '외부 대상을 알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에서 '인드리야'(Indriya)라고 불렀다. 이 말은 고대 인도신화에 등장하는 전쟁의 신 '인드라(Indra, 帝釋天)와 유사한'이라는 뜻이다.

인드라신은 천둥과 번개를 다스리고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기 때문에 인도의 종교 문헌에 등장하는 신들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우리들의 감각기관이란 마치 인드라신이 출현하여 비를 내려주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과 같다는 발상에서 나온 말인 것이다. 중국인들은 이 말을 '뿌리'(根)로 옮겼다. '외부의 대상세계'(境)를 아는 작용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을 꾸려가는 '뿌리'에 해당된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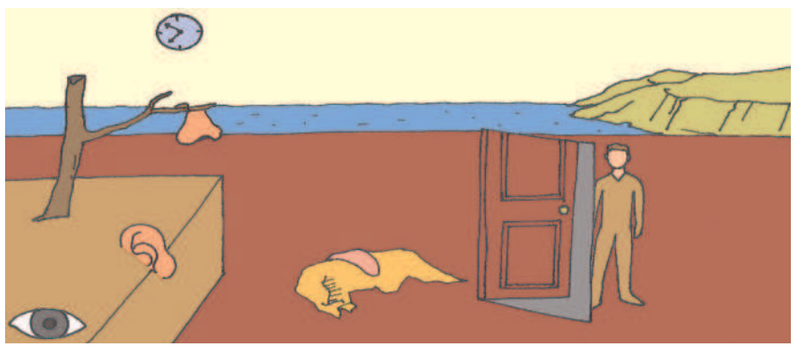


그림 · 나은영

전통적으로 불교에서는 인드라신과 유사한 이 감각기관을 여섯으로 파악하였다. '눈(眼), 귀(耳), 코(鼻), 혀(舌), 몸(身), 의식(識)'이다. 이 여섯의 문은 제각각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 눈은 '보인 것'(色), 귀는 '들린 것'(聲), 코는 '냄새난 것'(香), 혀는 '맛본 것'(味), 몸은 '감촉된 것'(觸), 의식은 '인식된 것'(法)을 그 대상으로 한다.

중국인들은 불교경전을 한역하면서 '여섯 감각기관'(六根)이 각각 받아들이는 여섯 가지 대상을 육경(六境)이라고 옮겼다. '감각대상'(境)에 해당하는 팔리어 원어는 'visaya'인데, 팔리어 사전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그 어원을 동사어근 'viṣ(움직이다 · 활동하다 · 붙잡다 · 받아들이다 · 먹다)'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한다.

이 풀이에 따르면, '대상세계'(境)란 '움직이고 있는 것'이며, '감각기관으로 붙잡아 받아들이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장소, 지역, 영역, 경계'라는 의미에 주목하여 이를 '경(境)'으로 번역하였던 것이다. 이 '여섯 가지 감각기관'(六根)이 '각각의 대상세계'(六境)를 만나 이루어지는 '열두 가지를 토대로 인식 작용이 이루어지는 영역'(十二處)을 '모든 것'(一切)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一切)은 이 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는 우리의 감각기관 밖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감각된 것, 의식된 것, 인식된 것'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이 대상들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인간들의 삶의 질감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니까야/아함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 열두 가지 영역을 그 범위로 한다. 〈잡아함〉 제319경의 서술에 나오듯이, 이 열두 가지 영역을 넘어서는 존재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말일 뿐 앎의 영역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지혜로써 알아야 할 대상 세계는 지금 눈앞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며, 우리들의 감각기관이라는 문으로 들어오는 너석들이다. '행위 단속의 영역'(戒學)과 '명상의 영역'(定學)이 '갖가지 감각기관의 지킴'(諸根守護)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 '지혜의 영역'(慧學)에서는 '모든 것'이라고 부르는 대상세계의 움직임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계율을 잘 지키면 명상을 잘 닦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율만 잘 지키면 명상 또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명상은 지혜의 길을 열어가는 하나의 열쇠이지 그 자체가 만능열쇠나 자동열쇠는 아니다. 지혜로 가는 길은 우리 눈앞에서 움직이고 있는 저 대상세계를 제대로 보고 아는 데 있다.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유식·중관 치우친 견해를 짓다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기신론의 주소 가운데 유일하게 실차난타가 번역한 신역을 의지해서 기신론을 해석한 사람은 명대(明代)의 우익지욱(藕益智旭, 1599~1655)이다.

그는 운서주굉(雲棲 宏, 1535~1615), 자백진가(紫栢眞可, 1542~1603), 감산덕청(憨山德淸, 1546~1623)과 명대의 4대 고승으로 불린 후대의 인물이다.

지욱은 출가하기 전에는 한때 유학에 심취하여 벽불론(闢佛論) 등 불교를 비방하는 글을 쓴 적도 있으나 17세 때 유·불·도 삼교가 근원이 같다는 삼교동원론(三敎同源論)을 주장한 운서주굉의 〈자지록서(自知錄序)〉와 〈죽창수필(竹窓隨筆)〉을 읽고 불교에 귀의하면서 먼저 쓴 배불론적인 서적들을 모두 소각하였다 한다. 부모를 위하여 〈약사경〉과 〈지장경〉을 독송하면서 출가의 원을 일으켜 24세 때 감산덕청의 제자인 설령(雪嶺)을 은사로 출가했다. 그는 〈능엄경〉, 〈유식론〉 등을 공부하고 상(相)과 성(性)에 대해 깊이 연구하여 '성상융회론(性相融會論)'을 주장하였다. 그의 열망소(裂網疏)가 바로 그러한 취지에서 쓰여진 주소(注疏)이다.

열망소의 특징은 유가파의 입장에서 내세우는 유식설이나 중관파에서 내세우는 공관의 이치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견해를 타파하는 입장에서 쓴 주소라는 점이다. 열망(裂網)이란 말이 '그물을 찢어버린다'는 뜻인데 유식의 입상(立相)에만 치우친 견해와 중관(中觀)의 파상(破相)에만 치우친 두 견해는 모두 모두 어리석은 미혹이므로, 이 어리석은 두 견해를 찢어버린다는 뜻에서 열망소라 이름을 붙인 것이다.

지욱은 이 소에서 기신론은 유식과 중관이 모두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논서라고 그 성격을 밝히고 기신론의 대의가 유식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자 했던 것이다.

지욱은 원래 천태종 스님이었다. 그는 열망소에서 천태, 화엄, 유식, 중관 등의 대승사상을 종합적으로 인용·회통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천태종의 입장에서 다른 교의들을 융섭하려고 한 경향이 농후하다고 후대에 와서 그의 소를 평가하고 있다.

원효소에서도 기신론의 내용을 두고, 유(有)에 치우지지도 않고 공(空)에 치우치지도 않은 논이라고 말하고 있다. 열망소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중국의 근대 신불교운동을 주도한 '중국불교 부흥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양문회(楊文會, 1887~1911)에 의해서이다. 그는 각종 기신론 주소들을 교감 · 정리하여 불교연구의 근본으로 삼고자 했다.

실치난타 신역 의지한 열망소
유식·중관 모두 동일함을 밝혀

그때 간행된 것이 진계(眞界)의 〈기신론찬주〉 2권, 덕청의 〈기신론직해〉 2권, 그리고 지욱의 〈기신론열망소〉이다. 양문회는 만년에는 기신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신론소해회집〉을 간행하였다. 그 안에는 기신론의 두 한역본, 〈석마하연론〉, 법장의 〈기신론의기〉와 〈별기〉, 원효의 〈기신론해동소〉, 진계의 〈기신론찬기〉, 덕청의 〈기신론직해〉, 그리고 지욱의 〈기신론열망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욱은 경·율·논 삼장에 걸쳐 많은 저술을 남겼다. 현존하는 그의 저술은 모두 50부 191권이나 된다. 천태교학을 비롯하여 논리학, 의례, 개론서, 유교, 논설, 시 수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그의 저술이 남아 있다. 그는 열망소 권1의 서문에서 규봉종밀의 교판(敎判)을 비판하고, 성상불이론(性相不二論)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마명의 기신론을 용수나 세친의 사상보다도 높은 것이라 하여 기신론이 성종과 상종의 근본사상을 겸비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용수의 반야사상을 지혜를 따르는 수지설(隨智說)이라 하였고, 세친의 유식사상을 뜻을 따르는 수정설(隨情說)이라 하여 기신론의 심진여문이 수지설이며, 심생멸문이 수정설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리에서 그는 기신론을 성상종지(性相摠持)이며 원극일승(圓極一乘)의 논서라고 극찬하였다. 그는 또 기신론 이역(二譯) 가운데 실차난타의 신역이 뛰어나다는 주장도 하였다. 서문에서 양나라 진제역과 당나라 실차난타역의 두 본을 비교하면 실차난타역이 뛰어나지만 옛날부터 두 본이 유통되어 왔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중생 위해선 보살은 열반도 버린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㊹ 일체를 희사하는 것은

捨一切品第十(사일체품제십)

菩薩大有財物無有乞者。喚之不來菩薩思惟。故當斷諸結使無有來者。菩薩悲心。一切眾生眾苦圍繞。發願度諸眾生。菩薩諸有所索一切皆捨無物不與。欲求佛智最上救濟一切眾生。尊有勝悲心欲行救濟何物不捨。有悲心者為他故涅槃尙捨。況復捨身。捨身命財有何難也。捨財物者不如捨身。捨身者不如捨於涅槃。涅槃尙捨。有何不捨。悲心徹髓得自在悲。作救濟者大菩薩施都無難也。是一切眾生最親與他作向樂因。悲者一切都捨離諸疲勞。一切眾生ßk濟。怨親平等身命尙與。何物不捨。(보살대유재물무유걸자. 환지불래보살사유. 고당단제결사무유래자. 보살비심. 일체중생중고위요. 발원도제중생. 보살제유소색일체개사무물불여. 욕구불지최상구제일체중생. 존유승비심욕행구제하물불사. 유비심자위타고열반상사. 황부사신. 사신명재유하난야. 사재물자불여사신. 사신자불여사어열반. 열반상사. 유하불사. 비심철수득자재비. 작구제자대보살시도무난야. 시일체중생최친여타작향락인. 비자일체도사리제피로. 일체중생진제. 원친평등신명상여. 하물불사.)

번역

일체를 희사하는 것에 대한 품 제 10

보살이 큰 재물이 있고 구걸하는 이가 없어 불러도 오지 않으면 보살이 생각하기를 "응당 모든 얽매인 것을 끊어 버리고자 하나 찾아오는 이가 없구나"합니다. 보살은 자비심으로 일체중생을 둘러 에우며 중생 제도하기를 발원합니다. 보살은 무엇이든 찾는 바가 있으면 일체를 다 희사하여주지 못할 것이 없으며, 바라고 구하면 부처님 지혜인 최상으로 일체 중생을 구제합니다. 존귀하고 수승한 자비심으로 구제를 행하고자 하면 무엇이든 주지 못하겠습니까. 자비심 있는 이는 남을 위하기 때문에 열반도 오히려 버리거니와 오히려 다시 몸을 버리고, 몸과 목숨과 재물인들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재물을 희사하는 것이 몸을 희사하는 것만 못하고, 몸을 희사하는 것이 열반을 버리는 것만 못하나니, 열반도 오히려 버리거니와 버리지 못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비심의 투철한 골수로 자재한 자비심을 얻거니와 구제하는 이는 대보살로 모두를 보시함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은 일체중생을 가장 친근히 하는 것이요, 더불어 남을 항상 즐겁게 만드는 까닭이 됩니다. 자비로운 이는 일체를 모두 희사하되 모든 피로함을 떠나며, 일체중생을 참으로 구제하되, 원수나 친한 이나 평등하여 몸과 목숨도 항상 주거니와 하물며 어떤 물건이든 희사하지 않겠습니까.

해설

보살이 열반을 버리는 경우는 과연 언제든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려 할 때 열반을 버린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것과 같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자신의 몸의 일부도 떼어준다. 때로는 몸과 목숨마저 희생하기에 이른다.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기에 자신의 행복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버린다. 이 세상에서 보살을 찾는 일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내 부모님을 보면 그 분들이 보살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부모들은 자식과 부모라는 좁은 세계의 보살이지만, 그 보살심을 온 세상으로 확장하고 넓힌다면, 그가 바로 불보살일 것이다. 하물며 재물 때문에 남에게 해코지를 하겠는가. 진정한 수행자는 자신의 열반 따위는 이미 버린 지 오래여야 하리라.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오늘의 부처님 되어

사람의 백팔번뇌는 소유욕으로부터 비롯된다. 사람이 앓는 모든 병은 집착으로부터 시작된다. 소유욕과 집착은 본능적인 욕구이면서 생리적 성취욕만큼 뿌리가 깊다. 모으고 이루고 갖고자 하는 욕구는 삶의 활력소일 수 있다.

끌어당김으로 쌓아둔 물질적 풍요는 끈질긴 노력의 결과물이라 더욱 소중할 터이다. 그러긴하나 물질적 풍요는 정신적 빈곤을 불러들인다. 넘치면 탈이 나고 지나치면 화(禍)를 불러들이기 때문이다.

소유욕과 집착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가끔씩 방안의 책상정리를 시도해보자.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치우거나 나누어 주거나 버리는 일을 행동으로 옮겨가 보자. 처음엔 머뭇거리게 되고 망설이게 되겠지만 마음을 청소하듯 책상의 크고 작은 물건을 치우며 개운함을 느낄 터이다.

다음으로 옷장과 신발장을 정리해보자. 두 개이면 하나는 나누어주자.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용기를 실천해보자. 신기하게도 비운만큼 개운하고 나눈 만큼 기쁠 터이다.

유행가 노래 가락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본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떠나는 허무의 존재이다. 누구는 말할 것이다. 빈 주머니가 되면 기(氣)도 죽고, 힘도 없고 살맛나지 않는다고. 현찰은 현대의 엄연한 신(神)과 같은 존재라고. 오고가는 현찰이 있어야 우정도 애정도 의리도 오래가는 현실이라고.

그러나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을 정도의 생활이면 넉넉한 것이다. 나눔을 실천하고 적은 것으로도 만족을 알면 성경구절처럼 빵과 생선은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우고도 남는 법이다.

남방불교의 수행법처럼 마음 챙김과 그침과 관찰의 알아차림이 생활화 되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더러는 흔들리고 때로는 헐떡이는 존재이다. 다만 그럴 때마다 챙김과 그침, 알아차림으로 습관의 고리를 끊도록 노력해야 한다. 넘치는 것은 부족함만 못한 것이다. 적은 것으로도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만족하는 마음이 행복과 자유를 불러들이는 것이다. 사람이 사는 이유도 행복을 위해 자유를 위해서이다.

부처님의 경전에서 만날 수 있는 구절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한 말뚝에 두 번 넘어진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 사람을 잘못 사귄 뒤의 후유증"이란 말씀을 명심해야 한다.

부끄러운 일이 줄어들수록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다. 정직과 진솔함으로 나눔과 비움을 실천하는데서 자비와 사랑은 평화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다. 보시(布施)는 남을 위해 나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나눔으로 개운해지는 나를 위한 행위이다.

비닐 봉지에 물고기 몇 마리 넣어두었다가 강물에 풀어주는 것이 방생(放生)의 바른 실천은 아닐 터이다. 매듭을 풀어주고 막힌 곳을 뚫어주며 목마른 자에게 물이 되고 배고픈 자에게 밥이 되는 행위가 방생의 바른 실천일 것이다. 어떤 수행승이 노후대비라며 비상금을 모으고 쌓아둔다면 그는 속물근성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얼간이 중생이다.

수행승에겐 노후가 없다. 오로지 오늘의 지금이 있을 뿐이다. 또한 노후대비는 비상금이 아닌 수행력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

소유욕을 앞세워 살아가지 말길
윤회서 벗어나 자유인으로 살라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이란 말이 있다. 선가(禪家)에서 즐겨 쓰는 말이나 본래 내 것은 없는 것이다. 재물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그 변화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바보는 돈을 밝히고 명예를 따르다 건강을 잃는 사람일터. 건강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들숨과 날숨이 항시 헐떡임 쪽에 기울고 있다면 그는 머저리 등신일 뿐이다.

거기다가 조직 관리하고 세력 확장으로 밤잠까지 설치며 허세부리는 자가 있다면 그는 업덩이 중생으로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 뼈저린 후회로 피눈물을 흘릴 자이다. 나누면 개운하다. 비우면 편안하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드러내고 감출 것 없이 오늘의 주인공으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넉넉하게 살 일이다.

불교는 오늘의 종교이다. 사람이 부처이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소유욕을 앞세우며 집착하지 말일이다. 생각의 윤회에서 벗어나 오늘의 부처님 되어 자유인으로 살 일이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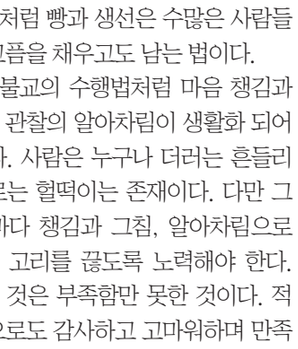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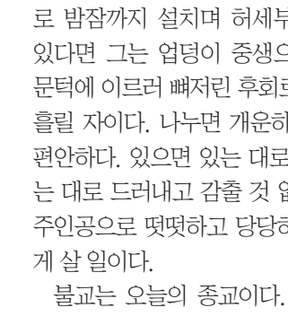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천천히 걷는 걸음에 담긴 禪의 이치

禪과 현대미술
㉑ 마우저(Mauser)

햇볕이 화창한 날에 산속을 산책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걸어가는 동안 무슨 생각을 하든 자연의 맑은 공기가 온몸에 퍼져 새로운 자극을 주기 때문이다.

마우저(Mauser, 1932~, 독일)는 보행선을 예술로 승화한 작가이다. 유럽에 스즈키 다이세츠의 영향으로 불교와 선사상이 새로운 철학으로 각광을 받던 시기에 마우저는 처음 선사상을 접하고 깊은 고뇌를 하게 된다.

당시 독일에도 불교와 선사상이 확산되기 시작하며 'ZEN STIL(선스타일)'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때이다. 'Wahren Selbst(진정한 자아)', 'Wahren Natur(진정한 자연)'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된 마우저는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수용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무대예술을 공부하며 가상의 공간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극장에 마련된 무대는 연극의 내용을 받쳐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며 가상의 공간성을 제공하여 관객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점차적으로 가상의 공간과 진실한 공간의 관계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며 진실한 공간의 의미를 찾아가게 된다. 가상의 공간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인위적인 공간이다.

이러한 가상의 공간이 모두가 가짜이거나 허상인 것은 아니다. '어떠한 인위적인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공간일지라도 그 속에는 진정한 진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그는 하게 된다. '그러면 진정한 공간은 어떠한 공간인가? 자연의 공간인가? 아니면 인공적인 공간인가?' 등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되며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공간에 대하여 그는 깊이 있게 인식하기 시작한다.

마우저는 명상으로 공(空)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텅 비어있다고 하는데 세상은 온통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왜 모든 것이 비어있다고 하는가? 이러한 사상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그에게 공은 또 하나의 개념으로 인식되게 됐다. 비어있다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그대로 있지 않고 변화하여 사라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비어있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마우저는 선사상의 영향을 받아 스스로 명상을 하며 진정한 자아에 대하여 깊이 있게 성찰하게 된다. '진정한 자아는 어디에서 오는가? 아니면 학습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 것인가'. '지금의 나는 진정한 자아가 결핍되어 있는가' 등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 시작된다. 그러한 과정과 더불어 예술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시도한다. 무대미술, 설치, 조각, 회화, 행위예술, 건축 등 그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가 줄곧 관심을 가지는 것은 공과 공간이었다. 다시 말해 공간 속에서 공의 개념들을 설정하고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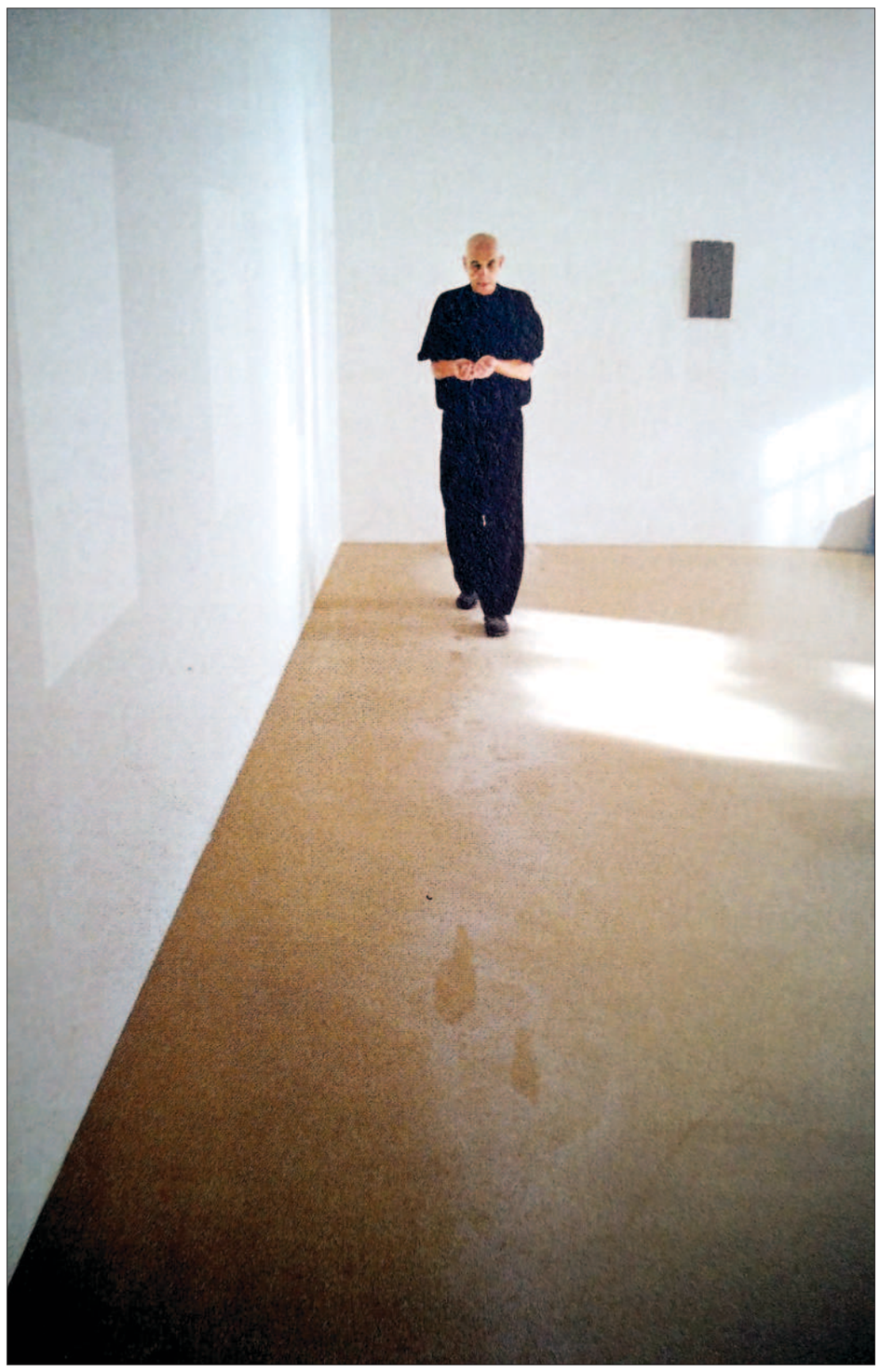
예술가로서 독일을 제외한 유럽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마우저가 유명세를 타게 된 계기는 '선사상이 서양예술에 미친 영향(Zen und die westliche Kunst)'이라는 제목으로 보쿰미술관서 2000년 진행된 전시에 참가하면서 부터이다. 여기에는 세계적인 인지도가 있는 이브 클라인(Yves Klein), 리처드 롱(Richard Long), 에드 라인하르트(Ad Reinhardt), 존 케이지(John Cage),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 등 최고의 예술가들이 참가하게 되는데 공통점은 이들이 선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많은 비평가들이 선적 개념과 연결하여 그 특성들을 개념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면서다. 이 전시 이후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많은 예술가들이 선사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전시이다.

당시 독일에 유학하고 있던 필자도 이 전시를 직접 볼 수 있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미술관에서 전시를 기획하며 많은 토론과 세미나, 자료수집 등 약 5, 6년의 시간동안 많은 학자, 평론가, 철학자 등이 준비하였다는 것이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검증된 예술가들이 전시에 참가하면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여 좋은 전시를 이루게 되었다. 전시장에서 세계적인 작품들을 직접 본 필자는 역사의 한 중심에 서있는 느낌이었다. 당시 필자가 뒤셀도르프 쿤스트 아카데미에서 선과 현대미술에 관하여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전시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나아가서 필자가 선과 현대미술에 대한 확고한 개념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던 전시였다.

불교 접하고 空사상 이해 노력
'공간 속 空'을 예술 개념 승화
"명상 통해 眞我 만난다" 강조
관념적인 현대인에 신선한 자극

마우저의 작품을 처음 접한 것도 이 전시장에서이었다. 마우저는 〈해안의 한 부분에서 모래를 운반(Sand von einem Teil des Strandes zum anderen tragen, 2000)〉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선보였다. 햇볕이 드는 건물의 공간에서 해안에서 가지고 온 모래를 보행하며 조금씩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는 행위예술이다.

모래가 바다에 있을 때에는 수많은 모래 중의 일부분이었다. 하지만 그 중 일부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여 조금씩 바닥에 떨어져 모래의 존재들이 느껴지게 되는 과정에서 그 모래 위에 그가 걸음을 걸어가는 흔적들이 그대로 남게 된다. 모래 위에 남겨진 흔적들은 행위가 반복되는 동안에 사라지고 생겨나기를 반복한다. 그러한 반복되는 행위 속에서 작가는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마우저의 이러한 행위는 다분히 선적이다. 공간 속에 설정된 내용들은 비어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다. 텅 빈 공간에 들어가면 그 공간이 비어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공간은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 공간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텅 빈 공간 속에서 아주 작은 모래알을 흩어놓는 행위를 통하여 그 공간은 확장이 된다. 즉, 작은 모래로 인하여 공간을 인식하는 생각이 변화하여 공간이 작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우저의 작품인 〈해안의 한 부분에서 모래를 운반(Sand von einem Teil des Strandes zum anderen tragen, 2000)〉은 햇볕이 드는 건물의 공간에서 해안에서 가지고 온 모래를 보행하며 조금씩 떨어뜨리는 행위 예술이다.

마우저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통하여 공은 관념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공이라는 것이 비어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다는 것, 즉 시간성과 공간성의 교착점을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의 관념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오류를 인지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느린 시간성을 통하여 공간이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인식의 변화도 이와 동일하게 변화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존재하는 것이 변화한다는 인식은 하면서 그것이 사라지고 다시 생겨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일상의 삶의 과정에서 쉬운 일은 아니다. 자신의 체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다. 그는 변화를 공의 개념으로 설정하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절대성과 상대성의 개념이 아니며 존재와 비존재의 관점마저도 넘어서는 선적 관점들이 그의 이러한 행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행한 행위들이 촬영이 되어 그가 행위를 한 흔적과 함께 그 영상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 반복되는 영상 속에서 관객은 어떠한 변화를 인지할 수 있을까? 시간성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반복되는 영상의 이미지들은 계속해서 그의 행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을 보는 관객은 시간이 흐름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그 영상이 끝나고 다시 처음으로 나타나는 시간까지 짧은 시간 동안의 정적이 관객으로 하여금 지금 자신이 보았던 영상들을 생각하며 깊은 침묵 속에서 사라짐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진정한 자아는 언제 느낄 수 있는가? 작품을 보는 순간인가? 아니면 영상이 반복되는 시간인가? 아니면 행위가 끝나고 남아있는 모래위의 흔적인가?

그는 명상을 통하여 진정한 자아와 진정한 자연을 만나고자 한다고 하였다. 마우저가 이와 같은 행위예술을 통하여 진정한 자아를 찾았는지는 알 수 가 없다. 하지만 그의 작품을 보면서 필자는 그가 추구하는 진정한 자아와 공이 둘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진정한 자아는 자아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 즉, 공의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필자가 독일에 유학하던 당시 독일 선방에서 같이 선을 하던 도반들에게 '자아가 없는데 어떻게 공을 인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때 필자가 인용한 것이 '진공묘유(眞空妙有)'이다.

현재 존재하는 것이 우월적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서양식 사고에서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도 동일한 관계를 형성한다고 설명을 하였다. 예를 들면 지금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생각일 뿐이다. 하지만 내일이 되면 다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같지 않은 데 그 생각이 현실에서 활용되는 것은 어제의 생각이든 오늘의 생각이든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해 지금 존재한다는 것이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 또한 영속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타날 때가 되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붉게 물든 저 낙엽들이 처음에는 초록색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색이 변화한 것이다. 이처럼 모든 것은 변화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속에는 항상 변화하는 이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우저의 작품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행하여지는 예술가의 행위들이 관념적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고 있다.

윤양호(원광대 선조형예술학과 교수)

2017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주) 아트지·스노우지로 제작!!
좋은 종이 가장 싼 제조원가 가격으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달력 가격 대폭 인하해 드립니다.

12절 258㎜×265㎜

100부 이상 @1,000원

3천부 이상 @800원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 54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H.P 010-3554-2988, 070-7425-051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달력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 : 121068-56-042256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不二’ 조각으로 종교 본령을 묻다



박상희 작가의 ‘피에타_不二’. 반가사유를 한 부처가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은 대립이 아닌 화합과 평화의 종교를 이뤄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박상희 작가, ‘不二’ 개인전

예수를 안고 있는 부처상
대립 아닌 공존의 메시지
도끼 위 놓인 작은 불상서
‘殺佛殺祖’ 날선 정신 담겨
11월 25일까지 NEMO서

종교는 인간의 정신문화를 담당해 온 유구한 역사이며 문화이다. 태고의 선지자들의 말씀은 경전이 돼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과 윤리에 작용한다. 그러나 이면을 살펴보면 종교는 대립과 갈등의 역사이기도 하다. 중세 유럽의 십자군 전쟁부터 현대의 종교를 기반한 테러리즘까지 근본주의적 종교가 보여주는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여기서 한 예술가는 의문을 던진다. “종교와 인간, 그리고 신이란 존재는 무엇인가? 인간 위에 군림하는, 각각 다르다는 그 신을 위해 서로 죽이고 희생을 해야 하는 이 현실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그리고 도발적인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그리고 그 상상은 예수를 안고 있는 부처, 인간(혹은 예수)를 보듬는 관음 등으로 표현돼 나타난다. 이 같이 너와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지향은 달라도 목표는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불이(不二)’의 조형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된다.

박상희 작가는 오는 11월 25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 내 복합문화공간 NEMO에서 ‘불이(不二)’를 주제로 14번째 개인전을 개최한다. 박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서 자신의 역사 · 철학 · 종교 · 예술적 관점과 상상력을 투영해 낸 조형 작품들을 대거 선보인다.

그의 작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여러 사유를 가질 수 있게 한다. 반가사유를 한 부처가 예수를 안고 있는 작품 ‘피에타_不二’와 도끼날 위에 작은 불상을 놓은 ‘내안의 부처를 도끼로 쳐라’ 등이 대표적이다.

박 작가의 작품 ‘피에타_不二’의 경우 로마 산피에트로성당 입구에 위치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피에타는 이탈리아어로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이다. 부처가 예수를 안았던, 예수가 부처에게 안겼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종교가 가지는 본령과 지향점은 하나다. 인간의 행복과 안녕이다.

박 작가는 “신이 만든 인간, 인간이 만든 신, 그 사이에서 인간의 갈등과 이념과 종교 간의 분쟁이 종식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었다”면서 “대립의 종교가 아닌 사랑하고 함께 하는 세상을 꿈꾼다”고 밝혔다.

‘나는 무엇인가’라는 불교적 화두를 던지는 작품들도 눈길을 끈다. ‘내안의 부처를 도끼로 쳐라’는 당나라 말기의 고승 임제의현의 법어인 ‘살불살조(殺佛殺祖)’를 떠오르게 한다.

부처와 조사라는 관념에 집착하면 현재를 망각해버릴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것이다. ‘내안의 부처’라는 또 다른 미혹에서 벗어나라는 작가는 메시지가 인상적이다.

전시를 담당한 정형탁 큐레이터는 “박상희 작가의 작품 속에서는 동일성과 차이에 대한 이야기가 단박에 들어온다”며 “종교(Religion)의 어원이 ‘이어주다(Relier)’에서 파생됐듯이 종교는 분리보다 연결, 이어짐을 전제로 한다. 작품은 이러한 경계, 구분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02)6399-7459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작품 ‘내안의 부처를 도끼로 쳐라’는 ‘미혹을 벗어나라’는 화두를 던진다.

BTN라디오 ‘울림’ 채널 방송 ‘START’

11월 1일부터… 혜민 스님 등 유명 MC 대거 참여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가 운영하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이 채널을 신설하는 등 확대 · 개편에 들어갔다.

BTN은 BTN불교라디오는 ‘울림’ 채널을 신설해 11월 1일부터 공식 첫 방송을 시작했다. ‘울림’ 채널은 다음세대를 위해 10~30대를 대상으로 하는 젊고 활기찬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청취자 간의 소통과 청취자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하는 등 불교라디오만의 특장점을 살렸다. 특히 국민 멘토 혜민 스님을 비롯해 자신만의 콘텐츠로 무장한 스님들이 대거 MC로 참여해 눈길을 끈다.

혜민 스님은 ‘마음의 선율 혜민입니다’라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월~금 오전 8시 청취자들을 찾아간다. 클래식 전문가로도 잘 알려진 진명 스님(前 조계종 문화부장)은 ‘아름다운 세상 진명입니다(매주 월~금 오전 9시)’를, 어라 스님 만화로 유명한 지찬 스님과 효산 스님은 음악과 토크가 결합된 ‘어라차차 신나는 붓다(매주 토 · 일 오후 1시)’를 진행한다.

이밖에도 △그대에게 이르는 길 운성입니다(매주 월~금 오전 7시) △도연 스님과 김효선의 향기로운 만남 (매주 월~금 오후 1시) △스토리 불교뉴스 (매주 토~일 낮 12시) △본격스님 토크쇼- 야.자.수(매주 토~일 오후 2시) △강민석의 잠시 동안을 위한 음악(매주 토~일 오후 3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인터넷 방송인 BTN불교라디오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나 애플 앱 스토어(아이폰)에서 ‘울림’으로 검색해 다운받아 청취할 수 있다.

BTN불교라디오 관계자는 “BTN은 이번 BTN불교라디오의 ‘울림’ 채널 신설을 계기로 스마트 시대에 맞는 다음세대 포교활성화에 더욱 더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2)3270-3464~6 **신성민 기자**

佛寶 통도사 장엄세계를 만나다

노재학 작가, 11월 26일부터 통도사 성보박물관서 사진전

통도사 11개 전각 세부 촬영
3부에 나눠 40여 점 선보여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진신사리와 금란가사를 모셔와 봉안한 천년 고찰, 양산 통도사. 불보사찰 통도사의 구석구석에 숨겨진 또 다른 보물들을 만나는 자리가 마련된다.

노재학 불교사진작가는 11월 26일부터 12월 25일 한달간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통도사의 장엄세계, 적멸의 빛’ 사진전을 개최한다.

‘통도사의 장엄세계, 적멸의 빛’ 사진전은 한 작가가 통도사를 10여 년 넘게 다니며 쌓은 두터운 시간의 내용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이번 사진전에는 노재학 작가가 찍은 통도사 장엄물 사진 40여 점이 1부 ‘신령과 생명력’, 2부 ‘예경과 공양의 빛’, 3부 ‘적멸의 빛’으로 나뉘어 선보인다.

전통사찰과 나무, 문화재 등 불교문화유산 사진을 찍고, 이에 대한 시, 산문을 쓰고 있는 노 작가는 1년 365일 중 300여 일을 길에서 보낸다. 많은 사찰을 찾는 그가 가장 많이 찾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찰이 바로 통도사이다.



통도사 대웅전의 천정 세부 사진, 노재학 作

노 작가는 “불전건물에는 종교, 철학, 예술, 시대정신이 녹아 있다. 당시 사람들이 종교 이상향에, 민족문화의 역량을 쏟아 부은 결정체”라며 “특히 양산 통도사는 우리나라 사찰 장엄의 소재와 모티프를 집대성한 보고”라고 평가했다. 이어 노 작가는 “통도사 대웅전과 영산전, 약사전 등 11곳의 전각에 고도의 장엄이 돼 있다. 불전건물 자체가 장엄예술의 화폭이고 미술관이기에 이를 대중들에게 전하고자 했다”고 사진전 취지를 설명했다.

“10여 년간 통도사를 가고 또 가서, 통도사 가는 길이 내 삶에 윤이 날 정도로 드나들었습니다. 수백차례 통도사 불전장엄을 살피고 나서야 그 본질이 조금씩 보였습니다.” (055)382-1001 **노덕현 기자**

좋은 벗 풍경소리 찾아가는 음악회

11월 20일 영등포 아트홀서

좋은 벗 풍경소리가 오는 11월 20일 오후 5시 서울 영등포 아트홀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함께 부르는 노래’를 개최한다. 매년 붓다콘서트와 산사음악회 등 다양한 불교문화공연을 주도해온 풍경소리가 준비한 기획공연으로, 조계종 문화부와 BTN불교TV가 후원한다.

올해 음악회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합창단과 음악인을 초청해 공연이 이뤄진다. 함께하는 합창단으로 봉화 청량사의 둥근소리 합창단, 당진 보덕사 관음합창단, 서울 상도선원 간다르바 합창단 등이 참여한다.

또한 풍경소리의 홍보대사인 가수 우순실의 특별공연, 성악가 바리톤 김재일, 해금의 김나래, 승무의 김은선 등이 함께 출연해 보다 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음악회가 꾸며질 예정이다.

풍경소리는 “풍경소리의 2016 찾아가는 음악회에 불자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02)723-9836 **신성민 기자**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6.10.26~2016.11.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바람불면 다시오리라-소설 법정	백금남	샘앤파커스
2	틱낫한기도의힘	틱낫한	불광출판사
3	나를바꾸는100일	마가스님	휴(한겨레출판)
4	유식으로읽는반야심경(허암 김명우번역)	요코야마코이치/허암	민족사
5	무엇때문에바쁘십니까	켄포 소달지	담앤북스
6	명성(구름속의큰별)	남지심	불광출판사
7	토끼뿔거북털	월주	(주)조계종출판사
8	금강경강의(강미농의)	강미농/양관	담앤북스
9	금까마귀계수나무위를날고	박부영	불교신문사
10	화엄경게송집세트	일초스님	민족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불화가 전달하려는 참뜻은 '삶의 바른 이치'

사찰불화 명작 강의

강소연 지음 | 불광 펴냄 | 2만원



불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이즈음, 〈사찰불화 명작강의〉는 불화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미적 · 종교적 · 역사적 관점서 친절히 알려주는 책이다. 이 책에 소개된 10점의 불화는 한국 불화만의 멋과 아름다움을 오롯이 간직한 국보급 명작들이다.

불화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 불교는 오랜 세월 우리 선조들에게 우주관 · 가치관 · 사후관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불화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지옥과 극락, 정토세계와 사바세계, 법계와 속계, 연화장세계 등.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불화가 전달하려는 뜻은 '삶의 바른 이치'이다. 불교에서는 불교미술이라는 용어보다 '불교장엄'이라는 표현을 쓴다. 사원이나 법당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장엄'이다. '장식'과는 다르게 '장엄'에는 아름답게 꾸미는 '행위'까지 포함돼 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모든 유형과 무형의 덕행을 아우르는 말이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중요시한다. 마음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궁극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한 행위가 '공덕(功德)'이다. 그래서 장엄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공덕이다. 진정한 공덕이란, 내가 아닌 타인을 돕기 위해 또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순수한 마음을 내는 것이다. 불교서 가장 중요시하는 행위가 바로 이 공덕이다. '공덕장엄'은 여기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불교의 모든 조형미술은 공덕장엄의 표현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사찰불화는 이 같은 공덕장엄의 진리가 여실하게 담긴 최고 최상의 작품이다.

전문가와 함께 떠나는 사찰불화 여행

기존의 불화 관련 책들은 대개 제작 기법이나 그에 따른 유형별 분류를 소개하는 학술서 성향이 강했다. 그래서 감상적 차원에서 작품을 이해하길 원하는 일반 독자들에게 불화의 매력을 어필하기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 〈사찰불화 명작강의〉는 학문적 지식의 나열이 아닌 기행문 형식을 가미하여 독자들에게 읽는 맛을 선사한다. 우리나라 사찰 곳곳에 숨겨진 명작 불화를 찾아 떠나는 저자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다 보면, 마치 현장에 동행해 눈앞에서 해설을 듣듯 편안한 마음으로 불화에 대해 배우고 감상하게 된다. 작품과 사찰에 얽힌 오랜 역사와 흥미로운 일화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독자들을 불화의 세계로 초대한다.

불화 입체적 감상 법 알려 줘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겉으로 드러난 작법이나 가시적 아름다움만을 눈으로 좇아서는 진정한 깊이를 맛볼 수 없다. 작품이 만들어진 배경이나 그것이 담고 있는 주제 의식까지 함께 살필 때 보다 입체적인 감상이 가능하다. 〈사찰불화 명작강의〉는 불화의 기본적인 구도나 묘사법 같은 작품의 기술적 부분은 물론이거니와, 각 작품들에 담긴 핵심 내용(불교적 가르침)과 작품이 제작된 당시의 시대적 상황까지 두루 짚어준다. 또 불교가 낯선 이들을 위해 '기초공부'를 통해 불교 용어를 세심히 설명한다. 25년 차 베테랑 미술학자인 저자의 식견과 다채로운 해설을 통해 독자들은 다양한 관점서 불화를 접하게 되고, 이로써 책에 소개된 작품들뿐 아니라 한국불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불화의 현란한 장식 표현과 매끈한 곡선에서 전해지는 멋스러움 이면에 감춰진 층층의 이야기들을 꿰뚫어 보게 된다.

꼭 한 번 봐야 할 명작

이 책에 소개된 작품들은 불교에서 말하는 세상의 진면목을 아낌없이 표현한 그림들로 종교적 경지를 예술로 승화한 최상의 불교 종교화이다. 하지만 종교를 떠나 누구나 꼭 한 번쯤 봐야 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무위사의 〈아미타삼존도〉, 해인사의 〈영산회상도〉, 동화사의 〈극락구품도〉, 용문사의 〈화장찰해도〉, 쌍계사의 〈노사나불도〉, 법주사의 〈팔상도〉, 운흥사의 〈관세음보살도〉, 갑사의 〈삼신불도〉, 안양암의 〈지장시왕도〉 등 10점의 작품 대부분은 국보 · 보물 · 유형문화재 등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로 선정됐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무작 안직수 엄남미 지음 | 도반 펴냄 | 9천원

〈반야심경〉서 새록새록 피어난 詩心





항상 새롭게 변신하는 모습을 글로서도 보여주는 불교신문 안직수 기자〈사진 왼쪽〉가 야심찬 출간을 했다. 불교의 핵심 경전인 반야심경으로 시를 창작한 것이다. 반야심경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이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시도다.

시를 읽어보면 무척 재미있다. '크다'라는 의미의 마하에 대해 안 작가는 '어머니 마음'을 비유한다. 마하는 우리가 의식하는 것보다 더 큰 세계, 더 심오한 경지를 말한다. 즉, 우리가 상상하는 우주보다 더 큰 세계가 마하의 세계다. 그 단어를 작가는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자식의 귀가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이 마하라고 말한다. 잔뜩 힘을 주고 보려던 마음을 비웃듯 작가는 일상 속에서 반야심경의 이야기들을 한다. 시를 보며 가끔은 반야심경에 대한 생각을 잊을 때도 있었다. 그렇게 또 한 사람의 마음서 아주 작은 꽃들이 피어나는 느낌을 받았다.

반야심경을 시로 쓴 시인의 이야기는 반야심경의 크고 깊은 뜻에 비하면 너무나 소박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한 사람의 삶의 살아 있는 이야기 속에서 피어나는 반야심경은 틀림없이 살아 있다.

머리글에서 안 작가는 빛을 갚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고 말한다. 고등학교 때부터 줄곧 불교활동한 작가로서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은인이고, 인연이다. 그 빚은 갚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글이 한편의 반야심경이다 라고 고백한다.

홍사성 월간 유심 주간의 "천의무봉, 선녀의 옷에는 바느질한 자리가 없다는 뜻처럼, 글이 군더더기 없이 자연스럽고 완벽하다"는 평을 굳이 듣지 않더라도 재단 잘된 옷처럼 튼실하다.

김주일 기자

아함경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보경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 6천원

아함과 동서양 사상과의 회통… 진정한 행복의 길 발견



부처님 교설은 크게 법과 율로 나뉘고, 이는 다시 장(藏)이라 하여 경장 율장 논장으로 구분한다. 경장은 부처님 교설을 모은 것이고, 율장은 계율에 대한 교설이며, 논장은 경율에 연구를 체계화 한 것이다. 부처님 열반 후 세월이 흐르면서 불교의 전파도 다양한 루트로 이뤄졌다.

경장의 경우를 예로 들면, 남방불교(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등)의 전승은 '니까야(部, nikaya)'라 하여 장부-중부-상응부-증지부-소부 등의 5부로 나뉘고, 북방불교(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 등)의 전승은 '아가마'라 하여 장아함-중아함-잡아함-증일아함 등의 4아함으로 구분했다. 이 책은 아함경서 현대인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내용을 골라 소개하고, 이 시대에 맞게 해설한 것이다.

이 책은 아함경 중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하는 잡아함경 내용을 주로 다룬다. 초기불교의 경전들은 모두 암송에 의해 구전됐다. 따라서 암송하기 용이한 짧은 게송 형태의 경전이 우선적으로 전승됐고, 바로 이런 면에서 적은 분량에 간결한 게송이 어우러진 잡아함경이 많이 통용됐다. 전체 분량은 50권 1,362개 경으로 되어 있다.

저자는 이들 가운데서 30개를 선별해 해설을 붙였는데,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좋은 가르침이 되고 오래 기억할 만한 내용, 그러면서 부처님 당시를 가늠해볼 만한 흥미 있는 소재, 나아가 해설을 통한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것을 택했다고 한다.

실제로 이 책을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과 연관되는 경전 내용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책의 백미는 해설 부분에서 역력히 드러난다. 아함경의 내용을 풀이함에 있어서 멀리는 유럽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과 고대 인도의 우파니샤드 사상, 그리고 동양의 고전들, 나아가 근현대 사상에 이르기까지 종횡무진으로 인용하면서 경전에 담긴 인류 보편의 가치, 즉 인문학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함경 이후의 여러 대소승 경전들을 인용하는가 하면, 중국의 선어록에 담긴 내용들과도 자유롭게 비교해 가면서 아함경의 내용이 우리의 현실적, 실존적 삶에 어떻게 유의미하게 다가올 수 있는가를 탐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아함경을 그저 문자적으로 해설한 책이 아니라, 불교경전의 가르침이 어떻게 동서양의 다양한 사상들과 회통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현대인의 기본적인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인간 석가모니의 육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진정한 행복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 아닐까.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신문
구독 안내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문의 전화 : 02)2004-8200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 82 권째 서적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용성선사로 이어진 해인사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법맥과





신간!

법성게 3개국어판

법성게는 한마디로 화엄경의 핵심부를 훤출히 드러내놓은 게송으로 짧은 글 속에 일체 법을 고스란히 담아 놓았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통쾌한 법성게 법문이 한영중 3개국어로 출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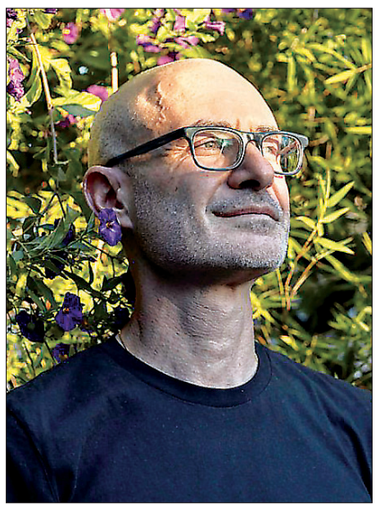
바로보인 유마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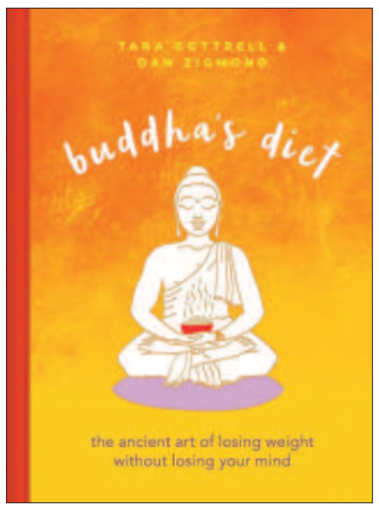
유마경은 가히 부처님법의 최고 정점을 찍는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대원선사 토끼뿔〉로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도서출판 문젠(구,바로보인) ☎ 031-534-3373

“부처님 식습관으로 11kg 감량 성공”

〈부처님의 식사〉 저자 댄 지그몬드, ‘Wired’와 인터뷰서 밝혀


〈부처님의 식사〉 저자 댄 지그몬드.



책 〈부처님의 식사〉 표지.

태국 체류 때 승려 식습관 관찰
음식 종류·양 가리지 않되
율장 따라 정해진 시간만 식사
현대인 삶 맞게 시간 조정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최고 데이터 분석관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식사법을 현대에 적용, 다이어트법을 제시한 책을 발간해 화제다.

영문 종합지 ‘Wired’는 10월 31일(현지시간) 최근 책 〈부처님의 식사(Buddha’s Diet)〉를 저술한 댄 지그몬드(Dan Zigmond) 씨를 인터뷰했다. 지그몬드는 현재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페이스북 신사옥서 근무하며, 정보 분석을 통해 새 서비스 방법을 찾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그몬드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을 빼는 고대 예술’이란 부제의 이 책을 통해 자신이 부처님 식습관을 조사하게 된 계기, 직접 체험한 결과, 현대 과학기술의 집합체인 실리콘밸리와 불교문화의 관계 등을 소개했다.

지그몬드가 부처님 식사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대학 졸업 후 태국서 머물던 때부터다. 그는 펜실베니아 대학서 컴퓨터 신경공학을 수학할 당시 불교를 처음 접하고, 졸업 후 태국으로 건너가 사찰서 머물렀다.

이 때 지그몬드는 스님들이 율장에 따라 동이 틀 무렵부터 정오까지만 식사를 하는 모습을 관찰했다. 음식 종류와 양은 가리지 않되 오직 정해진 시간에만 먹는 것이다. 모두 날씬한 체형을 소유한 태국 스님들의 식습관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로부터 2년 후 미국으로 돌아온 지그몬드는 세계 최대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에 입사했다. 구글은 초기 엔지니어 차드 멍 탄의 영향으로 사내 전체가 명상에 심취한 때였다. 이에 지그몬드도 자연스레 불교 명상 및 스님들과 접할 기회가 많았고, 이후 2014년 실리콘밸리로 일터를 옮긴 후에도 현대인들에게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불교문화에 대한 고민을 거듭했다.

“페이스북 등 인터넷 서비스는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시키지만, 바로 옆 사람과 단절시키기도 합니다. 기술을 이용해 이 세상은 더 나은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 가치가 변질되는 것은 경계해야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지그몬드는 솔크 생물학 연구소가 주관한 ‘쥐의 식습관과 신진대사 연구’ 자료를 접하게 되며, 부처님 식습관에 대한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해당 연구는 쥐에게 고지방·고열량 음식을 무제한으로 제공한 경우와, 같은 양과 같은 열량의 음식을 오직 정해진 시간에만 먹도록 했을 때를 비교한 내용이다.

지그몬드는 “후자의 쥐들이 날씬했다고 기록한 연구자료는 내게 태국 승려들을 상기시켰다”며 “이후 나 스스로 같은 식습관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그몬드는 부처님의 이른새벽~정오 식사 시간이 현대인들에게 부적합하다고 판단, 자신 삶의 패턴에 맞게 조정했다. 다만 9시간을 정하고, 음식 섭취와 단식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지그몬드는 “이 방법으로 같은 열량을 먹고도 총 11kg를 감량했다”며 “부처님 식습관은 숙면과 낮 활동에도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처님 식습관은 폭식이나 절식의 양극단을 피한다. 부처님이 강조하신 중도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며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났지만 수많은 시간을 금욕적으로 살았다. 결국 부처님 전생애에 따른 깨달음은 중도로 귀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그몬드는 이 책을 통해 솔크 생물학 연구소가 실시한 ‘10시간 음식 섭취 제한 연구’서도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났음을 밝혔다.

해당 실험 책임자 새친 팬다 박사는 인체장기유전자의 10~20%가 특정 시간에 활동하며, 이 시간 동안 식사를 제한하면 유전자 재생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새친 박사는 “본 연구는 사람의 신체와 신진대사 등이 모두 생물학적 주기에 따라 활동한단 점을 전제로 한다”며 “밤늦게 깨어있기, 낮 동안 햇볕 쬐지 않기, 잘못된 시간에 음식·약물 등 섭취하기 등이 건강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이혼 후 우울증 ‘마음챙김명상’으로 극복”

미란다 커, 엘르 인터뷰서 밝혀 “시간 지날수록 생각과 마음 통제 可”

호주 출신 톱모델 미란다 커가 올랜도 블룸과 이혼 이후 겪은 극심한 우울증을 명상으로 극복했다고 밝혔다.

미란다 커는 최근 패션지 엘르 캐나다와의 인터뷰서 “사실 블룸과 이혼 전 까지 난 무척 행복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블룸과 이혼 후 정말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기분이었다”며 “우울증을 처음 겪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메이요 클리닉’에 따르면 다양한 스트레스나 충격적 사건으로 우울증의 기미를 보일 수 있으며, 특히 배우자와 이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미란다 커는 어려운 시기 동안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극복했다. 그는 “모든 생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과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명상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모든 생각에 영향을 끼치고 오직 나 자신만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가 발견한 것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라며 “앉아서 숨을 쉬고 정신을 바짝차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미란다 커는 2010년 7월 올랜도 블룸과 결혼, 이듬해 첫 아들 플린을 얻었지만 2013년 10월 잦은 불화설을 이기지 못하고 이혼했다.

미란다 커는 블룸과 아들 플린을 공동 육아 하고 있다. 그는 7세 연하의 억만장자 사업가 에번 스피걸과 내년 재혼할 예정이다.

미란다 커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프러포즈를 받았고, 내년 결혼할 생각”이라며 “아들 플린과 스피겔도 친하게 지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보형 객원기자


미란다 커가 올랜도 블룸과 이혼 이후 겪은 극심한 우울증을 명상으로 극복했다고 전해 화제다. 사진출처=엘르 캐나다

“티베트, 민족성 짓밟힌 채 중국화”

서일본신문, 일본 신문기자가 본 ‘티베트의 현재’ 보도


건축 붐이 일고 있는 라싸 시내. 경제는 번영하고 있지만 종교 및 문화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일본신문협회가 중국정부의 허가를 얻어 해외언론의 방문이 엄격하게 금지된 티베트 자치구를 7년 만에 취재했다고 ‘서일본신문(西日本新聞)’이 10월 17일 보도했다. 아래는 기사의 전문이다.

라싸 교외의 공항서 버스로 약 40분을 달리면 시가지에 들어선다. 도시 중심부에는 고급 호텔들이 연이어 개업 중이다. 한족의 음식점과 상점이 많고 티베트어 표기가 없는 간판도 많이 있다.

세계문화유산인 포탈라궁 근처 길가엔 티베트족이 한족 관광객에게 염주와 목걸이 등을 팔고 있다. 그 중 젊은 여성 1명은 쓰촨성(四川省)서 경기가 좋은 라싸로 이사 왔다고 한다. 또 이전에는 티베트어밖에 몰랐지만 지금은 TV를 통해 중국어를 배운다고 말했다.

대규모 개발로 인한 중국화 촉진
티베트인 종교문제에 관심 없어

자치구 안에 한족이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장사하기 위해선 중국어는 필수다. 자금력이 있는 한족과 빈곤한 티베트족 사이에 경제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

티베트인의 분신자살 “들어본 적 없다”

투어는 원칙적으로 중국 측이 취재 대상을 정하고, 자치구 안에선 당국자가 동행했다. 방문한 곳서 중국정부 관계자가 늘 강조한 것은 ‘중국정부가 티베트에 번영을 가져왔다’는 부분이었다.

중국 티베트학 연구센터(베이징)의 간부는 철도 개통에 힘입어 작년 자치구를 찾은 관광객이 2005년보다 약 10배가 늘어난 2000만 명에 달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자치구 총생산은 10년 전과 비교해 4배 늘어난 1026억 위안(약 10조 6천억 원)을 달성했고, 도시 주민 소득은 70%, 농촌지역민 소득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당국자 동행 하에 라싸 교외에 있는 마을에서 가족 5명과 살고 있는 바루 씨(43)를 취재했다. 모피와 가축 고기를 판매하던 당시는 연 수입이 1~2만 위안(약 150~300만원)이었지만 2003년 벽돌공장을 개업한 후 주택건설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늘어 작년에는 12만 위안(약 1800만원)을 벌었다고 한다. 그는 “나라 덕분에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됐다. 공장을 더욱 확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표정이 바뀐 것은 ‘종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다. 티베트족의 분신자살에 대해 물어봐도 바루 씨는 “들어본 적 없다”고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달라이 라마 사진, 가정에도 불허

티베트 망명정부 일본대표(도쿄)의 말에 의하면 2009년 이후 자치구와 주변에서 분신을 시도한 티베트족이 140명을 넘었고, 이 중 120여 명이 사망했다.

일본신문협회기자들은 자치구공산당위원회의 기관지 ‘티베트일보’에서 개최한 편집간부 약 15명과의 좌담회도 가졌다. 일본 기자들이 티베트인 편집간부들에게 과거 분신자살을 보도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좌담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공산당 간부는 이 질문에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이다. 보도한 적 없다”고 강한 어조로 부정했다. 또한 “민족 간 경제격차도 없다”고 강조했다.

취재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뒤 인터뷰를 요청한 ‘티베트 망명정부 일본대표부’의 룬톡 대표는 “티베트인 분신사건에 관해서는 날짜와 장소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증거사진도 있다. 중국정부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덮어버린 것일 뿐”이라고 분개하며 말했다.

“물질적으로는 풍부해졌을지 모르지만 티베트 독자의 문화와 민족의 정체성이 짓밟힌 채 중국화가 진행되고 있다. 달라이 라마의 사진을 집에 걸어두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고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말하기만 해도 체포당한다. 그런 삶이 과연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주성원 객원기자

이젠 몸에 좋은 천연방향제가 대세!!
천연 한방방향제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 향이 좋은 생약재를 엄선한 한약 방향제입니다.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방향제와는 달리 자연에서 얻은 천연향으로 심신을 안정시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주는 이의 마음처럼 향기로운 동의보향은 오래토록 기억되는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 구매 시 추가로 덤 증정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장롱 등
•규격 : 12*19cm(복주머니),100g
주문전화 : 010-5607-3313 (062)385-9954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제조원 : 수풀림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 환영!!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담문의처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기도치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도치료법 1:1 또는 5인이하 실전교육을 상시합니다.
※ 기도 치료는 유사 사이비 의술이 아닌 부처님의 정법 의학입니다.
• 부처님은 약 3천년 전부터 기도치료를 가르쳐주신 大醫王이십니다.
• 기도치료는 유사 사이비 대체 의술이 아닌 부처님의 정법에 의한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질병치료법입니다.
• 캐나다에서 한의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석영창님은 그의 저서에서 “불교도들이 질병치료를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기도치료법 230P 값 19,300원
기도치료학 550P 값 24,300원
두권 구입 값 43,600원
• 위 2권의 책은 기도치료의 이론과 실제 사례를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기도치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의도한 서적입니다.
• 많은 불자님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의 건강증진은 물론 포교와 사찰운영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전문기도치료사만 된다면 노후 걱정은 덜게 될 것입니다. 본인은 70대 중반입니다만 가끔 한달에 천만원이상의 수입을 볼때도 있습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0-2093-3385, 011-557-2773
주 소 : 경남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243-11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 협(정보석)
(책은 입금 확인후 택배비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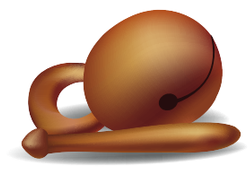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보배로운 부처님의 명호를 즐거이 들어서 아는 사람은 나고 죽는 흐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애써 고생하지 않으리.

– 살담분타리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고치는법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정신질환 상담
우울증,정신분열,정신이상,
빙의,환청,환시,간질발작,
정신병원약을 복용하신 분
(상담 및 개인지도)
사주학, 성명학, 빙의퇴마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05-124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구성학 강의
신비의 점성술
매주 : 화,목 강의 / 2시~ 4시
(교재무료)
수강료 월 20만
구성역리학회
010-4876-5353
051-245-5353

정암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529-1076
010-9944-1075

관상 손금
스님특별 책임 개인지도
– 배우자 관상을 보면 몇 살째 어디 질병이 있는지, 죽음까지 알 수 있다
– 암, 질병, 묘터, 교통사고, 이혼을 얼굴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다
– 무속인, 철학인, 일반인 (천기누설)
– 관상과 손금, 임상비법, 관상과손금 비밀이야기(판매중)
010-4014-8822

EST 기치료센터
기치료 과정
최면상담사 과정
사주, 육효, 철학상담사과정
각 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개업하고자하는분,공부하였으나자신이 없는분,관심은있으나배울기회가없는분)
EST 기치료최면센터
010-6666-2733

기치료, 명상치료
이유없는 두려움,
불면증, 심한 두통,
여러가지 고통 및 질병의
치료를 도와 드립니다.
<소원성취, 기도도량, 자연합일>
대구 인근 위치
010-3572-1524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빙의.퇴마.전생체험 수강생 모집 (개인지도)
3개월 과정.
교재는 무상 지급함
수업 : 매주 금요일 오후1시~5시까지
세종시 소정면 운당 (대승암)
010-5269-4168

배워야 산다
비법+명리+조상풀이법
포교당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 / 철학관 개업하실 분 / 무속제자, 신선생 / 무한 책임지도 / 사주풀이 전화 상담 중
010-5960-4984
지리산 현담

알립니다
법당신당 퇴불 및 철거 전문업체
불교용품 일체 취급
법당, 신당 제작 설치
사찰 중개도 합니다
불교용품 다 사고 팝니다
010-2001-0089
010-3200-0091

태극기문명리
(기문둔갑 명리비법 작명
영가작법 계의신결 팔괘법)
실전통변 완전정복
부경대학교교육원 전임
태극기문학회
051-949-1234

사주학 제10기 모집
• 교육과목 : 사주학, 매화역수, 성명학
• 초급반 : 사주명리 왕초보자,
• 실전반 (통변반) : 질의 / 응답식 강의
• 강사 : 정인스님
010-4047-0134
(서울 광진구 구의동)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 고민 해결의 지 침 서
당신의 어떠한
고민도 해결 할 수
있는 지침서이다
010-7732-3267
농협 302-1030-1238-01 배종영

운전하고 사찰일 할 수 있는 곳
원합니다. 전국 어디
든 상관 없습니다
(64세, 1종대형면허, 버스운전 경력)
010-6476-6026

문두루 기도법?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기도며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후계자를 찾습니다
35년간 수행해온 모든 것을 다 전수 받을 수 있는 후계자를 찾습니다
(스님이나 스님이 되고 싶은 사람)
"1차 전화 상담후 면접"
063-832-0108 / 010-6513-4771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근무지역 : 부산
급여 및 근무조건 : 면접시 협의
연락처 : 051-742-7610 (종무소)
조건 : 불교신도, 유경험자
나이 : 40 ~ 60대
좋은인연으로 신심있고 성실하게 임하실 수 있는 분 환영합니다

숙식가능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수영구)
051-628-7200
010-3525-9919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사찰내외 유무선 마이크 설치전문
일반적으로 중형교회의 경우 5000만원 내외 정도의 음향설비를 합니다. 그러나 대전 한성음향은 노래방기기설치 21년차로 특허도 있고 간략하고도 기성복이 아닌 맞춤옷같은 방법으로 대웅전 음향설비를 평균 200만원대 소형은 100만원대로 교회음향에 준하는 설비를 해 냅니다. 예불과 설법과 천도가 쉽게 할수 있게 설치해 드립니다. 설치된 곳은 강원 인제읍 무애암, 충북 보은읍 만선암,서울 강동구 둔촌동 대국사 경북경산 압량면 수안사, 경남창원 진해구 청룡사 등입니다. 문의 바랍니다.
특허등록업소 한성음향 (대전,전국 출장가능)
010-4440-868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이천)
031-641-6311

비구니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거제)
010-7169-98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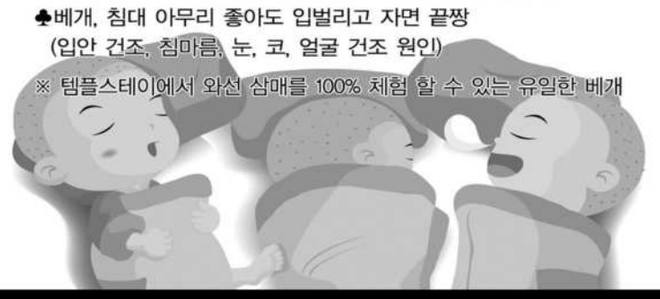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 자 모 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10-7212-2198. 02)2234-2198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도무지 잠이 안와!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뭇자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뭇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재물과 법(法)으로 중생에게 보시하고 밤
낮으로 생각하여 고뇌와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 다라니를 얻느니라.

- 사리불다라니경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사찰보유)

▶ 관광 사찰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토지 : 1400여평
- 건물 : 목조법당 48여평, 요사채 38여평
- 세계불교박물관(벼락맞은 대추나무 5400년된 회석 등 300여점 보유)
- 양도 : 13억 5천만원 (대출 5억포함)

▶ 얼음골 사찰 ◀
- 위치 : 밀양 얼음골
- 토지 : 830여평, 주차가능
- 건물 : 대웅전과 요사채 40여평
- 산좋고 물좋은 계곡 남서향 명당
- 양도가액 : 3억 5천

051-863-6622
010-3560-85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동해안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단청법당 45㎡, 요사채 80㎡, 토지 1,700㎡
- 바다와 도로 인접사찰, 오래된 사찰, 위치 좋음
- 가액 : 2억 7천만원. 조정가능(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 (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위치 : 경북
◎ 부지 : 80평 ◎ 부지 : 2000평
◎ 법당 : 40평 ◎ 인법당 : 40평
◎ 요사 : 60평 ◎ 요사 : 60평
◎ 양도 : 8억2천 ◎ 양도 : 2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암 자 안 내

▶ 관광 사찰 ◀
- 위치 : 양산 물금 신도시 부근
- 토지 : 오봉산자락 32여평
- 건물 : 법당16여평,요사채2동
- 낙동강이 한눈에, 위치 좋은 암자
- 양도 : 스님 사정으로 몽땅1억3천만원

010-2595-7752 전무
주소: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504호(만덕동302 다산타워)

안성사찰(급)안내

- 토지 1,000㎡
- 법당 60㎡, 요사채 80㎡
- 뒷편 국유지, 기도도량
- 스님 건강상 양도, 교통편리함
- 가액 : 2억 5천만(융자 6,500만)

010-7347-1010 (사찰전문)
서울연락처: 070-8154-9393
(원주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서울 & 경기 사찰 / 포교원 중개 전문

-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전문적 / 중점적 중개
- 직접 방문을 통한 정확한 권리분석 및 상담
- 전국 매물 수백건 보유/심층상담을 통한 고객 만족 매칭서비스
- 공인중개사로서의 정확한 책임 중개
- 서울&경기 지역 매물 접수처(H.P 010-3426-9393, 카카오톡 : hyeonjong01)

서울.경기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 44 101호 / www.010-3426-9393.com
010-3426-9393 / 070-8145-9393

서울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 지하철역 5분거리 버스정류장 앞
- 총 132.23㎡ (약40평)
- 가액 : 보1000만, 월100 시설비 500

010-3426-9393 (포교원전문)
070-8154-9393

삼 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양도액 : 12억

- 위치 : 경기
- 대지 : 4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25평
- 가액 : 6억5천

[포교원]
- 위치 : 안양
- 총평 : 65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방3개
- 시설비 약간, 시설 굿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경매상담, 부동산 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량물건 보유 언제든 전화주시면 성실 안내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대형 사찰 양도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삼동
- 2614평
- 대웅전 포함 정각 4동 전철역사 인접
- 기본계약후잔금은행대출가능
- 가액 : 65억
- 꼭 사실분만 상담가능

010-3288-131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괴산 60년된 사찰
- 종교부지 911평
- 목조 건물
- 대웅전 15평, 지장전 11평
- 요사채 23평(황토 목조건물)
- 가액 : 4억(대출 2억 2천) 대출 승계 가능함

010-6628-8271

아름다운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의령
- 요사채1동(25평), 법당1동(33평)
- 정자(원목), 가로 5m 세로 3m
- 총평수 300평
- 가액 : 2억 5천(은행융자 5천 포함)
- 꼭 하실 분만 연락 바람

010-3889-7141
주지스님

다용도 주택 안내

- 위치 : 경기 양평 신복리 뒤는 산, 앞은 옥천시내 아신역에서 차로 5분거리
- 정남향(대지 257평 건물 40평) 지하암반수 마당 넓음,터와 주위에 약초 많음 (용도 : 암자 포교원 사주카페 등)
- 마당에 별채 6평
- 가액 : 4억 5천(실입주금 3억) 전세도 가능

010-4234-2536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남 금산 IC에서 15분거리
- 부지 187평, 건물 30평, 부속건물 17평
- 도지세 년 15만원
- 가액 : 9천 5백만원

010-7765-2720

절 터 안 내

- 위치 :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계곡속
- 천하명당 절터 434평
- 입구에 폭포있음, 지방도 바로옆
- 전기, 관정 공사 완공 하천부지 일부사용
- 가액 : 5,800만원 (가격 절충)
- 장난전화 사절. 꼭 필요하신분만, 공부하실분만 전화주세요

010-2499-3001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산속 솔밭 속 사찰
- 대지 670평, 가건물 5동
- 매실나무 350그루 외 다양한 유실수 보유
- 건강 관계
- 가액 : 2억 8천만원

010-6656-8117 (주인직접)

도심 공원 내 사찰(급)

- 위치 : 부산(공원내 계단 있음 10M 버스도로 옆)
- 대지 : 약 98평
- 1층건물 : 법당 40평, 기도방 5(2가구 가능) 2층 : 법당 40평, 기도방 2
- 텃밭 약 20평(과수나무)
- 가액 : (대출 7천 별도) 현금 2억 2천

010-5511-700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 해도동
- 약40평, 삼존불, 후불탱화, 소불, 인등, 연등, 집기일체, 몸만오시면됩니다
- 명리 철학 호조건,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 가액 : 3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3723-077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금산
- 종교부지 280평
- 법당 : 철재 경량골 23평
- 삼성각 : 목조기와 7평(단청, 30년됨)
- 요사채 : 철재스레트 30평,방 5개, 주방 1개, 화장실(실내1, 실외1)
- 임야 : 50평
- 가액 : 1억 8천(융자 6천만원)

010-3875-6305
041-752-059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대창면 한들길 85-5
- 대지 200평, 건물 2동, 아미타 지장
- 가액 : 8천 5백만원

010-7795-9856
불문스님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 치악산 자락 아늑한 사찰
- 법당 30평, 산신각 6평, 노천불
- 목조건물, 전통법당
- 요사채 40평, 식당 40평, 창고 60평
- 대지 1,250평(종교부지)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6억 5천만원

010-4028-8896

토굴을 구합니다

- 산속이나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면 좋겠습니다
- 싼 값으로 양도하실 분이나 임대로 빌려 주실분은 연락주십시오

010-7678-5536

합천 무학동굴 앞 대지 및 전원주택 매각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 529-2번지
- 대지417평(1,379㎡), 건물(전원주택)44평(147.36㎡)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 529-8번지
- 임야 211평(699㎡)
- 특징 : 합천무학동굴은 조선시대 왕사인 무학대사가 어린시절 수련하였던 동굴이며, 동굴에는 무학대사가 솥가락으로 팠다는 샘이 있다(경남문재재연구원의 합천무학대사 유허지 발굴 보고서 및 합천 향토문화지 등에 기록)고 강속자 보살이 무학동굴앞 부지를 매입하여 1999년부터 무학동굴을 관리하고 있었다.(건물은 2008년도 신축함)
- 가액 : 4억

010-2078-959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상인동 아파트 대단지
- 약 80평중 법당 40평
- 삼존불 외 소불 200, 신중, 영가전
- 방4개, 화장실, 욕실, 창고, 옥상가능
- 가액: 보증금 무, 월세 80만원 중간세도 가능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9243-0113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거제시장로 15번길 17 (거제시장 안쪽 통닭골목)
- 3층 건물중 2층
- 삼존불, 주방, 욕실, 창고 등 보신후 결정
- 가액: 보 5백만원, 월 60만원 (60평 정도됨)
- 시설비는 보신 후 결정

010-8385-2447

멋진 2층 전원 주택 사찰

- 위치 : 경북 김천시내
- 평수 : 대지 217평 (아래층 방 5개, 법당, 주방, 해우소) (2층 방 3개 거실,주방, 해우소)
- 마당 잔디 황토방 조경 좋음
- 가액 : 대출 1억 포함 2억 8천 5백만원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포교원(급) 안내

- 위치:서울시 종로구 종로 370(숭인2동) 3층
- 전철 1호선, 동묘역 2번, 3번 출구 약 20m거리
- 평수 20평, 법당10평, 방2개,주방1, 화장실, 현재 살림합니다
- 법당 5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인로왕보살 글문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가격 절충, 시설비 1,600만원

010-3722-273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 토지 : 대지 200평, 답 760평
- 건물 : 45평 (후불탱화, 지장보살 봉안)
- 방향 : 남향
- 야산에 위치한 아담하고 조용한절
- 전기, 전화, 인터넷 가능

010-2831-8573
(주인직접)

사찰안내 또는 전세

- 위치 : 경북 문경시 동로면 생달리 586
- 목조 법당 25평, 요사콘크리트 슬라브 50평
- 심야보일러, 전 다소
- 가액 : 3억 5천만원 전세가 6천만원

010-5780-1415
033-762-249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시장 부근 7호선 약 3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도시가스)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 주방,욕실,주차 2대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가액: 1,000만원, 월 11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즉시 법회 가능

010-4646-3638

임법당(급)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성당시장 약 5분거리
- 평수 : 대지 약 47평, 건물 약 27평
- 가액 : 1,000만원 월 25만원 보시고 합의 후 결정

010-5387-6767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IC 얼음골 방향 15분 거리
- 잣나무 숲과 계곡의 완벽한 환경
- 총면적 1,678평중, 대지 328평
- 2층 건물 1층 명상홀 및 요사 59평 2층 대웅전 24평 ● 가액 : 6억
- 대나무숲속 삼성각 4.5평 별도 요사채 28평과 창고 20평
- 원통문 수월관음, 연화탑, 포대화상 등 석물 농지에 사과나무 220주 호두나무 40주

010-4895-2050

임법당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한림
- 평수 : 66평
- 건물 : 1층 24평(요사) 2층 21평(법당)
- 시설 : 삼존불, 신중, 영단
- 가액 : 9천만원(조정가능)

010-4951-9104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서구 화곡동
- 2,000세대 아파트상가 2층 중 2층
- 삼존불(석가모니불, 관음보살, 지장보살) 후불탱화, 신중탱화
- 불단 : 원목수미단, 단등(200등), 영단 30평(주방, 방1, 도시가스보일러)
- 가액 : 보증금 2천, 월세 120만, 시설비 3천(모든집기)

연락처 010-8779-9971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중앙로 22, 2층 ● 법당 50평
- 아미타삼존불, 약사삼존불, 지장보살, 신중, 산신, 용왕, 영가단, 감후불탱화
- 소불 108불 이상, 음향시설, 냉난방기 종, 조명 등 집기일체
- 방, 주방, 화장실 겸 샤워실
- 스님의 건강문제로 급 인계하려합니다. 기도스님 보살님 대환영(몸만오시면됨)
- 가액 : 보 8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700만원

스님직통 010-3015-587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대 옆
- 대지 : 813㎡
- 토굴 법당 30평, 요사채 30평, 2차선 도로변
- 가액 : 2억 8천

010-5347-0270

암 자 안 내

- 위치 : 공주시 계룡산 국립공원 內
- 장군봉, 임금봉, 신선봉, 천왕봉, 문필봉 동학사를 바라보며 앞쪽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좌측에는 신도안의 기운이 뻗치는 위치에 자리한 백만불의 조용한 암자
- 인연이 없으면 올 수 없는 곳
- 가액 : 18억

010-9228-6747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동상동
- 대지 100평, 아파트 대단지 뒷편
- 산과 계곡이 있는 절
- 오존불, 각단 탱화 법당 완벽
- 방4개, 다용도 거실 큼
- 가액 : 전세 500, 월 30만원 시설비 2,500만원 가격 절충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2565-720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 10번길 35(광안동) 광안리 최고요지
- 3층 건물 2층 50평, 법당 5존불 외
- 한자불 50불 30cm, 후불탱화
- 방3개,주방1개,식당,화장실2개
- 가액 : 1,5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0-3884-012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대지 45평, 건평 92평
- 4층 건물
- 건물 : 철근 콘트리트구조 산밑 아담하고 조용한 곳
- 가액 : 6억(절충가능)

010-5931-1071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 대지 : 대지 200평
- 가액 : 3억 5천만원

010-8861-1785

암자안내(마산)

- 위치: 마산 무학산 입구(교방동)
- 건물 : 2층 (1.2층 전체 콘크리트 건물)
- 주변부지 사용 가능
- 가액 : 전월세, 보증금 3천만원, 월 13만원 시설비 50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010-7169-9878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 도량 총 1,420평, 목조법당, 관음전, 종각, 요사채
- 공양간 외 부속 건물, 차고, 창고, 대형주차장 등등
- 가액 : 급 2억 8천 (부득이한 사정으로)

010-4628-5699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
- 평수 : 법당 30평, 삼성각
- 호신불 650불, 인등 1008등
- 방 5개. 다락방, 욕실, 화장실3개, 주차 10대가능
- 신도시 형성 아파트 3만세대 고속도로 5분거리
- 가액: 5억

010-5019-5385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왜관읍 2번 도로길 60번지
- 2층, 40평, 법당, 삼존불
- 방, 사무실, 주방, 에어컨3대 옥상(창고로 사용가)
- 보증금 3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 1,000만원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10-4813-51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 북구 시장입구
- 3층 건물 2층
- 평수 : 약 53평
- 방3, 에어컨 3대,최고시설 완비
- 보증금 900만원, 월 40만원 도시가스 시설 시설비 상담 후 절충가능

010-8770-3813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1동 신정시장 부근
- 평수 30평, 2층독채 큰방3개, 거실, 욕실주방 시설비 금액은 1,600만원
- 편백나무 리모델링, 급한사정
- 위치 좋음, 교통도 좋음
- 삼존불,석가모니,약사여래,관세음보살 후불탱화, 용왕, 산신, 신중
- 가액 : 전세 1,000만원에 월 50만원

010-9902-3969

도심 속의 아담한 암자

-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121-11번지
- 건물 : 단독 주택
- 가액 : 7500만원 대출 + 1억 1천 5백만원 합 가액 : 1억 8천 5백만원 (절충가능함)
- 꼭 하실분만 연락 주세요

010-7188-7723

사 찰 안 내

(시세이하 급 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하북면 소재
- 임야 : 종교부지 합 15,000평 (종교부지내에 개인부지 포함) 건물 1동 (약70평)
- 터는 명당자리(좌백호, 우청룡), 토목공사 진행중
- 가격 협의 가능(현지답사후 협의 요망)

010-8014-7707
010-3832-7157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대구시내 2차선 도로변
- 대단지 아파트와 주택 밀집지역 중간부분 교통 원활
- 아미 관음 지장 후불 신중 칠성탱화 영가단, 소불 법당종 냉,난방기 음양 조명 등 시설완벽 불기 및 집기일체
- 신조성 1년 10개월 포교 및 명리 적합, 3층 건물중 2층 약 25평
- 보: 300백, 월30만. 주방시설은 있으나 방은 없음 시설비는 꼭 하실분에게 최소의 금액에 드리겠습니다

053-651-1514

중독이 나를 힘들게 할 때

토마스 비엔 · 비버리 비엔(명상 지도자)

〈6〉 여가와 자연

자연 속 여가 활동, 매 순간이 '마음챙김'



주말은 도피처 아냐

중독 회복은 단지 중독 물질을 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론 중독 물질을 끊는 행위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첫 단계이긴 하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성공적인 중독 회복 과정은 약물이나 알코올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다 균형 잡힌 생활양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마음챙김을 통한 깨어 있는 삶은 약물 남용이나 폭음, 폭식과 양립할 수 없다. 더 깨어 있을수록 우리는 극단에 탐닉하지 않는다. 깨어 있을수록 우리는 한 차례 실수로 다시 중독에 빠져들어도 그것이 기대만큼 즐거움이 아님을 안다.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주말이나 휴가뿐 아니라 매일의 순간순간을 더 충만하게 산다.

만약 우리가 예의 불만족스러운 생활양식을 지속한 채 자신에게 중독 물질 끊기를 강요한다면, 그래서 자기 힘으로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오려 한다면 실패하고 만다. 주중의 모든 시간을 즐겁지 않은 일에 소모하면 삶의 불균형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우리는 일하지 않는 시간만큼은 특별한 만족감을 누려야 한다고 여긴다. 불만족스럽고 무의미한 일에서 도피하려는 욕구도 그 만족감의 일부다. 의미 없는 일과를 마친 뒤 어떻게든 그 시간을 상쇄하고픈 마음, 그렇게 자신에게 충족감을 선사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주말을 위해' 주중을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삶은 순간순간이 다 소중하기 때문이다. 일이 불만족스러우면, 여가도 만족스러울 수 없다. 불만족스러운 일 때문에 여가에 탐닉하는 악순환을 깨트려야 한다.

〈일의 재발견(The Reinvention of Work)〉(1994)에서 매튜 폭스는, 불만족스런 일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자신을 방치할 때 느끼는 소외감에 대해 이야기한다.

"거대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부터 우리의 여가 시간을 되찾아야 할 때다. 스스로 하는 운동이나 이완은 소홀히 하면서, 프로 운동선수와 그들의 스폰서 기업에 얼마나 많은 여가 시간을 헌납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나와 주위 사람의 참된 참여를 일으키는 활동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음악, 그림, 시, 춤, 마사지, 요리, 하이킹 등이 그런 활동이다. 우리는 칭찬을 받거나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 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마음이야말로 이 활동들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활동들은 일종의 명상이다."

여가 일지를 기록하라

여가는 아무렇게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흥청망청 파티를 열거나 자극적인 영화를 본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여가 시간이 되지 않는다.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여가 시간은 대개 단순한 기쁨들로 가득하다. 상품화된 유흥거리가 아니라 단순한 행동을 통해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선(禪)의 화두에 이런 것이 있다.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 나의 본래 모습은 무엇인가[父母未生前本來面目]?"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그 모든 것이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자연 자체다.

식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산소를 제공하며 우리의 생활 세계를 아름답게 해준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물과 햇볕이 필요하다. 이것은 한낱 감상적 낭만주의가 아니라 실제로 증명 가능한 사실이다. 예컨대 계절성 정서장애(Seasonal Affective Disorder, SAD)가 있는 사람은 겨울철 햇볕이 적은 고위도 지역에 살 경우, 우울증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한다. 계절성 정서장애는 사람은 누구나 햇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월든〉에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생존에 꼭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숲속의 삶을 시작한 경위에 대해 이야기한다. 소로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구입하고 소비하며 쌓아두는 물건들이 삶에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진 다음 철저하게 검토했다.

소로는 문명이 인간의 집을 개량시킬 수는 있지만,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가 살던 시대에 이미 꿰뚫고 있었다.

> "주말 위해 주중을 사는 삶
> 유흥 탐닉하는 악순환 빠져,
> 자연이 주는 '단순한 기쁨' 서
> 매 순간 소중함 깨달아야"

소로는 사회의 요구, 현대의 편리함과 유흥에 방해받지 않는 단순하고 기본적인 삶으로 돌아가 영적인 깨어남을 이루고자 했다. 그는 우리에게 삶을 단순하게 만듦으로써, 끝없는 쳇바퀴에서 벗어나 영적 본성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여가를 보내는 방법에 관하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단일한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과 교감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연에서 격렬한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바깥에 나가 자연이 자신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

1~2주간 여가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가 활동에 얼마의 시간을 쓰는지 기록한다. 또 여가 활동 뒤의 느낌, 특히 활동 후에 느끼는 행복감을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겨본다. 이렇게 하면 얼마만큼의 시간을 자연에서 보내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시간을 자신이 즐기는 활동에 보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또 자신을 회복시켜 주지 못하는 수동적 활동에 얼마의 시간을 허비하는지도 알 수 있다.

자신의 여가시간을 살피는 이유는 여가 시간이 자신에게 기운을 북돋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의식적인 선택을 내리기 위함이다. 또 다른 방법도 있다. 현재 너무 오랜 시간 하고 있는 한두 가지 여가활동을 선택해, 적어도 일주일 동안 그 활동을 완전히 하지 않거나 시간을 대폭 줄여보는 것이다.

물론 중독 회복의 초기 단계인 사람은 자신의 중독과 연관된 활동을 삼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훌륭한 야외 활동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수가 있다. 많은 사람이 산 개울과 호수에서 낚시를 즐긴다. 그런데 낚시는 음주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에서 멀어진 새로운 삶의 양식이 어느 정도 자리 잡기까지는 낚시를 멀리하는 것이 좋다.

회복 초기 단계는 인간이 가진 고차원의 능력과 무관한 활동들에 자신이 허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 줄일 수 있는 기회다. 동네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습관처럼, 과거의 해로운 활동을 마냥 포기하거나 순전히 의지력으로 절제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보다 소중한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는 기회로 삼으라.

영혼이 살찌는 '자연 속 여가활동'

당신은 운동 시간을 늘리려 하는가? 그 이유는 아마도 운동이 가져다주는 건강상의 이익 때문이거나 아니면 살을 빼고 싶어서일 것이다. 그러나 단지 운동을 위해 운동하기보다, 운동이 주는 부가적인 이점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기를 권한다. 그것은 영혼과 관련된 이점이다. 실내 자전거는 당신의 근육을 운동시켜 주지만,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지는 못한다. 마음챙김을 통해 우리는 운동의 결과만이 아니라 운동하는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영혼을 살찌울 수 있다.

자연에서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깨어 있는 마음으로 알아차리면, 운동이 될 뿐 아니라 내면의 중심이 굳건하게 잡힌다.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고 아무렇게나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들을 흘려보내면, 자연에 대한 자각과 감사의 마음이 커진다.

〈묵상의 새로운 씨앗(New Seeds of Contemplation)〉이라는 책에서 트라피스트회(기도 · 침묵 등을 강조하는 엄격한 수도회) 수사(修士) 토마스 머튼은 묵상에 대해 말한다. 그의 말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마음챙김 수행과 매우 비슷하다.

"당신의 눈을 깨끗하게, 귀를 조용하게 하라.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신의 공기를 들이마시라. 그리고 가능하면 신의 하늘 아래에서 일하라. 그러나 만약 당신이 도시에 살아야 하고 기계들 사이에서 일해야 하더라도, 또 지하철을 타고 라디오의 거짓 뉴스에 귀가 먹먹하더라도 초조해하지 말라. 잘못된 음식이 당신의 삶을 파괴하고, 주변 사람의 감정이 당신의 가슴을 지루함으로 물들이더라도 다급해하지 말라. 그것을 신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라. 당신의 영혼에 심은 고독의 씨앗으로 생각하라. 그런 일이 섬뜩하게 여겨지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묵상의 침묵이 지닌 치유력을 계속 필요로 할 것이다."

삶의 소중한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라. 언제나 특별하고 흥미진진한 유흥을 좇는 악순환에서 벗어나라. 이런 악순환은 약물 남용으로 이어지기가 쉽다. 땅과 물, 하늘에서 단절되어 차와 사무실에 갇혀 사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는가? 이 한심함조차 소중히 여기라. 그리고 그것을 자연으로 돌아오라는 부름으로 받아들이라. 당신이 곧 자연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중독이 나를 힘들게 할 때〉(불광출판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성원사

• 대 표 : 김춘연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육일리 69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9일

대한불교본원종 총무원장 법하

부처님 마음 공부

무량 청정암 열린 마음선원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부처님 마음공부를
함께하실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아 래

❶ 교육과정 및 일정

과 정	요일및시간	수 업 내 용	
기초과정	매주 화요일 (요일 변경 가능)	염불선	1단계 : 불교이해 2단계 : 경전독송 이해
중급과정	매주 수요일	참 선	참선이해, 법거량
고급과정	매주 금요일	간화선	화두참구, 깨달음

❷ 수업 신청 방법
- 기초과정 : 3개월 선착순 (20명 이내 한정)
- 법사와 1대 1 수업 운영
- 수 강 료 : 3개월 (30만원)

❸ 교육장소 : 무량 청정암
❹ 교 수 : 무량 청정암 최정훈 법사
❺ 문 의 : 010-2559-6886

무 량 청 정 암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대로176번길 23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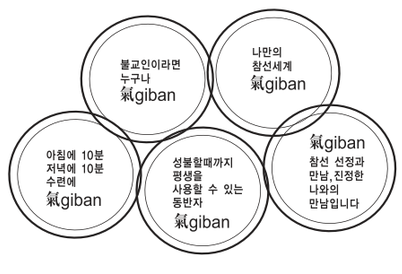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의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우리는 이 가을에 무엇을 하나

문밖이 어수선하다. 애틋한 시월의 마지막 밤을 앞에 두고서 가을은 사라졌고, 가을을 물들이던 홍엽은 서둘러 낙엽이 되었다. 뜻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이별한 연인은 시월의 마지막 밤을 기다려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마침내 영혼이 부여된 잎새들은 세상의 빈 곳을 찾아 쌓이건만, 다시는 없을 이 날이 무슨 일로 이리 어수선한가. 기억할 수 없는 생이지만 분명 언젠가 곁에 있었고, 또 다시 언젠가는 곁에 있어야할 일인데, 아직도 세월이 부족한가. 아직도 슬픔이 부족한가. 문밖으로 나가 가슴 먹먹한 노래를 부르고, 세상을 위해 애쓰는 붉은 잎새를 보라. 우리는 가슴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때가 되면 바람에 목숨을 내놓는 붉은 잎새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우승미의 불교창작동화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을까? ㊤

"우리 집 베란다엔 쪼꼬미가 살아요"

찬솔이는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는 기분이었다. 화장실에 앉은 지 20분이나 지났는데도 똥은 도무지 나올 생각을 안 했다. 마지막으로 성공한 것이 사흘 전이었다. 거의 일주일 만에 눈 똥이었는데, 토끼 똥처럼 작고 동글동글한 똥 세 개가 퐁퐁퐁 떨어지고는 끝이었다. 배를 누르고 쥐어짜면서 힘겹게 눈 똥이 겨우 세 톨이라니 정말 실망스러웠다.

찬솔이는 두 손을 겹쳐서 꾹꾹 누르며 시계방향으로 배를 쓸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똥을 눠야 했다. 오늘은 과학실험이 있는 날이고, 운 좋게도 희주랑 같은 조가 됐다. 희주 옆에 앉아서 지독한 방귀를 뀌어댈 수는 없었다.

변비의 가장 심한 고통은 방귀였다. 배가 빵빵해지는 느낌이라든지, 똥을 누고 나서도 똥이 마려운 것 같은 잔변감이라든지, 움직일 때마다 배가 콕콕 쑤시는 통증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며칠 동안 똥을 누지 못하면 정말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독가스를 뿜어내게 된다.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찬솔이는 자기 자신이 지독하게 싫어졌다. 찬솔이가 뀐 게 아니라고 아무리 발뺌을 해도 아이들은 믿지 않았다.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지독한 독가스를 뿜어내는 사람이 찬솔이 말고는 없다는 사실을.

'어, 나온다!'

찬솔이는 기쁨에 들떠 열심히 배를 문지르고 쥐어짰다. 실망스럽게도 그것은 방귀였다. 부우우우우욱. 참으로 길고 우렁찬 소리를 내며 방귀가 뿜어져 나왔다. 찬솔이는 손으로 코와 입을 막고는 서둘러 화장실을 나왔다.

찬솔이가 나오자마자 은솔이 누나가 다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갔다.

"야! 박찬솔!"

누나가 비명을 질렀다.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다며 화장실 문을 벌컥 열었다. 쌤통이었다. 독가스가 항상 쓸모없는 것은 아니었다.

"박찬솔!"

찬솔이가 화들짝 놀라 젓가락질을 멈췄다. 엄마가 이름 앞에 성을 붙여 부르면 그건 화가 좀 났다는 뜻이다. 아니나 다를까. 엄마의 눈썹 사이에 주름 세 개가 선명하게 잡혀 있었다. 찬솔이는 밥에 든 검은 콩을 골라내 그걸로 'NO'라는 글씨를 만들고 있었고, 글씨가 막 완성되려는 순간에 콩 하나가 부족해서 누나의 밥그릇에 있는 콩을 집어 올리던 중이었다.

"음식으로 장난치면 못써. 그 콩 네가 다 먹을 거지?"

"엄마. 밥에 들어있는 콩은 정말 싫다고요."

찬솔이는 두부도 잘 먹고, 두유도 좋아했지만, 밥에 들어있는 콩은 끔찍하게 싫었다. 씹으면 씹을수록 비린 냄새가 나서 뱃속이 울렁거렸다.

"난 고소해서 좋던데."

누나가 얄밉게 끼어들었다.

"그렇게 좋으면 누나가 다 먹든지."

누나가 혀를 쏙 내밀어 메롱을 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어쩜 저렇게 얄미울까.

그래도 오늘 아침 밥상은 마음에 들었다. 아빠 생일이라서 고기반찬이 잔뜩 올라왔으니까. 고기 찬성. 채소 반대. 찬솔이가 식탁 위에서 항상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중에서도 찬솔이가 가장 좋아



그림 · 강병호

하는 건 갈비찜이었다. 찬솔이는 혀로 양념을 핥은 갈비 다섯 조각을 앞접시 위에 올려놓았다.

"야, 너 뭐하는 거야?"

누나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뭐하긴. 내 갈비에 침 발라놓는 거지."

"너 또 지난번처럼 남기기만 해 봐."

"아유, 걱정을 마셔."

말은 그렇게 해놓고 끝내 한 조각을 남겼다. 불고기며 잡채며 이것저것 먹다 보니 배가 불러서 도저히 다 먹을 수가 없었다.

"찬솔아. 이렇게 침 발라놓고 먹지 않으면 아깝게 버려야 하잖니."

엄마가 말했다.

"미안해요. 엄마. 다음부터는 꼭 다 먹을게요. 더 먹으면 진짜 배가 터질 것 같다고요. 오늘은 온종일 소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지낼게요."

찬솔이가 엄마의 뺨에 입을 맞추며 능청스럽게 말했다. 볼뽀뽀는 엄마가 더 이상 잔소리를 못 하게 하는 최고의 방패였다. 자주 음식을 남기는 찬솔이에게 엄마는 말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다른 생명에게 빚을 지는 거라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한 존재의 생명을 먹는 거라고. 그러니 늘 고마운 마음으로 먹어야 한다고.

찬솔이가 가방을 멘 채 베란다로 갔다. 철창 우리 안에 있는 쪼꼬미가 찬솔이를 보고 날개를 푸드덕거렸다. 머리 나쁜 사람을 '닭대가리'라고 하는 건 잘못된 비유다. 쪼꼬미는 정말 똑똑했다. 식구들 얼굴을 알아보고, 이름을 부르면 반갑게 달려왔다. 찬솔이가 다가가면 먹이를 주러 온 건지, 인사를 하려는 건지, 심심하니까 놀아달라는 건지 금세 알아차렸다.

"쪼꼬미야, 오빠 학교 다녀올게. 오후엔 꼭 산책가자. 약속해."

쪼꼬미가 산책이라는 말을 알아듣고 꼬꼬꼬 대답했다. 산책은 쪼꼬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다. 노란 기장쌀 보다도, 말린 지렁이 보다도 더.

쪼꼬미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엄마와 아빠는 서로 다른 이유로 걱정했다. 아빠는 초등학교 앞에서 사 온 병아리는 병에 걸리기 쉬워 잘 죽는다고 했다. 귀여운 병아리가 죽으면 찬솔이가 무척 슬플 거라고 했다. 엄마는 병아리가 엄청난 속도로 쑥쑥 큰다고 했다. 몇 달만 지나면 커다란 수탉(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는 모두 수컷이라고 했다)이 되어 새벽마다 꼬끼오~ 할텐데, 아파트에서 그런 닭을 키우면 이웃들이 항의할 거라고 했다.

엄마 아빠의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쪼꼬미는 죽지 않고 쑥쑥 컸다. 한 달 만에 보송보송한 솜털이 빠지고 얼룩덜룩한 깃털이 나오기 시작했다. 가을이 되자 완연한 닭의 모습을 갖추었다. 쪼꼬미에게는 길고 화려한 꽁지깃이 나오지 않았다. 억센 며느리발톱도 나오지 않았다. 머리에 난 벼슬은 뾰족뾰족 귀여웠고, 꼬끼오 하고 우는 대신 작고 귀여운 소리로 꼬꼬꼬 하고 말했다. 찬솔이의 예상대로 쪼꼬미는 암탉이었다.

쪼꼬미가 커갈수록 철창 우리는 비좁아갔다. 좁은 우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불쌍해서 베란다에 풀어줬지만, 온 사방에 똥을 싸고 다녀 엄마가 다시 우리에 넣어놓았다. 대신 찬솔이가 산책을 시켜줬다. 강아지에게 해주는 어깨끈을 두르고 산책로에 나가면 사람들이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곤 했다. 어떤 아이들은 쪼꼬미를 보고 무섭고 징그럽다고 말했지만, 찬솔이에게 쪼꼬미는 그 아이들이 데리고 나온 강아지보다 훨씬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산책을 시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 일이 많았다. 학원도 다녀와야 하고 숙제도 해야 했다. 무엇보다 놀고 싶은 마음에 산책이 귀찮아졌다. 마지막으로 산책한 것이 언제인지 까마득했다.

"미안해. 쪼꼬미야. 오늘은 꼭 같이 산책하러 가자."

〈계속〉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1121호 현대불교
2016년 11월 9일(10월 10일) 수요일 / 불기 2560년

안 되는 거와 되는 거 그 가운데서 진짜 성립이 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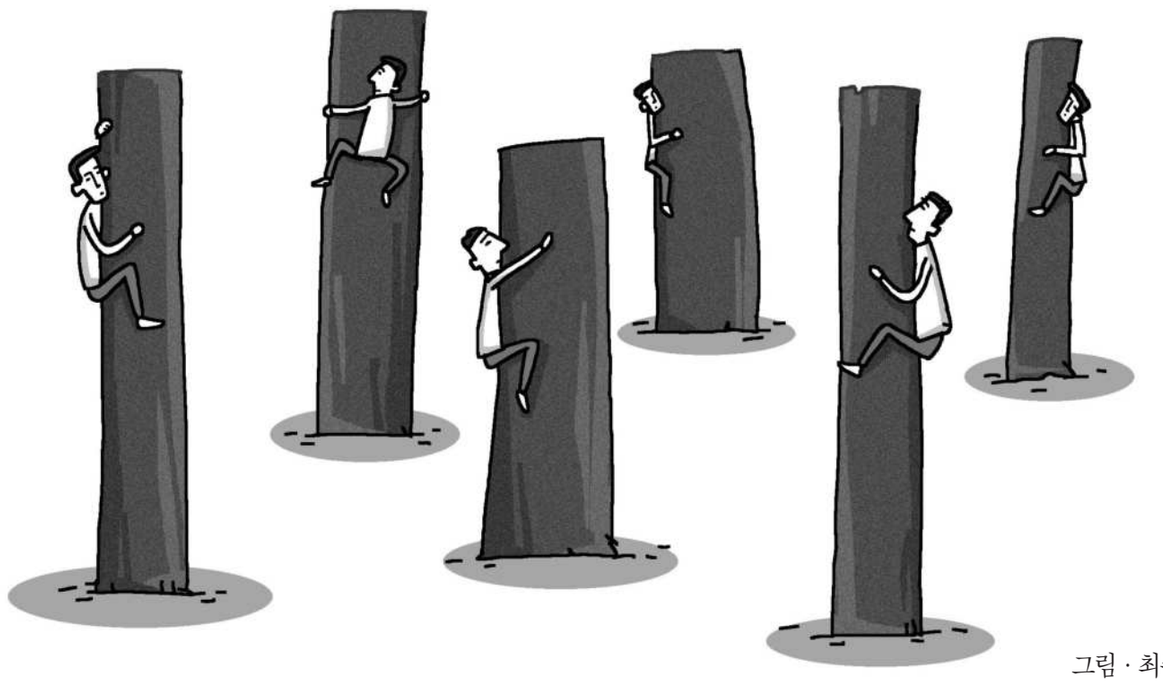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되고 안 되고에 집착을 하는데

질문 주위의 신도님들 중에 주인공에 관하고 맡겨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공부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부를 못하는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고 안 되고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진정 내 안의 근본을 찾는 일은 부차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치 우리 주위의 유사 종교에서 "나무묘법연화경"을 염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듯이 말입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러분께서 나쁘고 좋은 건 다 아시죠? 이거 하면 나쁘다 좋다 이런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강도도 강도질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알면서 합니다.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이나 사기질이나 이런 거 하는 것도 번연히 나쁘다는 걸 알면서 하는 거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인공' 하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탄생을 했다 하면 주인공입니다. 생명과 마음 내는 거와 육신이 움죽거리는 거, 이것이 종합해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부처인 줄로 아는 것도 또는 부처가 아닌 줄 아는 것도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대로 주인공이자 주인공이 과거로부터 벌여 놓고 어저께 벌여 놓은 게 오늘에 닥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저지른 것 당신이 해결하라' 이겁니다. 누가 대신 아파 주고 대신 죽어 주고 대신 해 주는 사람 봤습니까? 자기가 저질렀으면 자기가 거둬야 하는 것이 분명한 거죠. 자기가 잘못 저질렀으면 자기가 고통을 받는 것이요, 자기가 잘했으면 자기가 즐거울 것이요. 여러분을 이끌고 성품을 발견해서 제대로 걸음을 걷게 하려면 자기가 저지른 것 자기한테 되놔라 이 소립니다.

자기가 본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말하자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와서 어른이 됐으니까 일을 하는 거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인공이 다 일들을 하고 모두 행하고 생활을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딴 놈이 해 주는 거 없죠? 각자 하는 거죠? 과거에도 그렇게 살아왔고 현실에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을 자기 주인공한테 되놓으라는 거고 되입력을 하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입력은 한계가 있지만 인간의 컴퓨터에다 입력하는 거는 한계가 없고 자동적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자기가 저지른 거 현실에도 자기가 저지르고, 잘하고 잘못하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잘하든 잘못하든 모든 걸 당신이 하는 거니까 몰락 당신한테다 놔라 이 소립니다. 그렇게 자기가 저지른 거고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자기가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 생활 전체가 바로 자기가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다 되놔서 입력이 되게 하라 이겁니다. 자기가 한 것대로 입력이 돼서 현실에 자꾸 나오니까 그 자리에다가 되놔서 되입력이 된다면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면서 새로이 입력이 들어가는 대로 현실에 또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에다가 자꾸 놓고 관(觀)하는데도 안 됩니다." 이러거든요. 이건 아주 하근기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모든 건 여러분, 각자 여러분께서 하는 겁니다. 잘하든 못하든 못났든 잘났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의 뿌리요, 주인공이지 다른 분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통해서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 주인공에서 하는 거,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거 모든 것이 주인공이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주인공이 모두 하는 거, 바로 주인공이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런 걸 주인공에다 되놔라 이 소립니다. 그래야 주인공의 그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죠. 어떻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각자 여러분이 그대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하는 일을 주인공한테다 되놔라 이겁니다. 그러니 못 믿고 믿고 이런 게 없죠. 그렇게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심성(心性)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인공에다가 관하고 그랬는데, 주인공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는데, 만약에 부산으로 차를 타고 갔으면 타고 올 수도 있어야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타고 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죽고 살고 죽고 살고 해야 이 끊임없이 이어서 진리의 길이 되는 거지, 끊어진다면 어떻게 진리라고 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잘못하는 일도 있고 잘하는 일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여러분이 다 잘하고 가십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의 선장을 만들어 놓고, 아까 얘기처럼 잘못하게 되면 그 잘못하지 않게 가차 없이 쳐서 거기다가 되놓고 잘못하지 않도록 이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너무도 잘못하고 잘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잘되는 건 감사하게 놓게 하고 또 잘 안되는 거는 '아, 나를 가르치느라고 이러는구나!' 하고 '너만이 잘 되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돌려서 놓는다면 '이거는 안 되는 것도 알고 되는 것도 아는구나!' 하게 되니 안 되는 거와 되는 거 그 가운데서 진짜 성립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내리고 타는 그 가운데 있는 거지, 내리고 타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잘되고 못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잘되고 못되는 그 가운데에 자유인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려면 그 주인공 가운데서 바로 내 성품이 발견돼야 됩니다. 그렇게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는 모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 여러분이 주인공이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게 공(空)했으니까 모든 걸 주인공에 되놔라 이겁니다. 무슨 못 믿고 믿고가 없어요. 종교를 믿고 안 믿고 하기 이전에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났으면 주인공이자, 바로 주인공이 살림을 하고 생활을 하고 상대를 겪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주인공이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 것을 주인공 자기한테다 다시 '네가 하는 거니까 잘할 수 있잖아!' 하고 자꾸 마음의 계발을 시키면서, 발전을 시키면서 창조력을 기른다면 그 가운데서 성품의 작용이 드러나게 되고 성품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체가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주인공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모든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발전시키려면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를 주인공에다가 모두 되놔라. 잘하는 건 감사하게 놓고 잘못하는 건 잘하게 굴려서 놔라." 하는 그것이 배움의 지름길입니다.

형제간의 종교가 달라서 힘들어요

질문 스님,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형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도 종류가 많고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각각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상을 당해서 초상을 치를 때는 그 절차를 각자 자기 종교 의식대로 하기를 원하거든요. 불교 믿는 사람은 불교식으로 하자, 또 성당에 다니는 분들은 성당식으로 하자, 교회 다니시는 분은 교회식으로 하자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요.

답변 아이고 참, 왜들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까요? 형제가 오 형제든 팔 형제든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를 믿고 이 사람은 가톨릭교를 믿고 이 사람은 불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다니니까 여기 식으로다가 하자, 또 나는 여기 다니니까 여기 식으로 하자 하고 세 사람이 나누고 싸웠어요. 그럴 때 나는 이렇게 말을 해 주었지요. "누가 제일 큰형이냐?"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람이 제일 큰형이래요. 그런데 어떤 형제들은 기독교 믿는 사람, 또 천주교 믿는 사람이 큰형이라고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면 "큰형이 불교를 믿으니까 불교 의식을 따라라. 따르되 이건 이름에 불과하고 형식에 불과한 건데 당신네들, 이 지구가 독이라면 독 안에 같이 들어서 오물오물하면서 왜 이렇게 따지길 좋아해?" 내가 그랬지요. 그렇잖아요?

기독교다 불교다 이건 이름이에요. 진리는, 평등 진리는 하나고 마음먹기에 달렸다고요. 거기에 마음이 걸리면 손해를 보고 걸리지 않으면 아주 이익을 보고 그래요. 그리고 남 편안하게 해 주고, 남 편안하면 나도 편안한 거예요. 남을 편안치 않게 해 주면 나까지 편안치 않아요. 나는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하기 싫어요, 귀찮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인식들을 그렇게 갖는다면 끝 간 데 없이 그렇게, 자식들까지 그렇게 내려갈 테니까 그게 난 싫습니다. 부처님이 가

☞ 26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를 주인공에다가 모두 되놔라

☞ 25면에서 계속

르쳐 주신 그 뜻대로 사는 것뿐이죠.

큰형이 가톨릭교라면 가톨릭교 의식으로 따라라 이거죠. 또 큰형이 아니고 동생이 바둥바둥 우기고 온통 그냥 고집을 세우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동생 따라 줘요. 하하하…. 기독교든 불교든 가톨릭교든 상관이 없어요.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그네들 마음 편안하게 해 주면 내 마음도 편안하고…. 그것이 둘이던가, 네? 둘이에요? 하나지. 그 하나마저도 없어요. 그런데 왜들 그렇게 붉히고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부모 제삿날 형제들이 네가 더 냈느니 내가 더 냈느니, 이렇게 하느니 저렇게 하느니 그러고 싸워 봐요. 생시에 부모 앉혀 놓고 상 차려다 놓고 싸우는 거나 똑같아요. 그럼 그 밥맛 나겠어요? 좀 넓게 생각하라고요.

천도시켜 드리고 싶은데…

질문 요즘 들어 제 주위의 사람들 중에 몇 분이 급작스럽게 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활이 넉넉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천도재를 올려드렸을 텐데 그러지를 못해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제 주위의 분들의 천도를 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영가 천도? 이거 봐요. 지금 내 몸에 있는 수십억의 생명들이 회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똑같이 회전을 하는 게 아니고 인과가 똑같이 된 게 아닙니다. 모두 업식으로 뭉친 것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화를 일으키고, 때에 따라서는 안 되게 만들고, 때에 따라서는 질병이 오게 만들고, 때에 따라서는 친척간에도 막아 놓고, 때에 따라서는 이혼을 하게 하고 뭐, 별짓 다 해요, 이 속에서. 이걸 어떻게 말해야 자세히 알아들을까요? 그러니까 이 속의 세포를 통해서 회전하는 그 무리들이 그렇게 찰나찰나 여러분을 괴롭히는데, 괴롭히는 대로 놓는다면 하나하나 보살로 화한다 이거예요. 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조상도 거기 있는 거고 모든 사생이 거기 있는 거니까, 거기에 업식으로써 모두 뭉쳐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놓는다면 그대로 보살로 화해서 신장도 되고 호법신도 되고, 법신도 되고 화신도 되고, 지장도 되고 약사보살도 되고, 용왕신도 되고 지신도 되고, 어느 것 하나 아니 되는 게 없어요. 자기의 용도에 따라서 말입니다, 찰나에! 그래서 찰나의 살림살이를 잘할 수 있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보살이요, 부처다 이 소립니다.

여기에서 또 한마디 덧붙인다면, 조상이든 형제든 자식이든 그 영혼을 천도시키는 데는 꼭 여러분 주인공에 일임을 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은 이 도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살아 계신 분이 내 어머니라는 것도 알고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알고 내 자식이라는 것도 알고,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통신이 되는 겁니다. 선맥이 이어지고 또 통신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천도를 시키는 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공에 모든 것을 일임하고 '조상들 잘되게 하는 것도 당신이요, 자식 잘되게 하는 것도 당신이요, 나를 이끌어 가지고 다니는 것도 당신이요, 병을 낫게 해 주는 것도 당신이요' 하고 믿어야 합니다. 일체 만법이 주인공으로 말미암아 나고 드는 것인데 다른 어디를 믿겠는가 이 말입니다. 다른 어디에서 구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잘 아시죠? 의학으로 고치는 거는, 아주 똑바로 말한다면 30%가 조금 넘는다고 할까요? 그러니 못 고치는 게 많아요. 그럼 나머지 70% 조금 못되는 것은 어디서 벌충을 합니까? 그것을 누가 충당을 하나요? 여러분이 하셔야죠? 보세요, 우리가 농사짓는 데도 약을 뿌리면 면역성이 생겨서 그다음에 가서는 그 약을 뿌려도 안 죽는 문제가 나오죠. 그것이 바로 진화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탄생을 했다 하면 주인공입니다.
생명과 마음 내는 거와 육신이 움죽거리는 거,
이것이 종합해서 주인공입니다.

어때요? 내 말이 틀려요? 약을 뿌려서 죽이고 난 뒤에는 영락없이 다른 모습으로 또 나오는데 이제는 같은 약을 뿌려도 죽지 않는 껍데기를 쓰고 나와요. 과학자들이 수년, 십 년을 연구해서 그걸 죽일 수 있었는데 그다음에는 또 딴 껍질을 쓰고 나오니 그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학으로도 당해 내질 못해요! 당해 내지 못하는 그 70%를 여러분이 이 도리를 알아서 감당해 내라 이겁니다.

이루종차 누구한테 밥을 놓고 떡을 놓고 빌어서 우리 형제를 살릴 수도 없고, 모든 게 다 그래요. 부처님한테 가서 삼천배를 하고 백팔배를 하고 이래도 일배만 못해요.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 종종걸음으로 백 번을 뛰어갔어도 그 자리에 앉아서 한 번 한생각 한 것보다 못해요. 이렇게 좋은 법을 두고 왜, 여러분은 항상 바깥에 끄달리고 윤회에 끄달립니까! 윤회에 끄달리지 않으려면, 생사에 끄달리지 않으려면 이 도리를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바닷물이 가까운 데 있으니 잘 보고 다니시겠죠? 뭐, 좀처럼 해서 바닷물은 얼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아니 글쎄, 얼음은 뭐고 물은 뭐겠습니까? 얼음이 녹았다면 이 세상에 생(生)했다고 할 것입니다. 얼음이 얼었다면 죽어서 송장이 됐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물의 이치는 뭐며 얼음의 이치는 뭐겠습니까? 그저 한때 얼었다가 한때 녹으니 그것을 바로 생사에 비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다 산다' 이런 언어도 붙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며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길이다 이겁니다.

자유인의 경지까지 가는 과정

질문 스님께서는 제 안의 근본이 세상 만물만생의 근본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 모든 것을 그 근본 축에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유인의 경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자유인은 어떤 경지인지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람의 허물은 썼지만 마음 씀씀이를 잘 쓰면 사람이고 잘 쓰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가르쳐서라기보다도 자기가 한생각을 잘하고 행동 하나를 잘하고 말 한마디를 잘했을 때, 삼합(三合)이 맞았을 때에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어디선가 봐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 여러분의 마음이 알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만치 다 안다 이겁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속지 않고 자기를 속이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써 말을 하고 행을 했을 때에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참나는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잘 알기 때문에 우주간 법계에서 안다는 뜻입니다.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우주 천체, 일체 만물만생이 공생하면서 공용하면서 공체로서 공식하고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알죠.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쓰면 체가 없는 마음이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면서 모두 한마음이 되게 하니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해 줄 수 있지만, 내 마음을 잘못 쓰면 잘못 쓴 대로 배척을 당해서 보이지 않는 데서 한마음이 돼 주질 않아요. 사람은 전부 마음에 의해서 육신이 움죽거리게 돼 있고 마음에 의해서 좇아다니는 거니까요. 그 마음들이 한마음이 됨으로써 육신은 거기에 호응을 해 주는데 마음이 그러지 않으니까 육체도 호응을 안 해 주죠. 그러니 무의 세계에서, 즉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오지 않으면, 봐 주지 않으면 보이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따로 있고 지금 현상세계가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돌아갑니다. 한 찰나에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지만…. '마음은 하나지만' 하는 건 축과 같다 이겁니다. 저 프로펠러가 돌아가든 연자방아가 돌아가든, 뭐가 돌아가든 축은 움죽거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안의 축을 믿으세요. 축을 믿는다면 그 축에 의해서 프로펠러가 돌아갑니다. 그걸 심봉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상 법이 다 돌아갑니다. 우주 전체가 돌아가듯이 이 몸뚱이도 내 축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마음을 만 가지로 낼 수 있죠. 만 가지로 낼 수 있는 그 마음을, 즉 말하자면 묘법이라고 할 수 있죠. 망상이라고는 생각 마세요. '나는 망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나오니 이거 언제 공부하느냐.' 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집멸도(苦集滅道) 사제법에 이런 게 있죠. "고 · 집 · 멸 · 도" 이랬습니다. 고를 고라고 생각을 안 하니 집착이 없어요. 집착이 없는데 멸이 어디 있겠습니까? 멸이라는 언어가 붙습니까? 그러니 도는 무(無)죠. 왜? 어느 거 하나 돌아가지 않는 게 없고, 어느 거 하나 생명 없는 게 없고, 어느 거 하나 내버릴 게 없기 때문이지요. 프로펠러가 막 돌아가는데 어느 것이 프로펠러고 어느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없듯이 세상 이치가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만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음과 양이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는 게 아니라 벌레도 엄마 아빠가 있고 자식을 낳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만사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서 풀포기 하나도 둘이 아니므로 버릴 게 없습니다. 모두가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이 영역을 우리가 마음대로 잡아 쓸 수가 있고 꺼내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각자 내 영원한 내공을 타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자신의 길잡이가 생겨서 샘물의 맛을 볼 수 있으며 '아, 샘물 맛이 참 좋더라.'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내 내공의 타파가 있어야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삼심(三心)의, 삼세심(三世心)의 내공을 타파할 수 있죠. 그거를 타파함으로써 내가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을 다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때에 사공법을 타파할 수 있죠, 이 세상 법을. 그렇지 않을까요?

알지도 못하는 데다가, 조그마한 그릇에다가 에너지만 많이 넣어 주면 담기지도 않고 넘쳐흘러서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른다 할지라도 이치적으로만 들어 놓아도 언젠가 문득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아, 그 스님이 그렇게 말을 했지.' 하고 말입니다. 사공법을 타파함으로써, 즉 말하자면 오신통을 자유스럽게 굴릴 수가 있는 거죠. 오관을 통해서 들이고 내는 오신통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전에도 얘기했죠? 지금은 망원경이라고 하던가? 자연법칙에 의해서 망원경을, 즉 천안통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얘기를 언젠가 했습니다. 또 숙명통은 컴퓨터라고 해도 됩니다. 또 타심통은 탐지기라고 해도 됩니다. 또 천이통을 천체무전통신기라고 해도 됩니다. 표현을 말입니다. 이 다섯 가지 안에 들어 있으면 다섯 가지를 굴릴 수가 없으니 다섯 가지에서 벗어나야 원통력을 벗어난다는 얘깁니다. 즉 말하자면 항아리 속에 들어 있으면 항아리를 굴릴 수가 없고 항아리를 벗어난다면 항아리를 굴릴 수가 있죠. 그렇죠? 안 그럴까요?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지구 바깥을 벗어나든지 우주 바깥을 벗어나든지 그 안에 있든지 자유롭습니다. 내가 났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곧 내 마음의 근본으로부터 세상 천지 만물 이 자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천지의 근본이나 태양의 근본이나 인간 삼세의 근본이나 인간의 모든 삶의 근본이 바로 내 한마음 근본인 거죠. 체도 없고 볼래야 볼 수도 없고 내놓을 수도 쥘 수도 없는, 빛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영묘하고 영원한 그 불심 자체, 바로 표현해서 주인공 그 자체의 근본입니다. 축!

그러니 그 근본에 모든 게 들어 있고 그 근본에서 모든 게 나갑니다. 여러분 마음은 하나지만 마음 내는 거는 천차만별로 낼 수 있죠. 24시간을 통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애정, 미움, 증오, 사랑 온통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니 머리카락 수효보다 더하죠. 머리카락을 헤아릴 수가 없듯이, 모래알을 셀 수가 없듯이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했어도 무효입니다. 생각을 했어도 없고 또 생각을 했어도 없고 그렇건만, 여러분은 생각을 해 놓고 그것에 착을 두고 잡고 있어요. 그러니 끄달리죠. 생각 하나 잘하면 그게 바로 생산을 해내는 건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칠 때에는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다가 모든 걸 놓으라고 합니다. 잘되는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놓고 안되는 거는 '주인공밖엔 해결 못한다.' 하고 믿고 놓고 이런다면 양면이 다 거름이 되는 거죠. 그냥 넣기만 하면 없어지고 넣기만 하면 없어지고 그러니, 수가 없이 넣어도 넣은 사이가 없고 꺼내도 꺼낸 사이가 없이 여여하게 이 세상을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 내 영원한, 내 몸 태어나기 이전, 그 콩씨를 알게 된다 이겁니다.



불자 세상보기

소통과 관심, 불통과 외면



석 길 암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분노하는 국민, 외면하는 지도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근 몇 주간의 정국을 바라볼 때 쉽게 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쉽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지난 한 달간 대한민국을 휩쓸었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그 여파로 지난 며칠간의 대통령의 지지율은 10%로 곤두박질 쳤고, 이제는 민심 저 바닥에서부터 탄핵, 하야 같은 말들이 서슴없이 오르내릴 정도에 이르렀다. 이는 지치고, 화나고, 어이없는 민심을 대변하는 말들일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란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날 정도이니 더 말할 것도 없는 셈이다.

본래 정치인들이 민심을 운운하면서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일이야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요즘의 민심은 한결같다.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어서 말도 안 나온다는 것. 지지율 10% 내외라는 수치는 그러한 대다수의 민심을 반영하는 지표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결과 20대가 1.6%, 30대가 3.1%, 40대가 7.7%, 50대는 10.6%이고 60대 이상에서만 27%의 지지율을 보였다고 한다. 60대 이상을 제외하면 국민 20명 중 1명꼴로 대통령의 정치행위에 동의하지 않는 셈이 된다. 세월호 사건 이후 추락하기 시작한 대통령 지지율이 마침내 정점을 찍은 듯한 모양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태도는 굳건해 보인다. 정치권의 합의는 둘째 치더라도 국민의 의사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관련 인사를 파면하고 새로운 인사를 등용하는데 훨씬 더 신중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지는 인사 교체를 보고 있노라면, 국민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아니 분노는 커녕 의사라도 조금이나마 반영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렇게는 아니다' 라는 민심은 아예 없는 듯 한 태도다.

그런데 어떤 조직이든, 조그만 친목모임부터 국가 단위의 거대한 단체에 이르기까지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들의 삶에 무관심하다면, 그는 이미 조직을 이끄는 리더로서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지도자를 뽑는 것은 그들의 삶을 보장하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구성원들이 무작정 그들의 삶을 개선해달라고 요청만 하는 것도 아니다.

구성원들은 그저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되도록 많은 사람의 의사를 지혜롭게 끌어 모으고, 그것을 앞서서 구체화시키는 정책 실행의 리더를 요구하는 것이다. 국민은 정신 빠진 모 공무원이 말했던 것처럼 무지렁이가 아니다. 국민들은 오히려 대단히 지혜롭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을 뛰어넘을 정도로 과분한 결과를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저 현실 속에서 최선의 조건을 찾아나가도록 지지하고, 그럴만한 이를 지도자로 선출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 그들의 지도자로부터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서로에 대한 보살핌을 요구하는 덕목이기도 하다. 현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일일이 반영한다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과 의사를 반영하고 서로의 요구사항을 알아가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은 서로 적대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부처님은 그런 개인들에게도 일일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도록 가르친다.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고 하나로 모아내야 하는 지도자라면, 나에게 가까운 사람의 의견도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의 의견도 기꺼이 공동체의 나아갈 길에 반영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기도 하다.

더구나 국가라는 단위에서는 그것을 구성하는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국정에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개인 하나하나가 아니며, 대부분 공적인 이익과 연관하여 의사를 표명하는 공공성을 반영해가는 현장이 바로 국정이기 때문이다. 그 공공의 현장에 개인의 의사가 주로 반영되는 참담한 국정현실, 거기에 절망하는 민심을 외면하고 불통을 고집한다면, 그것이 어디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일체 중생을 단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구원하겠다는 부처님의 서원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은 지도자에게 있어야 한다.

기자칼럼

조계종의 출입기자 규정 정비를 보며



노 덕 현
취재부 기자

최근 조계종 총무원이 '출입기자 등록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08년 이후 내규 상태로만 있던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식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계종의 강력한 출입기자 규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변변한 규정조차 없었던 조계종이 출입언론에 대한 기준, 취재 편의와 지원을 사회의 여러 기관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나무랄 수가 없다. 김영란법 도입으로 인해 취재지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취재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당위성도 충분하다.

불교언론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두루뭉실하게 운영돼 온 기자단 제도가 최근의 언론사태를 거치며 사실상 와해된 것이 이번 등록제 도입의 한 원인이다.

그러나 욕심이 지나친 탓이었는지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논의 단계에서 일부 언론에 채 완성되지 못한 규정안이 유출됐고, 세부 내용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여러 불교계 언론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초 조계종 총무원이 주장한 의미는 상당부분 빛바랜 듯 보인다.

여기에 총무원 측이 언론에 배포한 추진안을 살펴보면 다양한 조항에서 우려할 만한 부분이 발견됐다.

가장 먼저 출입기자 등록에 대한 거부 조항이다. 이 조항은 △허위 · 왜곡보도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기자 △종단에서 제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받았던 자가 운영하는 언론사의 기자 △1호 등의 행위로 종단 출입제재를 받았거나 받았던 적이 있는 기자 △'불교 및 유사조계종' 이 포함된 제호를 사용하여 종단 공인을 받은 언론사로 오인될 수 있는 언론사의 기자 등으로 구성돼있다.

문제는 허위 · 왜곡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려니와 행위의 범위를 과거까지 확장한 점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제적 징계 후 복적된 스님이 운영하는 언론사, 또는 한때라도 출입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 기자는 모두 출입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등록 취소의 규정도 취재에 제한이 갈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다. 일괄적으로 홍보국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 부분이 그 것이다. 취재 현장에서 보면 조계종 총무원의 부처마다 언론과의 관계는 달랐다. 불교계 언론의 감시와 견제가 더 중요한 부처도 있고, 홍보가 더 중요한 부처도 있다. 조계종의 출입기자 등록제가 성공하려면 이런 상황이 충분히 고려돼 규정 내에도 부처별로 차별화나, 종단 내 시스템 정비가 선결돼야 한다고 보인다.

한국불교의 대표종단인 조계종은 불자들과 불교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언론을 멀리할 수도 없고, 멀리해서도 안 된다. 조계종 총무원 취재에서는 오랜 관행을 지닌 각 언론사의 취재 시스템이 있기에 이번 규정을 둘러싼 논란은 상당기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이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 규정 정비도 궁극적으로는 불자들을 위한 봉사에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언론도 언론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득권과 관행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 해서는 곤란하다. 문제의 핵심은 불교계 언론 본연의 기능 중 하나인 국민의 알 권리와 불자들의 신심 고취 및 불법 홍포에 도움이 되느냐이다.

조계종은 출입기자 등록제도 도입은 그동안 주먹구구식 종단 언론 지원 및 관리의 큰 변화임에 분명하다. 언제나 그렇듯이 제도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제도화 문턱에서 불교계 안팎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社說

최순실 사태로 종교 역할 되짚자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10% 내외로 하락했고, 매일 현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은 이어지고 있다. 최순실이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던 배경에는 종교가 있다. 아버지 최태민 목사는 과거 영생교를 이끌었고, 박 대통령은 영애 시절부터 그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그때부터 내려온 인연이 자신의 육영재단, 영남대를 좌지우지하게 했고, 이것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는 국정으로 확대된 모양새다.

박 대통령 이후 터진 굵직한 사건에는 유독 종교가 연관돼 있다. 아직도 진상규명이 안된 세월호 참사에는 구원파의 유병언이 있었고, 현 사태에는 영생교의 최태민 · 순실 부녀가 있다. 사적 영역에 머물러 있던 종교가 커넥션을 갖고 밖으로 나와 혹세무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신흥 종교들이 전부 사이비라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 문제는 종교가 보여야할 사회적 가치를 잘 구현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종교의 본령은 인간의 행복과 안녕에 있다. 불교에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고, 개신교는 구원과 사랑일 것이다. 기성 종교라고 해도 제대로 활동하지 않고 혹세무민을 일삼는다면 그 행위는 '사이비' 라고 볼 수 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현재 한국불교는 부처님 말씀대로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과연 '그렇다' 고 말할 수 있을까. 과거 대선 때 최대한 중립을 지켜야 할 종교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감히 '전륜성왕' 과 '선덕여왕' 에 비유하며 입이 닳도록 상찬했던 것을 상기하기 바란다.

종교가 보수화돼 기득권을 위한 종교로 남는다면 종교는 종교로서의 위치를 잃게 돼 있다. 최순실 사태는 종교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반면교사의 계기이다.

총림 체계 재정립 시급하다

많은 나무들이 우거진 숲과 같이 많은 스님들이 함께 어우러져 절차 탁마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총림. 이 총림의 위상이 출가자 급감에 흔들리고 있다.

조계종의 8대 총림 실사 결과 대부분이 정원미달로 나타난 것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림실사특별위원회는 11월 1일 열린 제207차 정기회에서 총림 실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8대 총림 중 1개 기관 이상에서 인원 미달을 지적받은 총림은 금정총림 범어사, 팔공총림 동화사, 덕숭총림 수덕사, 쌍계총림 쌍계사, 조계총림 송광사, 해인총림 해인사 등 6곳이었다. 5곳이 승가대학, 1곳이 율원의 인원이 미달됐다.

종령에는 승가대학 등에 학년 당 10명, 총 40명의 최소정원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이 요건을 대부분이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와 함께 총림법에 규정된 총림 요건인 선 · 율 · 강 · 염불원의 4개 기관을 모두 갖춘 총림도 전무했다.

출가자 급감은 불교계의 큰 문제다. 이 영향이 승가대학 교육 체계 뿐만아니라 수행 전반을 책임지는 총림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크다.

고령화되는 승단 구조에 맞춰 소임 연령을 높이는가 하면 기존 교육에 전문성을 부여해 출가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는 이미 저출산 고령화의 늪에 빠져있고, 승단 또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제는 출가자 감소를 불교계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맞는 시스템 구축에 나설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 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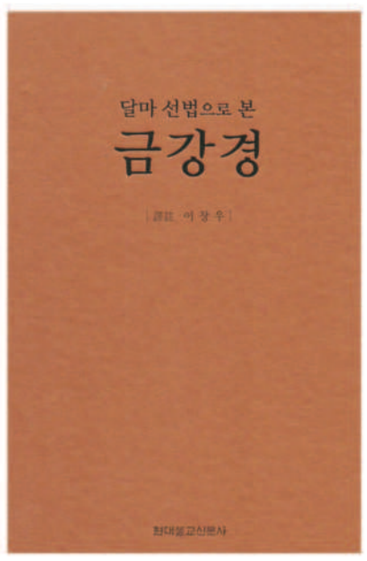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자못자'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 19,000원 | 여시아문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는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한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의 재가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 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에 몰록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서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탈의 돈법
삼계를 벗어나는 **최상의 해탈법**
담허대사의 염불론과 정혜쌍수(定慧雙修)



담허대사 저 · 송상섭 편역 | 신국판 | 부분칼라 | 232쪽 | 12,000원 | 여시아문
전국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출판 및 구입 문의 : (02)2632-8739

중국의 고승 담허(倓虛,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은 법문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왕생극락하여 해탈하게 되어있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아미타불 48대원
– 무량수경 · 아미타경과 정법개술 –



아미타불 48대원
- 무량수경 · 아미타경과 정법개술
연관스님 · 보정거사 번역 | 46배판 | 부분칼라 | 250쪽 | 10,000원 | 비움과소통

곧바로 불퇴전지에 올라 성불하는 묘법!

이 책은 『무량수경』 상권의 아미타부처님의 48대원을 서술한 한문과 번역문 및 해설, 보정 서길수 박사가 산스크리트어로 옮긴 『아미타경』 한문 원문과 번역문,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법을 개술한 대만 방륜거사의 『정법개술(淨法概述)』 번역문으로 이뤄져 있다. 『정법개술』은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을 역임한 연관스님이 번역한 염불수행의 중요한 지침서이다.

염불이 살아나야 불교가 살아납니다!
비움과소통은 정토불서 발행을 통해
아미타부처님의 대원大願을 일깨우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도서출판 비움과소통
비움과소통은 여시아문의 자매 브랜드입니다.
불교쇼핑몰 비움과소통 몰(www.bns-mall.co.kr)
불서전문 책방 비움과소통(02-2632-8739)

여시아문 도서출판 여시아문 | 전화 : 02-2004-8213